



저작자표시-변경금지 2.0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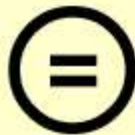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劉伯溫의 명리학에 관한 研究

- 『滴天髓』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ivination Principles by "Liu Bai-wen"(劉伯溫)

- Focusing on "Di Tian Sui "(適天髓) -



公州太學校 大學院

易理學科 易理學專攻

李 玉 先

2008. 2.

碩 士 學 位 論 文

劉伯溫의 명리학에 관한 研究

- 『滴天髓』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Divination Principles by "*Liu Bai-wen*"(劉伯溫)

- Focusing on "*Di Tian Sui*"(適天髓) -

指導教授 宋 錫 準

이 論文을 易理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8. 2.

公州大學校 大學院

易理學科 易理學專攻

李 玉 先

碩 士 學 位 論 文

李玉先의 易理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查 委員長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審 查 委 員 _____ (印)

公 州 大 學 校 大 學 院

《목 차》

I. 序論	1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1
2. 研究範圍 및 方法	6
II. 劉伯溫 生涯 및 時代的 背景	8
1. 生涯 및 著述	8
2. 時代的 背景	16
III. 『滴天髓』 分析	20
1. 『滴天髓』의 形成 背景	20
2. 構成과 體系	29
1) 『滴天髓』 이전의 命理學	29
(1) 古法命理의 特徵	29
(2) 『淵海子平』의 特徵	41
2) 『滴天髓』의 基本構造와 特徵	45
(1) 『滴天髓』의 基本構造	45
① 通神論	47
② 六親論	51

(2) 『滴天髓』의 特徵	53
① 神煞論 排除	59
② 陰陽五行의 生剋制化	65
③ 體用論	87
IV. 易理學上の 위상과 現代的 意義	92
1. 易理學上の 위상	92
2. 現代的 意義	100
V. 結論	103
◆參考文獻◆	107
▣ABSTRACT▣	113
◆ 부 록 ◆	115
<표 1> 여러나라의 12지지 동물 배속표	
<표 2> 十干變曜五行表	
<표 3> 十二支變曜五行表	
<표 4> 칠정(七星)과 사여성신(四餘星神)	
<표 5> 길·흉 신살 조건표(180여개)	
<표 6> 기문둔갑에 쓰이는 신살표	
<표 7> 육효에 쓰이는 신살표	
<표 8> 자미두수에 쓰이는 신살	
<표 9> 당사주에 쓰이는 신살표(천성표)	
<표 10> 현재 쓰이는 신살표	
<표 11> 년지 중심 신살표	

- <표 12> 12운성 중심 신살표
<표 13> 일간중심 신살표
<표 14> 월지중심 길성표
<표 15> 일지중심 길성표
<표 17> 북두성 칠정표
<표 17> 이아와 사기 천간의 별명
<표 18> 이아와 사기 지지의 별명
<표 19> 동·서양 오성의 속성표
<표 20> 음양오행의 배속표
<표 21> 삼십육금론(三十六禽論)



I. 序論

1. 研究의 意義와 目的

선사시대의 고대인들은 자연(自然)을 숭배하는 토테미즘¹⁾에 바탕을 두고 삶을 영위해 왔다. 그들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지상에 미칠 영향을 예견함과 별의 변화를 통해 국가 및 개인의 운명도 점치기 시작하였다. ²⁾

인간은 하늘의 축소판으로 해와 달의 운행에 의해서 책력을 만들고 농사를 지으면서³⁾, 자연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神)’이라는 관점이 점차적으로 흔들렸다. 그 경험에 바탕을 둔 원시적인 유물론의 자연관이 싹트게 된다. 그 최초의 형태가 오행(五行)의 관념이다.

인류 사유발전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르면□□오행□□관념이 음양 관념보다 먼저 생겨난 것으로 생각되며,□□음양오행□□사상을 일월(日月)의 자연과 인간을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즉 이런 유형과 무형의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자연이라 말한다. 이런 자연을 생성하게 하는 요인이 기(氣)이며, 쇠멸하게 하는 것도 기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의 운명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가 모두 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로 자연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1) 토템 신앙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체제 및 종교형태를 의미함. 즉 동물이나 식물과 같은 자연 대상물과 인간이 신비적 관계 또는 친족관계가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복합적인 관념이나 의식 등을 말한다.

2) 낮과 밤이 교체하는 현상에 의해 일(日)의 개념, 달의 변화에 의해 월(月)의 개념,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여 이루어진 네 계절의 교체 현상으로 년(年)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역법은 周나라와 漢나라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국가제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정월 초하루를 고쳤다. 正月은 년의 시작, 朔은 초하루로서 달의 시작을 의미하였다.

왕호(웁진이 구중회), 『역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삼명, 2006, 55~60쪽.

3) 인류역사에 B. C. 4000~3000년 무렵은 농경이 시작되고 문자가 사용되면서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던 시기였다. 금속제련과 황금기술, 도자기 제조기술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이 있었다.

운명(運命)이란 사람의 길흉화복(吉凶禍福)에 따라 수요귀천(壽夭貴賤)을 겪음과 당함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람들은 개개인의 사회생활의 양상을 탐구할 때 그 필연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것을 천명(天命)으로 돌리고 있다.

『논어(論語)』의 「안연(顏淵)」 편에 □□죽음과 삶에는 명(命)⁴⁾이 있고, 부(富)함과 귀(貴)함이 하늘에 달려 있다. □□라고 하였고, 『장자(莊子)』의 「인간세(人間世)」에는 □□그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서 그것을 편안히 여기기를 명(命)과 같이 함이 덕(德)의 지극이다. □□라고 하였다.

역학(易學)에서 다루는 내용들 역시 우주의 본원이 되는 기(氣)에 대한 이치를 말하는 것이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이기(理氣)의 문제를 다루는 천체과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역학이다. 역학에서 말하는 오행이란 지구상에서 모든 만물을 생성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큰 요소일 뿐 아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난(寒暖)과 조습(燥濕)을 관장하는 기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운수라든가 신수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하면서도 운명이 정말로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의 삶의 내용에 나타나는 길·흉상의 내용을 ‘운명’이라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운수’나 ‘신수’라는 말로 표현⁵⁾을 하고 있다.

4) 명(命)의 자의(字意)를 『설문』에서는 □□명사야 종구령□□(命使也 從口令)이라 하고, 『여람맹춘주(呂覽孟春註)』에는 □□명령야□□(命令也)라 하여 구령(口令)하는 것을 명이라 한다.

『사원(辭源)』에는 □□천소부지명(天所賦之命)□□이라 하여 하늘(天)이 부여한 것을 명이라 한다. 『열자』 「역명(力命)」에서는, 명은 곧 천명(天命)이요, 역(力)은 인력(人力)으로 표현하고, □□명(命)이란 것은 필연(必然)한 기(期), 소정(素定)한 분(分)의 이다. □□라고 하였다.

공자는 □□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명(天命)이라 □□하였고 맹자는 □□내가 노후(魯侯)를 만나지 못한 것도 천명이다 □□라고 하여, 자의(自意)로는 전지(前知)할 수 없고 자력(自力)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이 명(命)이라 보았다.

후한(後漢)의 왕충(王充)은 명(命)을 정명(正命)·수명(隨命)·조명(遭命) 등 3명(命)으로 나누어, 자연히 길복(吉福)이 오는 것을 정명, 노력에 따라 길흉(吉凶)이 달라지는 것이 수명(隨命), 선행(善行)을 해도 흉화(凶禍)를 당하는 것을 조명이라고 했다. 金勝東, 『易思想辭典』,釜山大學校 出版部, 1998, 346쪽.

5) 운명(運命)이라 할 때의 □□운□□(運)자가 □□운전 운□□자이고, 운수(運數)나 신수(身數)나 할 때에 사용되는 □□수□□(數)가 수효를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두어 수□□자이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라는 성체(星體)가 회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운행(運行)인 데서 비롯되고 있다. 지구가 태양을 안고 한 바퀴 회전을 하는 동안이 일년이며, 그 동안에 태양에서 쏟아지는 햇볕의 열도(熱度)에 따라 생겨나게 되는 것이 춘하추동이라는 사계절이다. 계절을 24개의 기와 절로 나눈 것을 절기(節氣)라고 말한다. 운명의 틀인 사주팔자에 들어 있는 길흉과 희기(喜忌)를 다루는 명리학(命理學)에서는 일 년 속에 들어 있는 절기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음양이나 오행이라는 것도 지구가 태양을 안고 선회하는 기(氣)의 주체가 되는 음양과 오행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인간 운명은 역학의 부호인 간지(干支)로써 표현한 것을 사주팔자(四柱八字)라 부르며, 자신들의 태어난 사주의 원국(原局)에 의해 정해진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운□□(運)이라고 하는 것이다.

운명론은 관념적인 사유(思惟)에 의한 변설(辨說)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연과 학적 경험에다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늘과 땅의 기운에 의해서 화생(化生)하게 된 것이 만유(萬有)라는 존재들이고 인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볼 때 그 생명의 연장선에서 운의 작용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현상계를 가리켜 우주(宇宙)라 말하고 있으며, 『주역(周易)』에도 기록된 것을 보면 태극이란 우주만물이 생성되고 전개되는 궁극적인 근원과 원리를 말하며, 태극과 음양개념을 사용해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지구도 우주의 일부분인 것이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생성시키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서는□□역(易)에 태극(太極)이 있느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8괘(八卦))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듯이 모든 만물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대립되어 세계관을 형성한다.

송(宋)대의 소옹(邵雍, 1011~1077)은 오행사상을 철학적 개념으로 체계화했으며, 『주역』 6)의 「계사전」을 계승·발전시켰다.□□하늘은 동(動)에서, 땅은

정(靜)에서 생겨났으며, 동과 정이 교차하면서 천지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동은 양(陽)이며 정에서 음(陰)이 발생하고 정은 유이며 극하면 양이 생겨난다. □□라고 하였다. 또한 동과 정을 자연현상으로 풀이했다. 소옹은 자연현상을 분류하면서 하도낙서·선천후천도수와 결합하여 태양·소음·소양·태음 등에 각각숫자를 부여하여 수·화·목·금에 짝지었다. 이 사상이 오행설과 상수론에 의해서 해석되어 자연과 인간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이 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묘한 이치를 헤아릴 수 없으며, 그것을 규지(窺知)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간에게 미지의 영역인 미래를 알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역(易)을 창안하여 운용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렇게 하여 실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 역학(易學)의 본질이며 목표인 것이다.

인사의 변화와 길흉화복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초의 점학(占學)인 『주역』이 있으며, 오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태을(太乙)과 둔갑(遁甲) 역시 천간(干支)과 오행(五行)의 수(數)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길흉을 정하는 방법이 유사하다.

명리학(命理學)은 음양오행을 기초로 한 자연학으로서 연구할 가치가 있으며, 흔히 사주명리의 3대 텍스트로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적천수』는 바로 그 중의 하나로서 중국 명(明)나라 때 유백온이 저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적천수(滴天髓)』의 저자로 알려진 유백온(劉伯溫, 1311~1375)은 이름이 기(基), 호가 청전(靑田)이고, 봉해진 작위가 성의백(誠意伯)이다. 그는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의 책사(策士)로도 유명하며, 기문둔갑·풍수 등 다방면에

6) 우리나라에서도 주역의 연구가 심화되면서 사상(四象)을 다루었다. 서경덕(徐敬德)은 소옹의 의학을 계승하면서 『溫泉辨』·『聲音解』 등 사상론에 입각한 저술을 남겼으며, 이황(李滉)은 주희의 역학계몽을 풀이한 『啓蒙傳疑』를 지었다. 정약용(丁若鏞)은 주역을 본래의 의미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면서 『周易四箋』에서 사상의 뜻을 살피고, 사상을 4개절의 변화에 8괘를 생성하는 4가지로 풀이하기도 했다. 조선 말기의 한의학자 이제마(李濟馬)는 사상체질론에 입각하여 의서 『東醫壽世保元』을 편찬했다.

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유백온에 관한 시대적 배경, 역리사적 위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 보면서 명리학의 필독서 간주되고 있는 『적천수』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적천수』의 내용은 격국론(格局論)·신살론(神煞論)·포태법(胞胎法) 등은 쓰임이 없으며, 오로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克制化)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적천수□□란 용어는 한 마디로 인명탐구(人命探求)의 정수(精髓)라는 의미이다.

하늘에는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오기(五氣)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으니 이것을 오행이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년·월·일·시의 사주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늘의 정기(精氣)를 받아 태어난다고는 하지만, 사주의 기(氣)가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있고, 천지중화(天地中和)의 기를 받아 태어나며, 천기오행(天氣五行)의 태과(太過)·불급(不及)의 소치로 선천수품운명(先天受稟運命)은 모두 각각 다르다.

일정한 원칙 하에 명식(命式)을 해부하고, 그에 따라 근간을 탐구하여 질서 정연하게 간명(看命)의 법칙을 극히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 『적천수』이다. 출생하는 만물은 어느 것도 서로 같은 것이 없으며 음양오행을 벗어날 수 없다. 인간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 갈 존재로서,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음양오행의 자연학인 명리학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여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적천수』에 관한 국내논문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본 논문은 여러 가지 미흡하나마 그 연구분야에 개척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현재 명리학의 사회적 위치는 숙명적인 요소와 미신적 요소가 복합되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물론 사주명리서들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으나 학문적 체계가 여전히 확고하지 않은 시점에 놓여 있다. 본 논문은 단순히 술수적인 측면을 넘어서 학문의 연원을 추적하고 『적천수』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술□□(術)과□□학□□(學)의 용

함에 하나의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은 고법에서부터 『적천수』가 나오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적천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먼저 제Ⅱ장에서는 유백운의 생애와 저술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의 상황과 역학발전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Ⅲ장에서는 『적천수』의 분석에 앞서, 먼저 주역에서 모든 학문의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사주학 역시 주역에서 생겨났으며 역학의 근원이 된다.

『적천수』는 『주역』의 영향을 받은 학문으로 『적천수』의 형성배경에서 주역과 함께 육친론의 창시자인 경방역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둘째, 『적천수』가 나오기 이전의 학문인 최초의 고법명리를 정리해 보고, 셋째, 적천수가 나오기 직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연해자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명리학에 대한 논문도 몇 가지 한정하여 다루어보겠다.

우리나라 역리학회에서 『적천수』를 단일주제로 다룬 연구논문은 「유백운의 적천수 번역논문」⁷⁾ 한 권 뿐인 실정이다. 명리학 논문으로 「사주학의 역사와 격국용신의 변천과정연구」 논문과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⁸⁾등에서, 그리고 그 밖의 명리학 관련논문들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조금씩은 언급되고 있다.

7) 朴憲九, 「劉基(伯溫)의 『適天髓』 原主 翻譯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9쪽. 박헌구는 이 논문에서 주역과 적천수를 비교 설명하면서 적천수의 원문번역에 충실하였다.

8)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이 논문에서 공인된 권위를 지닌 명리서적을 들어 『적천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천강 오성삼명지남』과 『적천수천미』를 설명하면서, 『명리종정』·『궁등보감』·『자평진전』의 순서로 설명하였다.

『적천수』에 관련한 저서들은 후대에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해설과 함께 편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원문의 텍스트는 『적천수보주』, 『적천수천미』, 『적천수 징의』 등을 삼고자 한다. 참고도서단행본은 『유백은전서』 9), 『옥조정진경』 10), 『연해자평정해』 11), 『적천수비해』, 12) 『자평진전평주』 13), 『이회 적천수』 14) 등을 참고로 한다. 논문류는 앞에서 언급한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15)와 「사주학 역사와 격국용신론의 변천과정 연구」 16), 그리고 「유기(백은)의 적천수 원주 번역연구」 17) 및 「경방역의 연구」 18) 등을 참조하기로 하겠다.

현재 출판되어 있는 『적천수』 관련서적은 매우 다양하다. 19) 이렇듯이 현재 『적천수』의 번역서들이 대단히 많은 것은 그 만큼 적천수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명리의 최고서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필요한 부분에서 이들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9) 房立中, 『劉伯溫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1996.

10) 蘇衛國, 『玉照定眞經』, 中國哲學文化協會出版, 2000.

11) 沈載熱, 『增補 淵海子平精解』, 明文堂, 2007.

12) 阿附泰山, 『滴天髓秘解上, 中, 下』, 三元文化社, 1998.

13) 徐樂五, 『子平眞詮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5.

14) 나영훈, 『이회 적천수』, 봉성기획, 2001.

15)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6) 李容俊,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 문화대학원 석사논문, 2004.

17) 朴憲九, 「劉基(伯溫)의 『滴天髓』 原主 翻譯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8) 尹太鉉, 「京房 易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9) 『명사』 「예문지(藝文志)」, 삼명기담적천수(三命奇談滴天髓)/임철초(任鐵礁),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진소암(陳素庵),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원수산찬집(袁樹珊纂輯),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서락오(徐樂吾), 『적천수보주(滴天髓補註)』/서락오(徐樂吾) 滴天髓輯要 주석(註釋), 『적천수징의(滴天髓徵義)』/반자단(潘子端), 『적천수신해(滴天髓新解)』/아부태산(阿附泰山), 『적천수상해(滴天髓詳解)』/종의명(鍾義明), 『현대파역적천수(現代破譯滴天髓)』/좌등육룡(佐藤六龍), 『사주추명술오의(四柱推命術奧義)』/곽홍면(霍紅棉), 『명리음양오행과학적천수(陰陽五行科學滴天髓)』/천경당(千頃堂) 발행,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심종철(沈鍾哲), 『사주필전적천수천미(四柱秘傳滴天髓闡微)』/김우제(金于齊), 『증보적천수정해(增補滴天髓精解)』/나영훈, 『이회 적천수』/박주현, 『적천수 강의(滴天髓講義)』/이수, 『적천수 스펙트럼』/공유성, 『적천수 징의(滴天髓徵義)』.

Ⅱ. 生涯 및 思想的 背景

1. 生涯 및 著述

1) 生涯

유백온(劉伯溫, 1311~1375)²⁰⁾은 명대의 사람으로 이름은 기(基), 호는 청전(靑田)이며, 자(字)는 백온(伯溫), 시호는 문성(文成)으로, 봉해진 작위가 성의백(誠意伯)이다. 절강성(浙江省) 청전(靑田)²¹⁾ 사람으로 집안은 가난했으나 영예로운 가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책을 보면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암기할 정도로 총명했기 때문에 경학(經學)뿐만 아니라 천문(天文)과 술법(術法) 및 병법(兵法)에도 능통했다.

사상면에서는 방덕공(龐德公)과 사마덕조(司馬德操)를 스승으로 삼았고, 군사에 관한 일로는 풍공구(豐公玖)를 스승으로 모셨으며, 천문지리는 당시 기인(奇人)이라고 불리던 북극교주(北極敎主)에게 배웠다.²²⁾ 스스로 근면하고 성실한 생활을 했으며, 북극교주의 문하로 들어간 뒤에는 피나는 노력으로 공부하고 덕을 쌓았다.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천부적인 재능이 더해져서 천하의 기재(奇才)라 불리었다

20) 성의선생(誠意先生)은 중국 원(元)나라 말엽과 명(明)나라 초기에 살았던 유기(劉기)를 말한다. 성의(誠意)는 명나라가 건국 뒤에 성의백(誠意伯)이란 관직을 봉한데서 나온 말이다. 원나라 무종(無終) 지대(至大) 4년에 태어나 명나라 태조 홍무(洪武) 8년(1375년)에 죽었다.

21) 지금의 영가현(永袞縣)을 말함.

22) 쓰가오(허유영 옮김), 『뜻을 세웠거든 이루게하라 성사경』, 북폴리오, 2005, 242쪽.

백온은 곱슬곱슬한 수염에 용모가 수려하고 위대하며, 의기는 크게 절개가 있어서 천하의 안위(安危)를 논하였다. 또한 얼굴은 광택이 났다. 강직을 성품을 가졌고 악(惡)을 미워하였으며 일을 처리함이 귀신과 같았다. 달리 경전과 역사에 통하여 박식하여 책을 읽음에 엿보지 않음이 없으니 더욱 상위(象緯)의 학문에 정밀하였다. 23)

일찍이 정복(鄭復)을 따라 처음부터 이학(理學)을 배웠고, 원(元)나라 지순(至順) 연간(1330~1333)에 진사로 천거되었다. 문종(文宗)때 진사과에 합격했으며, 고안현승(高安縣丞)·강절유학부제거(江浙儒學副提舉) 등의 관직을 지냈으나 여러 차례 배척당한 뒤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숨어 지냈다.

1348(至正8년)에 방국진(方國珍)이 절강성 경원(慶元)에서 동란을 일으키자江浙행성(江浙行省) 원수부(元帥府)에 도사(都事)로 기용되어 반란군들을 소탕할 것을 주장하고 안일한 정책에 반대했다.

1354년(至正14년)에는 다시 관직을 버리고 지방의 군인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다. 1358년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이 금화(金華) 여수현(麗水縣)을 공략한 뒤에는 주원장의 모사(謀士)가 되어 중국을 통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백온은 『백전기략』에서 전쟁에서 이룬바□□방어란 것은 자신을 이해한 결과이다. 병법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면 온힘을 다해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24)

『명사明史』 유기전(劉基傳)에 의하면, 태조는 금화(金華)에서 와서 확장(擴蒼)에서 정착하여 백온과 송명 등의 이름을 들었다. 그래서 초빙을 했는데 유기가 아직 응하지 않았고, 총제(總制) 손염(孫炎)에게 다시 글을 보내자 비로소 출사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시무십팔책(時務十八策)』을 준비하여 태조께 바쳤다. 주원장은 이를 보고 크게 칭찬하여 유기를 심복으로 여기고 항상 국가 대사를 의논하였다. 그 후 14년간 고투 끝에 중원을 평정하고 명나라 왕조

23) 房立中, 『劉伯溫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1996, 3쪽.

24)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도 이길 수 없다면 단단히 방어하고,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 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를 건립하게 된 것이다.

명나라 건국 후 그 공을 인정받아 어사중승(御使中丞) 및 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에 임명되고, 진(晉) 봉읍지(封邑地)의 성의백(誠意伯)에 봉해졌다. 위(魏)나라를 정벌한 영웅으로 특별하게 인정하여 주원장은 즉시 다른 사람에게 유백온을□□나의 자방□□(子房: 張良)이라 불렀다.

서촉(西蜀)의 조천택(趙天澤)은 강호 방외인물의 우두머리로 백온을 삼국시대의 제갈량(諸葛亮, 181~234)만이 비교될 인물로 칭찬하였다.

나라를 연 황제는 우선적으로 유백온의 현기를 통찰하여 매번 말에서 비교하여 선양하였으므로 조정과 민간에서는 유백온이 □□아직 발하지 않은 선협적인 것을 임금에게 알리는 선지식인이고 선각인이다.’ 라고 했다. 그리하여 유백온의 성명상위설(星命象緯說)은 크게 유행되었다. 그 내용은 소지(燒紙)와 음식과 노래이나 술수와 기이한 이야기가 많아서 하늘의 남쪽과 북쪽 땅에 미쳐서 앞날 500년과 뒷날 500년간 유백온은 크게 명성을 떨쳤다.²⁵⁾

그리하여 주원장은 친필로 『위서(慰書)』를 썼는데 언사가 간절하였다. 그는 백온에게 관용(寬容)에 성찬을 보태고, □□학문은 황제의 스승이 될 만하고 재주는 왕을 도울만하다.□□고 칭찬했으며,□□재주를 품고 도를 포용한 마음으로써 나라를 도와 성공하라고 충고했다.□□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으며 자기와 가족을 잇은 채 주원장의 제업(帝業)을 위하여 획책하며 마음과 힘을 다 바쳐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운 것이다.

그 후에 유백온의 정치적 세력이 약화되고 호유용이 우승상(右丞相)에 올라 마침내 유기에 대한 주원장의 총애가 사라졌음을 알고 호의를 가장하여 의사에게 독약처방을 하여 병문안을 가서 유기를 독살하였다. 혹자는 독약 처방이 주원장의 암시를 받았거나 묵계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²⁶⁾ 1375년 유기는 귀향하여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5) 房立中, 앞의 책, 1996, 3쪽.

26) 지세화 편저, 『이야기 중국사 下』, 일빛, 2002, 160쪽.

후대사람들은 유백운을 문학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두 가지 면으로서 평가하고 있다.

군사(軍司)에 참여하여 전략을 꾀하였으며 공속문(工屬門), 구류육예(九流六藝), 천문과 음양부적을 이룬 일가의 진언에 통달하였다. 그의 시는 무겁고 울적하며 잠깐씩 멈췄다가 바뀌어 스스로 일가를 이루는 것과 깊이 깨우쳐 서로 겨룬다. 그 문장은 넓고 깊어서 역시 송렴(宋濂, 1310~1381)이나, 왕위(王禕)의 학업에 못지 않았다.

양수진(楊守陳)은 『성의백문집서(誠意伯文集序)』에서 “한(漢) 나라(B. C. 206~A. D. 220)가 생긴 이래로 천명을 도와 공을 으뜸으로 삼고 민초(民草)들과 군대 사이에는 우뚝 솟은 자들이 많았으나 문장에 뛰어난 사람이 자방(子房)의 방책을 가지는 것은 극히 드물어 사장을 볼 수 없었다. 으뜸이 되는 문장은 겨우 부격(符檄)을 변별할 정도였다. 나무를 보지 않고 나라의 공훈을 열고 겹하여 세상의 문장을 전하니 백운은 가히 천고의 호걸이라고 일컬었다.” 라고 칭했다.²⁷⁾

유백운이 걸어온 인생은 중국지식인의 전형적인 길로 그 최고의 인생법칙이 삼불후(三不朽)로, 그것은 입덕(立德)과 입공(立功), 입언(立言)이다. 그 덕(德)은 공을 세우고 은퇴하는 것이고, 공(功)은 개국공신이며, 언(言)은 후세에 문장을 전하니, 세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입언이 매우 두드러졌다. 그는 천하를 구제하였고, 궁구한 자신에게 최선을 다 하였다. 그가 지은 문장은 대부분 제자백가나 경사(經史)를 기초로 했다. 오히려 문학적평가 보다는 정치적으로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세운 공신으로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2) 著述

유백운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며, 천문·기상·역법·군사 등의 분야에 정통했다. 시풍(詩風)은 질박하고 웅장했으며, 산문에도 뛰어나 원나라 말기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를 풍자한 글을 많이 썼다.

27) 房立中, 앞의 책, 3쪽.

백은과 송렴(宋濂, 1310~1381)²⁸⁾, 그리고 왕위와 방효유를 명나라 4대 작가로서 일컫어지고 있어 그의 문학적 평가를 짐작할 수 있다.

유백은은 일찍이 감회31수(感懷31首)를 지었는데, 그 중 제27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망칠 수 있듯이 말도 고삐가 채워 질 수 있다.

맹호는 강함에 의지하지만 그 가족을 지키지는 못한다. 세상 사람이 재능과 지혜를 방임 해두고 천지자연의 도리는 달이 차는 것과 같이 기우는 것을 잘 해낸다. 신선이 사는 곳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²⁹⁾

유백은의 저서로 『육이자』 4권³⁰⁾, 『복부집(覆瓿集)』 10권, 『사정집(寫情集)』 2권, 『춘추명경(春秋明經)』 2권, 『이미공집(犁眉公集)』 2권이 있다. 명나라 성화(成華) 연간에 이 모두를 합쳐서 1권이 되었다.

성명술³¹⁾에 관한 저작은 성명상위(星命象緯)가 전해지고 있으나 위탁(僞托)

28) 중국 명나라때 심학자(心學者)로서 자는 경렴(景濂)이고 호는 잠계(潛溪)이며, 금화(金華) 사람이다. 원(元)나라 말기에는 은거하면서 저서를 남겼으나 명나라 태조가 초빙하여 장업공신이 되었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지제고(知制誥) 등을 역임하였다. 후에 장손(長孫)의 죄에 연루되어 무주(茂州)로 귀양가다가 병사하였다. 그는 심(心)은 모든 것을 구비한 이(理)라고, 하고 성인의 일신(一身)을 모두 리(理)라고 하였다. 저서에 『송학사전집(宋學士全集)』 · 『원사(元史)』 · 『용문자(龍門子)』 · 『포양인물기(浦陽人物記)』 · 『편해류편(篇海類編)』 등이 있다.

29) 象以齒自伏 馬以能受羈 猛虎恃強力 而不衛其皮 世人任巧智 不見瑤台死 永仙天下嗤. 화원위엔, 『혁신』, 2005, 442쪽.

30) 『육이자』는 풍유(諷諭) 산문전집으로서 유백은의 일생에서 창작이 제일 높은 성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의 사상과 주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이 책은 유백은이 죽은 후에야 관목으로 시작하였는데, 그의 제자 서일기(徐一夔)와 오종선(吳從善)은 모두 이 책에 서문을 썼다. 금명임(金陵任)에서 오종선을 가르치기 위해 출간된 책으로 되어 있다. 유백은은 문을 재도(載道: 貫道에 대응하는 말)로 보고, 또 자시(刺時: 시기를 날카롭게 파악하라는 의미)로 보라고 주장하였다. 즉 명나라에서 이를 발현한다면 반드시 이를 이용할 것이니 명나라에 이를 가르치라고 하였다. 그리고 『육이자』의 창작 배경(그 당시 출판 검사를 통과하는 장치를 말함)을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다.

張英基, 董文林, 『郁離子 譯註』,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년.

31) 술수가(術數家)들이 인생의 사주팔자를 천성(天星)의 운수(運數)와 오행(五行)의 생극(生剋)에 의거하여 사람의 녹명(祿命)을 추산하여 일러 성명학(星命學)이라 한다.

저작으로 알려져 있다.

『백전기략』³²⁾은 일종의 손오(孫吳)의 도략(韜略)을 경으로 하고 명장사적(名將史跡)을 보기로 하는 통속적인 작품이다. 이것은 군사의 대열 사이에서 작전을 행하는 일종의 실용 수첩인 것이다.

명나라 홍치(弘治) 17년(1505)의 이찬(李贊) 서문에 의하면, 서안(西安)은 말(馬)로 지키고 임금은 나아갈 것을 생각한다. 어사를 위하여 남태시(南台時)에 있던 바를 시험하다가 『백전기략(百戰奇略)』이라는 한 책을 얻었다. 서안을 다스리는 것과 비교하니 세번(三邊)에 일이 많음은 값진 것이다. 이 책이 마땅히 비밀스럽지 않다고 일컬은 것이다. 이에 공루판(工鑲板)을 만들도록 하여 전하니 내가 서문을 올린다. 책은 작가가 죽어도 이름이 명운을 다하고 법을 세우니, 『손무자(孫武子)』와 『무경칠서(武經七書)』가 자주 나오게 된다. 『손자(孫子)』를 경서로 삼은 것도 같은 이치이다. 백 가지 법을 만약 전하고자 한다면 그 법은 이미 그 까닭을 아는 것이다. 다시 옛날 장수(將帥)가 행한 바를 합하여 이를 증명하니 이를 인용한 것이다. 용병의 묘법을 일컬었던 것이다. 병가(兵家)에 있어서 이를 보면 나의 책략이 없는 것과 같다. 만약 『백전기법』을 백온이 지었다면 유씨 이후에도 달리 판각하는 것과 활용하고 익히는 것이 그의 명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작자의 성씨를 없다고 말하겠는가? 제일 근본적인 것은 그래도 이 책의 내용과 문자의 품격은 유백온의 저술과는 같은 유형이 아닌 것이다. 유백온은 탁월한 견식이 있어서 뜻을 세우고 독특한 경지에 도달했다. 또한 문자의 색채를 강구한다. 백온이 직접 지었다는 저작에서 세속적인 품목에 지나친 것을 본 적이 없다.³³⁾

유백온은 주원장에게 의탁한 후 반드시 지리, 천상(天象), 기상(氣象)방면에서 군사행동 진행을 위하여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 이 가운데서 그래도 대량의 고대자연과학 지식을 운용하였다. 유백온이 이 방면의 지식과 재능은 주원장 및 군대 위엄과 명망이 틀림없이 높았을 것이다. 어쩌면 바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주원장이 줄곧 유백온을 떠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32) 『백전기략(百戰奇略)』은 날짜나 진술, 그리고 장수가 행할 행동과 용병의 묘법을 적은 것이다. 저작의 시기는 최근에 유통되는 것으로 목판본 『무경총요(武經總要)』가 있다. 그의 저서는 대부분 사고전서 제요에 기록되어 있다.

33) 房立中, 앞의 책, 10쪽.

현재 대표적 명리서적³⁴⁾으로 알려진 『적천수』는 유백온의 저서로 명사예문지³⁵⁾에 『삼명기담적천수』로 되어 있으며, 또한 그의 이름은 강희시절 천경단의 목경 『명리수지 적천수』, 기문둔갑³⁶⁾, 풍수³⁷⁾, 육효서인 『황금책 천금부』 등 다양한 분야에 언급되고 있어 역리학분야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육효의 최고서라 일컬어지는 야학노인 『점복전서』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⁸⁾

34) 인사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사주학, 팔자학, 추명학, 등으로도 불리우며 최근에는 명리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명리학은 사람의 출생 년, 월, 일, 시를 기준으로 運命(운명)을 예지하는 학문으로서 출생한 년, 월, 일, 시의 천간(天干)·지지(地支)를 서로 대조하여 운명을 논하는 학문이다. 干支(간지)로 운명을 논하는 학문에는 오성술(五星術), 구성법(九星法), 자미두수(紫微斗數), 육임(六壬), 기문(奇門) 등 수많은 학문이 있지만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기준으로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라는 부호를 기초로 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사시(四時)의 변화와 육친(六親)을 서로 대조하여 운명의吉凶(길흉)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35) 『명사(明史)권 九十八』 八 志(志)) 七권, 지제(志第) 七十四 예문3, 중화서국, 2443쪽.

36) 술수의 일종으로서 삼식(三式: 太乙·奇門·六壬)의 첫 자이다. 역리(易理)를 따서 만들었는데 역경(易經) 상수학에 속한다. 그법은 대개 『역위건착도(易緯乾鑿度)』 태일행궁구법(太一行九宮法)에 근본으로 하고 오원육기(五元六紀) 360년을 일대주로 72년을 일소주기(一小周期)를 채용하고 있다. 金勝東, 앞의 사전, 1424쪽.

제갈량의 기문둔갑에 서문을 썼다.

기문둔갑이란 수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의 전통 술수(術數)인 태을(太乙)·육임(六壬)과 함께 삼식 또는 삼수로 기문둔갑만이 술수지왕(術數之王)이란 칭호를 듣는다. 기문둔갑은 고도(高度)의 수리학(數理學)이며, 동지(冬至)는 양(陽)이요, 하지(夏至)는 음(陰)으로 근본을 삼아 음양돈(陰陽遁) 18국과 실수(實數)인 9의 승수(乘數)로 홍기(洪奇)를 삼고 육의삼기(六儀三奇)와 구궁(九宮), 팔신(八神), 구성(九星), 팔문(八門)으로 연기(煙奇)를 삼아 음양오행(陰陽五行)과 팔괘(八卦), 상사역괘(象辭易卦)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내고 사시(四時)의 한습난조(寒濕暖燥)와 우주 내의 충만한 기후의 변화작용에 의한 자연의 이치를 풀이한 학문이다. 특히 기문은 삼식(三式)의 하나로 소강절(邵康節), 이순풍(李順風), 동방삭(東方朔), 황석공(黃石公), 장자방(張子房), 제갈공명(諸葛孔明), 유백온(劉伯溫), 이토정(李士亭), 서경덕(徐敬德) 같은 성현들이 모두 기문학에 정통하였다.

37) 諸葛亮(劉伯溫 著), 『堪輿秘笈寄書 正宗三元地理秘訣』 喜年來出版社, 1996.

38) 李我坪曰, “『黃金策·天金賦』乃誠意先生所著, 昔人曰, ‘有能易一字著, 予以千金. 因名之’ 時因盛行此書, 射利者, 遠而不工. 以致鈐板舛錯. 以訛傳訛, 遂非全璧, 不意野鶴老人, 前後增刪, 直探理窟, 另作解註, 以還本來面目, 眞希世之奇編也.” 권오달, 『야학노인점복전서(기초편)』, 도서출판 소강(小康), 1995, 185쪽.

이아평이 말했다. “『황금책 천금부』는 바로 성의(誠意)선생이 지은 것인데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능히 한 글자라도 바꿀 사람이 있다면 천금(千金)을 주겠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책이 성행할 때 요행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속기(速記)하기 보다는 정교하지 못하게 판본하여 착오를 초래하고 잘못이 그대로 전해져 결국 완벽하지 못했다.

뜻밖에 야학노인께서 전후(前後)에 더할 것은 더하고 깎을 것을 깎아서 정직하고 시원시원하게 도리(道理)를 탐구하고 별도로 주해(註解)를 달아 본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니 진실로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기이한 책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적천수의 경우 그 저작의 진위에 관한 논쟁과 관련하여 진소암 저/서락오 보주³⁹⁾를 보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적천수』는 劉基의 年譜에 유기가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原書에는 京圖가 撰하고 유기가 주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원수산이 경도라 주장하고 서락오는 유기라 주장하였다. 문헌상 고증이 없으며 구전에 의한 것이고, 서락오는 문헌상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적천수는 유기 저작설을 근거로 둔다.

성명학 저술에 표제(標題)을 보면, 칭유백온찬(稱劉伯溫撰)·유백온중찬(劉伯溫重撰)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러한 저술은 민간에 광범위한 시장이 형성 되었다. 유백온이 쓴 저술은 위탁저작이기에 일종의 그 시대 문화현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으나, 한 동안 매몰된 술서의 진위는 그 시대의 유백온의 걸작에서 실제로 그 일부가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유백온의 특수지위와 복잡한 사회관계, 명초에 판목 한 시를 소개한 창작시간과 배경 등은 모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옛날 제목으로 대조한 유백온의 작품 진위를 판단하는 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새로운 고찰과 연구를 해야 한다.

39) 陣素庵 輯(徐樂吾 補註), 『適天髓 補註』,武陵出版 有限公司, 2006년, 7~58쪽.

2. 時代的 背景

유백온의 일생의 업적은 주로 명나라(1368~1644)의 창건과 개국 시기에 나타난다. 1368년 금릉(金陵: 南京)에서 즉위하여 국호를 ‘명’, 연호를 ‘홍무(洪武)’라 하였다. 그가 명의 태조(太祖: 洪武帝)이며, 처음으로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를 채택하고 시정(施政)의 기본방침을 ‘한족의 부흥’으로 삼았다. 지정(至正) 28년(1368), 정월 4일, 주원장은 황위에 즉위하여 호를 ‘대명(大明)’이라 하고 ‘건원 홍무(建元洪武)’라 하였다. 그리고 이선장(李善長, 1314~1398)과 서달(徐達, 1332~1385)을 좌·우 승상으로 유백온을 어사승상(御使丞相)으로 하였다.

명(明)나라는 한족(漢族)이 몽골족이 세운 원(元)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통일 왕조이며 한족의 지배를 회복한 왕조이다. 뒤에 만주족(滿洲族)이 세운 청(淸)나라에 멸망되었다. 명대(明代)는 중국이 근대화하는 시기와 직접 접촉되는 시대로서 중요한 성장·변혁기였다.

정치적으로는 14세기 중엽, 몽골지상주의(至上主義)를 표방하고 약 100년에 걸쳐 압정(壓政)을 펴온 원조에 항거한 한족 중 가장 큰 집단을 이루었던 홍건적(紅巾賊)에 가담하여 두각을 나타낸 주원장(朱元璋, 1328~1398)⁴⁰⁾은 백련교도(白蓮教徒)⁴¹⁾의 뒷받침으로 세력을 펴 양쯔강(揚子江) 하류의 곡창지대

40) 아명은 중팔(重八)에서 홍종(興宗)으로 개명하였으며, 자는 국서(國瑞)이다. 31년간 재위하였으며, 71세를 일기로 병사하였다. 장지는 응천효릉(應天孝陵: 지금의 강소성 남경시 교의종산(鐘山, 남쪽)에 있다.

41) 송(宋)·원(元)·명(明)나라에 걸쳐 성행하였던 신흥종교로서 불교에서는 사교(邪教)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남송 초 고종 때에 모자원(茅子元, ?~1166)을 교조로 하는 백련종(白蓮宗)이 일어났는데, 그 말류(末流)에 이르러 주술적(呪術的) 경향이 짙어졌으므로 송·원 때에도 자주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자원(子元)이 『원융사토삼관선불도(圓融四土三觀選佛圖)』를 만들어 제창한 이 미륵불신앙은 당시 생활난에 허덕이던 서민층에 쉽게 수용되었는데, 그들은 종교적 비밀결사까지 만들어 탄압하는 정부에 반항하였다. 이들 백련교도의 반란은 원·명 때에도 자주 일어났으나 가장 대규모의 것은 청(淸)의 가경조(嘉慶朝) 때에 일어난 반란이다. 1796년에 후베이성(湖北省)에서 발생한 이 반란은 순식간에 확대되어 후베이·허난(河南)·산시(陝西)·쓰촨(四川)·간쑤(甘肅) 등 각 성으로 번져가 9년 간이나 계속되었다. 청군은 부패하여 거의 쓸모가 없었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는 지방 지주층이 조직하였던 향용

를 점령하여 군웅(群雄)을 정복하고, 같은 해 가을에는 원나라의 수도인 대도(大都: 北京)를 함락하여 원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71년 쓰촨(四川)을 평정하여 전국토를 정복함으로써 역사상 강남(江南)에서 일어나 전국토를 통일한 최초의 왕조가 되었다. 또한 외몽골로 쫓겨 북원(北元)을 세운 몽골민족의 재기(再起)에 대비하여, 다시 동베이(東北)의 요동(遼東)을 경략하여 몽골과 고려의 연결을 단절하고, 81년 윈난(雲南)을 평정하여 몽골과 티베트의 제후를 막았으며, 88년 남옥(藍玉)을 파견해 몽골군을 대파하여 북원을 쇠망시켰다.

이와 같은 건국사정으로 그의 행정은 몽골적 요소의 제거와 한족 사회에의 적응을 목표로 하고 권력이 일부 관료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 호유용(胡惟庸)·남옥 이하 노련한 공신(功臣)들을 대거 숙청(胡藍의 獄)하였다. 또한 중앙 행정관청인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의 6부를 각각 독립시켜 이를 황제직속으로 하였고, 군사는 오군도독부(五軍都督府), 감찰은 도찰원(都察院)을 거쳐 황제에 직결되도록 하는 등 3권을 분립시켰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명의 태조는 민생안정을 위해 인구가 과밀한 강남에서 황폐한 강북으로 농민을 이주시키고, 부유층을 수도로 불러들여 경제부흥에 주력하였다. 이로써 사상 최초로 남에서 북으로의 인구 이동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里)에서 덕망 있는 연로자를 뽑아 이를 이노인(里老人)이라 하여 이민(里民)의 교화 및 쟁송(爭訟)을 맡도록 하고, 육유(六諭)라는 교육강령을 공포하여 사학(社學) 등을 세워 교육시켰다.

태조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 토지의 실지측량을 시행하여 ‘어린도책(魚鱗圖冊)’이라는 토지대장을 만들고, 이장으로 하여금 부역황책(賦役黃冊)이라는 조세(租稅) 겸 호적대장을 만들면서 권농(勸農)에도 힘써 처음에 곡물의 자급생산을 주로 한 농업도 후에는 상업적 작물의 생산으로 발전시켰다. 국내의 상업적 발달과 함께 대외무역에서는 처음에 배외(排外)·국수정책(國粹政策)에 따라 거의 단절되었으나 점차 해외무역에 발달하였다.

(鄉勇)의 공이 컸는데, 이때 이미 청의 쇠퇴를 암시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명의 문화정책은 처음에는 복고국수주의(復古國粹主義)·몽골색 불식에 힘을 기울였으나 뒤에는 경제발달, 서민생활의 향상, 도시의 변영, 교육의 보급에 따라 대중적 색채가 짙어졌다.

사상면에서는 몽골인에 압박을 받은 유학(儒學)의 전통적 지위를 회복하고자 영락제 때에는 송나라 주자학(朱子學)의 부흥에 힘써 송학(宋學)을 집대성해서 『성리대전(性理大全)』, 『사서대전(四書大全)』, 『오경대전(五經大全)』의 주석서(注釋書) 등이 나왔으며, 학문 숭상의 기풍도 짙어 성조(成祖) 때는 방대한 백과사전인 『영락대전(永樂大典)』 등 많은 칙찬서(勅撰書)가 간행되었다. 모두 성리학에 기반을 둔 것이다. 왕수인(王守仁)이 송(宋)나라 육구연(陸九淵)의 학설을 계승하여 이상철학(理想哲學)을 주장하였으며, 그 학설은 양명학으로 크게 번성하여 명 말에 사상체계를 주도 하였다.

종교면을 살펴보면, 불교는 원대 라마교의 성행으로 침체기에 빠졌으나, 국가적 보호를 받아 『대장경(大藏經)』도 간행 되었다. 그 뒤에는 도교가 보호를 받아 불교는 압박을 받았으나, 교의상(敎義上) 각 종파를 통합하려는 혼용불교가 주창되었으며, 또한 유·불·도 3교의 조화설도 발달하였다. 도교도 크게 성행하여 그에 힘을 입어 『도장(道藏)』을 집성하였고, 가경제(嘉慶帝)의 열정적인 신앙에 힘입어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일반적으로 미신적 형태로 보급되었다. 특히 이채를 띤 것은 경세실용학(經世實用學)과 유럽학술의 유입이었다. 전자는 양명학이 좌·우 2파로 갈라진 뒤 우파가 제창한 실학주의(實學主義)에서 나온 것으로, 고염무(顧炎武)·황종희(黃宗羲) 등은 공소(空疎)한 양명학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정치와 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될 학문을 확립하였다. 이 학파는 후에 청대에서 성행한 고증학(考證學)의 선구가 되었다. 후자는 특히 예수회의 선교사가 포교수단으로 전한 유럽의 과학이다.

마테오리치(利瑪竇), 아담샬(湯若望) 등의 천문·역법(曆法)·수학·지리학·포술학(砲術學)은 환영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포술은 청군과의 싸움에서도 활용되었다. 문학에서는 복고조(復古調)의 시문, 서민적인 색채가 짙은 소설과 희곡이 특징을 보여 사회계층의 상·하 구별 없이 문화적 융합을 이루었는데,

특히 소설과 희곡은 대표적인 명대문학으로, 한(漢)의 문(文)·당(唐)의 시(詩)·송의 사(詞)·원(元)의 곡(曲)과 견줄 만하다. 이 중 소설은 문어체(文語體)보다는 백화체(白話體)의 장편(長篇)이 주류를 이루어 사대기서(四大奇書)라 일컫는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수호전(水滸傳)』, 『금병매(金瓶梅)』 등은 모두 명대에 완성된 것이고, 『금고기관(今古奇觀)』은 송·원·명 3대의 단편명작 40편을 집성한 것이다. 이 소설들은 모두 유·불·도 3교의 사상이 융합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⁴²⁾

이러한 명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발달에 있어서 유백운이 주원장을 도우므로써 명나라의 건국적 이념통치의 초석을 세우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도 명(明)나라와 교류가 있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⁴³⁾에 실려 있다. 명태조(明太祖)와 우리나라 중종(中宗), 인종(仁宗)의 팔자를 그 책에 써 놓았는데 전순인이 보고□□임금의 팔자를 적어놓는 것은 격이 아니다.□□라고 하여 즉시 잘라버렸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숙종⁴⁴⁾ 때 기록을 보면□□지난밤 연은문(延恩門)에 괘서(掛書)사건이 있었는데 조선국(朝鮮國)에 고유한다.□□고 일컬은 글이 있다. 그 글에 이르기를(중략) □□여선생의 소매 속에는 천지(天地)를 번도(顛倒)하는 조화(造化)의 관건(關鍵)을 유백온(劉伯溫)에게 사양하지 않으며 정조사(鄭祖師)의 흉중에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바닷물을 줄이게 하는 법계(法界)의 기함이 실상 요광효(姚廣孝)를 넘으니, 이는 모두 주(周) 나라의 십란(十亂)이며 한(漢) 나라의 삼결(三傑)이다.□□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유백온의 명성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42)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백과사전>

김학주 외 공저, 『중국고전문학의 전통』,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4, 252~267쪽.

43) 『조선왕조실록』, 명종 009 04 29 戊辰, 원전 19집 636면. 김의순을 2차에 형신하여 공초하다.

44) 『조선왕조실록』, 숙종 050 37 04 30 戊子, 원전 40집 394면. 연은문 괘서 사건이 발생하다.

Ⅲ. 『滴天髓』 分析

1. 『滴天髓』의 形成 背景

주역은 음양사상으로 이루어졌고 모든 운동은 음양에서 이루어지며 생명의 법칙이 음양이며 음양은 생명을 지배하는 리(理)이다. 더 나아가 조직, 운행, 생성, 변화 등 온갖 상태도 음양⁴⁵⁾이라 할 수 있다.

음양오행⁴⁶⁾은 고대 중국의 자연철학(自然哲學)이자 철학적 사유의 기점이라 할 수 있다. 현존하는 고대 문헌에서 살펴볼 때 음양 개념은 『주역(周易)』⁴⁷⁾과 『상서(尙書)』의 「감서(甘誓)」, 「홍범(洪範)」 편에서 처음 보이나 오행 개념이 처음 생겨난 시기는 훨씬 오래 전으로 보인다.

“황제(黃帝)⁴⁸⁾가 별의 움직임을 보고 고찰하여 오행⁴⁹⁾을 만들었다”는 『사

45) 음양(陰陽)이란 말이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문헌은, 황제(黃帝)와 기백(岐伯)의 대화를 기록한 『황제내경(黃帝內經)』이다. 『황제내경(黃帝內經)』 「사기조신대론(四氣調神大論)」에 보면 “음양과 사계절은 만물의 시종(始終)이며 생사의 근본이다. 이를 거역하면 재해(災害)가 생기고 이를 따르면 악질(惡疾)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도(道)를 얻었다고 한다. 성인은 이를 행하고 우매한 자는 이를 거역한다. 음양을 따르면 살고 이를 거역하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고, 또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에서는 황제(黃帝)는 “음양이란 천지의 도(道)이며, 만물의 기강(紀綱)이며, 변화의 부모이며, 생사의 본시(本始)이며, 신명(神明)의 창고이다.”라고 말한다. 황제는 천지 만물의 근본을 음양이라고 본 것이다.

46)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보면, 음(陰)이란 어둡고 닫는다는 말로 유암(幽暗)하다는 뜻이다. 산의 북쪽을 음(陰)이라고 한다. 그리고 똑같은 뜻으로 음(陰)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는 구름에 가린다는 뜻이며, 양(陽)은 높고 밝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음(霽)과 양(易)에 양은 산(山)을 의미 음(陰)과 양(陽)을 이 되어 양지쪽과 응달을 나타낸다.

47) 『周易』의 「繫辭傳」 전에는 上傳의 五章, 六章, 下傳의 六章, 「說卦傳」의 一章과 五章에 나타나 있다.

48) 신화전설의 오제(五齊)의 한사람. 성은 공손(公孫) 이름은 현원(軒轅), 본체(本體)는 황(黃)과 황(皇)이 음(音)이 통하고, 황제(黃帝)와 황제(皇帝)가 고문헌(古文獻)에 통하여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며, 서방민족이 숭배하고 있는 재천(在天)의 지상신(至上神) 황제(皇帝)가 화변한 것이라고 하는 양관(楊寬)의 설이 유력하다. 그 황제(皇帝)가 황제(黃帝)로 변한 것이 오행설(五行說)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제는 집, 의복, 의료 등 수많은 것을 발명한 문화영웅(文化英雄)이며, 묘민(苗民)의 북적(北狄) 등 변경(邊境) 민족의 조신(祖神)으로, 또 신선가

기(史記)』의 기록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오행관념의 시작은 별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천문관측(天文觀測) 연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오행(五行)이 최초로 반영했던 것은 다섯 가지 기본행성의 본질을 본떠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오행운행설(五行運行說)을 만들었다. 이로써 만사만물(萬事萬物)에 빗대어 오재(五材: 金·木·水·火·土), 오방(五方: 東·西·南·北·中央)을 비롯하여 점차 모든 것이 포괄될 만큼 방대한 관념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상주시대(商周時期)에 만들어진 『주역』은 이런 음양 관념을 철학적 수준으로 개괄하고 있다. 자연계(自然界)와 인간사회(人間社會)의 복잡한 현상에서 음(陰 - -)과 양(陽 -)이라는 두 가지 기본 범주(範疇)를 추출해 낸 것이다. 음양오행설은 각각의 학문적 영역을 가지고 있던 음양과 오행이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추연(鄒衍, B. C. 350~240)⁴⁹⁾을 만나면서부터 초기 음양설과 오행설이 결합되었다.

이를 더욱 부연·확충하여 천지(天地)와 인간(人間)을 아우르는 사상체계(思想體系)를 구성(構成)함으로써 만물(萬物)의 구성과 운동법칙(運動法則)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의 상생상극이론(相生相剋理論)은 세계의 발전을 일종의 왕복순환의 운동으로 보고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이라는 역사관을 형성했다. 우선 음양오행설에는 과학적인 사상과 방법이 들어 있으며, 이는 과학

(神仙家)시조로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도교(道敎)의 신(神)으로 숭배되고 있다. 金勝東, 앞의 책, 1998, 1571쪽.

49) 오행론의 기원은 『오행의 새로운 이해』에서 오행이라는 용어는 그 본의가 아직 해명되지 않았다고 한다. 『백호통의』에서는 오행을 복희가, 자손은 황제가 정립한 것이라고 하며, 『상서』 「홍범」에 기록된 것으로는 하나라의 우가 하늘에서 하사받은 것이라고 한다.

『우주변화의 원리』에서는 음양오행설에 관하여 복희씨로 보고 있다.

50) 전국시대 중국 제(齊)나라 시대의 음양오행가(陰陽五行家)임. 특히 天文, 地理, 歷史 방면의 지식에 능통하여 ‘담천연(談天衍)□□’이라고 칭송되었다. 자연은 오행에서의 운동에서 비롯된다고 설하고, 그 입장에서 오행상승(相勝).상극(相剋)에 따라 왕조교대론을 주장하고, 이상적인 왕조의 수립과 치란(治亂)을 논했다. 또 중국을 9분(分)한 적현신주(赤縣神州)라 하는 최소주단위(最小州單位)를 생각하고, 그 적현신주가 9개 모여서 바다에 둘러싸인 일주(一州)로 하고, 다시 그것이 9개 모인 것이 전 세계로 보는 대구주설(大九州說)을 주장했다. 그 사상은 한대(漢代)에 참위학(讖緯學)의 기초가 되었다. 金勝東, 위의 사전, 1385쪽.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요인이 되었다.

진한시대(秦漢時代)에 완성한 『황제내경(黃帝內經)』도 음양오행설을 운용하여 인체(人體)의 생리구조(生理構造)와 발병원리(發病原理)에 대해 설명한 저작이며, 그 영향력이 현대 중국 한의학에 결정적으로 미치고 있다.

동중서(董仲舒, B. C. 179~104)⁵¹⁾는 음양오행을 더욱 신비화하여 유가사상(儒家思想)과 결합시키고 봉건적 등급제도를 옹호하는 삼강오상(三綱五常)⁵²⁾학설을 주장했다. 이 이론은 오랫동안 중국봉건사회를 지배하는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천문(天文), 지리(地理), 인사(人事)의 변화와 길흉화복(吉凶禍福) 등 여러 사상들이 복합되어 민간에 전해졌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음양오행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양의 기원인 『주역』은 역경(易經) 또는 역(易)이라 부르며, 동양철학의 오묘한 진리를 풀이한 책⁵³⁾으로 최고의 경전이라 할 수 있다. 팔괘(八卦)를 근본으로 이루어진 64괘를 다시 상경과 하경으로 나누고, 여기에 공자께서 십익(十翼)⁵⁴⁾을 만들었다고 한다. 즉 「상전」 상하, 「계사전」 상하, 「문언전」 「설괘전」 「서괘전」 「잡괘전」의 10편을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든 것이다.

전해오는 학설 중에 복희씨(伏羲氏)가 처음 팔괘와 64괘를 그렸으며, 주(周)나라 문왕이 이것을 연역하여 괘사를 짓고, 주공(周公)이 효사를 짓고, 공자가

51) 중국 전한(前漢)의 경제·무제때의 춘추학자(春秋學者). 호는 계암자(桂巖子), 광천(鑛泉)사람. 어려서 춘추(春秋)를 공부하여 공양학(公羊學)에 정통 하였고 효경제(孝景帝)때 박사가 되었다. 음양오행과 인사를 밝힌 학문이다. 저서로 『문집(文集)』 1권, 『춘추변로(春秋繁露)』 17권이 있다. 같은 사전, 315쪽.

52) 유교위 용어로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합친 용어로 간단히 강상(綱常)이라고도 한다. 남송(南宋)의 주희(朱熹, 1130~1200)는 □□강상은 천만년을 가더라도 닳아 없어질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영구불변의 이치(天理)요 그 펴는 것을 삼강으로 하고 거둬들 오상으로 한다. □□라고 하였다. 같은 사전, 1998, 509쪽.

53) 尹太鉉, 「京房 易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3쪽.

筮는 周나라의 주된 占法이고 초기의 周易은 筮를 통해 吉凶을 예측하는 書冊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54) 십익은 禮, 仁, 義 등 인사의 도에 치중했던 유가학자들 가운데 일부가 서술을 근거로 자연·신·인간을 하나로 관통하는 새로운 역학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하여 유가역이라고 한다. 박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1990, 27쪽.

십익⁵⁵⁾을 만들었다고 전하며, 이처럼 주나라때 만들었다고 하여 주역이라 칭하고 있다.

북희씨가 황하(黃河)에서 나온 용마(龍馬)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팔괘를 그렸다 하는바 이것을 하도(河圖)라 한다. 하도는 1에서 10까지의 둥근 권점으로 그려졌고 그 권점은 백권과 흑권으로 나누어져 음양을 나타낸다. 이 하도는 우왕(禹王)때 나왔다는 낙서와 함께 천지 오행의 생성원리를 밝히는 것으로 동양철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역(易)의 명칭에 대해서는 『주역정의』에 정현(鄭玄)의 설을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易⁵⁶⁾은 하나의 이름으로 세 가지의 뜻을 가진다.” 이 세 가지의 뜻이란 易簡(이간)과 變易, 不易이 그것이다. 첫째, 역이란 알기 쉽고 쫓기 쉽고 간단명료하다는 뜻이다. 『繫辭傳』에 “乾은 쉬움으로서 萬物을 냄을 주관하고 坤은 간략함으로서 만물을 이룬다(乾以易知 坤以簡能)” 하였다. 易은 天地의 법칙을 나타낸 것이므로 이를 易이라 이름지은 것이다. 둘째, 變易이란 宇宙의 삼라만상은 한 순간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주의 일체현상을 가르켜 變易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셋째, 不易이란 무궁무진한 변화의 현상 속에 변하지 않는 一定의 법칙이 있다. 日月星辰⁵⁷⁾의 運行과 春夏秋冬 代謝 등은 항상 변화하지만, 運行과 代謝의 法則으로 말하면 一定不變하여 억만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이 不易이다.⁵⁸⁾

또한 카멜레온은 주위환경에 민감하여 자신의 보호색을 띠어 하루에도 열두

55) 공자가 10翼을 지은 후 占을 치는 책에서 비로소 우주의 근본을 연구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서가 된다. 광신환, 앞의 책 2쪽.

56) 『說文』에 “易은 蜥蜴, 蜥蜴, 守宮으로 形象이다. 秘書(漢書)에 해와 달이 易이다. 하였으니 음양을 형상한 것이다.”하였다. 도마뱀이라 하였으나 정확한 표현은 카멜레온이다.

57) 日月說은 유래는 □□易□□자가 日과 月이 會意文字라고 본 데에 있다. 日은 陽, 月은 陰을 상징하고, 이렇듯이 陰陽에 입각하여 日과 月을 상하로 결하였다는 설이다. 易을 變易, 交易, 博易의 뜻으로 볼 때 日月說은 周易에서 理想으로 여기는 것을 가장 바르게 표현하였다고 보여진다.

58) 成百曉(譯註), 『周易傳義 上』, 傳統文化研究會, 2006, 5쪽.

변칙 피부 색깔이 변한다는 데에서 착안하여, 일정한 법칙의 변화성으로 흘러 오는 방향을 알면 미래예측도 가능하며, 역의 원리는 변화한 세계를 파악하며 지탱하는 법칙에 있다. 즉 농경시대에는 자연의 변화를 읽음으로써 자연의 위험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주역』⁵⁹⁾은 천도(天道)를 미루어 인사(人事)에 미치되 매우 광범위하여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선악(善惡)에 연관시킴으로써 사람이 처한 위치에 따라 행하여야 할 참다운 도리(道理)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주역』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오늘의 난국을 타개하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우주(宇宙)의 진리(眞理)는 순환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후와 음양오행설의 근간이 되는 재이설(災異說)과 주역이 결합한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대(漢代)의 상수역(象數易)이다. 상수역은 상(象)과 수(數)를 중심으로 주역을 해석하는 역학(易學)이론이다.

한대(漢代) 초기 상수역⁶⁰⁾을 대표하는 역학자인 경방(京房, B. C. 77~37)⁶¹⁾은 오행을 괘체설(卦體說)로 간략하게 보고, 육친설(六親說)과 왕휴설(旺休說)과 비복설(飛伏說) 등으로 확대해서 보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그 방법은 최초로 『주역』에 오행설(五行說)을 도입하여 이것에서 파생되는 상합(相合),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이론으로 괘효(卦爻)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째, 대성괘(大成卦, 6획괘)를 궁(宮)이라고 하여 하나의 오행으로 보아 주(主)나 체(體)를 정했고, 둘째로 상괘(上卦)와 하괘(下卦)를 주체(主體)로 보아

59) 『周易』은 宇宙와 人間과의 관계를 엿보는 외에도 天文 · 地理와 기타 諸般의 思想에 대한 무한한 시사를 주는 哲學書이다.

60) 상수역학과로는 맹희, 초연수, 경방이 대표적 학자이며, 경방에 와서 상수역학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61) 중국 서한(西漢) 사람으로 금문(今文) 역학(易學)인 경씨 역학의 창시자. 하남성 사람으로서 자는 군명(君明), 본래 성은 이(李)였으나 음律의 이치로 따져볼 때 京房이란 이름으로 고쳐야 운세가 좋겠다고 생각해 경방(京房)으로 바꿨다. 焦延壽의 제자이며 한나라 역학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京氏易傳』 · 『易傳積算法雜占條例』 등을 썼다. 맹희(孟喜)의 문인인 초연수(焦延壽)에게서 역을 배워 경씨학(京氏學)의 개창자가 되었다. 저서로는 『경씨역전』 3권이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66쪽.

각각 하나의 오행으로 표출하여 이것으로도 길흉(吉凶)을 논했고, 셋째로 6개의 효에다 간지(干支)인 납갑(納甲)을 붙여 오행의 상생상극설(相生相剋說)로 괘를 해석하였다. 이 같이 『주역』의 괘상을 오행으로 분석한 경방의 역학을 오행역(五行易)이라 부른다.

후대학자들이 대부분 술수역(術數易)과 의리역(義理易)으로 역학을 분류하고 있는데, 경방역은 괘기(卦氣), 오행(五行), 납갑(納甲), 8宮, 괘변설(卦變說) 등의 이론을 적용하여 인사의 길흉을 아는 것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술수역(術數易)에 속한다. 경방 오행역의 세응설, 8궁설, 납갑납지설, 음양오행설, 비복신설, 육친설 등을 소강절은 그대로 이어받아 육효의 길흉을 따지는 지세론과 육수론을 완성하였다.⁶²⁾

소강절(邵康節, 1011~1077)⁶³⁾은 『철판신수(鐵板身數)』라는 책을 지었는데, 주역과 명리학과 원회운세이론과 경방의 납갑설·세응설·비복설·육친설·오행설·오체설 등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상수역은 소강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왕홍서(王洪緒)는 경방의 이론과 유백은이 지은 황금책(黃金策)을 근거로 『복서정종(卜筮正宗)』을 지었다.

한편 경방역⁶⁴⁾을 비판한 사람으로서 왕필(王弼, B. C. 226~249)⁶⁵⁾은 상수역

62) 윤대현, 앞의 논문, 1999, 14쪽.

63) 소옹(邵雍). 중국 북송(北宋) 인종·영종·신종 때의 학자 자는 요부(堯夫), 시는 강절(康節). 범양(范陽) 사람으로서 소옹의 집은 대대로 은덕(隱德)을 본보기로 삼아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의 저서로는 『관물편(官物篇)』, 『어초문답(漁樵問答)』,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 『선천도(先天圖)』,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등이 있으며, 주요이론이孟喜와 더불어 경방의 이론이라고 한다. 이 철판신수는 대만이나 홍콩의 오행술수학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64) 경방역은 현재 육효점이라 불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으로 『경씨역전』이 있는데 이 책은 후대의 학자들이 경방의 易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각종 문헌에서 찾아내 편찬한 것이다.

65)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산양사람으로서 현학가로서, 위진 玄學의 대표적 창시자. 그는 유(有)는 무(無)에서 비롯한다하며 성(聖)과 범(凡)이 다른 면으로神明(神明)이요, 같은 것은 오정(五情)면이라 한다. 역에 있어서 노장적 측면으로 역을 풀이하면 상(象)을 완전히 버리는 동시에 역을 순전히 도리(道里)를 설하는 책으로 보았다. 『주역주』·『노자주』·『주역약례』·『노자지략』 등이 있다.

과 술수역을 배척하고 오로지 현학적(玄學的)으로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 득의망상설(得意忘象說), 취의설(取義說), 효위설(爻位說)을 주장하면서 취의설을 따라 의리역을 창시하였다.

『주역』의 주석서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은 송대(宋代) 철학자인 정이(程頤, 1033~1107)⁶⁶⁾가 지은 『역전(易傳)』과 주자(朱子)의 『본의(本義)』 등이 있다. 송대 의리학자로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만들어낸 인물로 정이를 들 수 있는데 그의 노선은 기본적으로 왕필과 일치하지만, 다른 점은 정이는 리(理)를 근본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왕필은 무(無)를 근본으로 삼았다.

정이는 의리역의 대표주자로 꼽히는데 의리역만 논하고 상수역(術數易)을 배격하여 피흉추길보다 심성을 닦자는 수양론을 중시하였다. 후에 주자가 나타나 의리역과 상수역을 종합하였다. 의리역학자와 상수역학자들 간의 경방역을 보는 관점은 판이하게 다르다. 경방은 주역을 해석함에 있어 주역에 오해를 대입하여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해석하는데 이용했다. 한대 상수역을 발전시킨 공은 어느 상수역학자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경방역은 의리역인 측면으로는 역전에 있는 내용과 유사할 뿐 이미 춘추좌전에 있는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지 오행상수역처럼 새로 창안한 내용은 아니다. 그가 살았던 한나라 때에는 주역의 64괘를 통해 음양의 기운이 변화 운행되는 모습이나 그 가운데 드러나는 상(像)과 수(數)를 연구하여 하늘과 땅,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국가나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상

66) 중국 北宋 신종·철종·휘종 때 철학자. 자는 정숙, 호는 이천(伊川)으로서 洛陽 사람. 어려서부터 예가 아니면 행하지 않았다. 주돈이에게 受學한 바 있고 서울의 태학에 입학하여 胡安定の 지도를 받았는데 顔子所好何學이라는 논문을 써서 그를 놀하게 하고 學官에 임용되었다. 1057년에 진사에 급제한 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으나 哲宗이 侍講으로 임명하므로 열심히 道로서 天子를 보도하여 명성이 높아졌다. 75세로 大觀 원년에 죽었다. 그는 학문의 목적을 聖人이 되는 데 두었고 우주론은 理氣二元論으로 기에 의하여 만물이 形을 이루었고, 理 또한 거기에 부여되었다 하며 음양은 氣요 形而下이며, 道는 理요 음양하는 所以이며 形而上이라한다. 心理論에 있어 人性은 하늘에서 나왔으며 마음은 곧 性이요, 性은 곧 理라하여 性善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서로는 『易傳』 4권과 『文集』 · 『經說』 · 『遺書』 · 『外書』 · 『粹言』 등이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1998, 1135쪽.

수역학'이 정립되어 가장 큰 흐름을 이루었다.

명리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육친설에 대한 『상수역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경씨역전』에는 육친이라는 용어가 없으나 『경씨역전』 권하에는 기록되어 있다.

경방의 납육친: 오행의 효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생극관계로부터 인사와 관련된 새로운 명목이 달려 나왔다. 나중에 역학가들은 그것을 □□육친□□이라고 불렀다. 「경씨역전」에는 육친이라는 용어가 없지만 실용적용실례는 있다.

8괘에서 귀신이 계효(繫爻)가 되며 재물은 제효(制爻)가 되고 천지의 의효(義爻)가 되며 복덕은 보효(寶爻)가 되고 동기(同氣)는 전효(專爻)가 된다. 계효의□□귀□□는 점술가들이 말하는□□관귀□□이고 제효의□□재□□는□□아내와 재산□□이며, 의효의□□천지□□는□□부모□□이고 보효의□□복덕□□은□□자손□□이고 전효의□□동기□□는□□형제□□이다. 거기다 본위괘가 점치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까지 더하면 6위이므로□□육친□□이라 이름을 붙였다.

경방이 다시 오성·12수·24기·72후로 배합했으므로 이런 점학이 위로 천도에 통하고 아래로는 인사에 관통한다고 했다. 당시의 잡학을 집대성하여 커다란 체계로 만든 경방의 수완이 대단하다고 하겠다. 동한 이후 상수역학가들은 이 납갑과 납십이지, 납오행, 납육친으로 역을 주석했다.

육친설(六親說)은 사주팔자의 간지 가운데 일간을 기준으로 생해 주는 간지는 인성(偏印, 印綬), 일간이 생하는 간지는 식상(食神, 傷官), 극하는 것은 재성(偏財, 正財), 일간을 극하는 것은 관성(偏官, 正官), 일간과 같은 간지는 비겁(比劫, 劫財)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육친(六親) 또는 육신(六神)으로 부른다.

명리학이 당나라 이허중에 의해 탄생되었으나 년주 중심의 사주학이 서자평에 이르러 일주 중심으로 되었다. 명리학의 통변성에 중요한 사주의 육친설을 경방이 창안했으며, 육효 또한 경방이 창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육친설의 모체는 경방역이라 할 수 있다.

경방은 주역의 괘와 효가 상징하는 모습과 만물의 추상적 모습이 일치하므

로 폐효와 음양의 모든 책수(策數)로써 만물의 정황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폐의 여섯 효가 구성하고 있는 유기체적인 구조 및 상호관계로부터 길흉의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변화법칙을 정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⁶⁷⁾

심규철은 그의 논문에서 『원천강삼명기담』의 책에 이어 『적천수천미』를 명리학의 근원서로 연결하고 있고, 박헌구는 『주역』과 『적천수』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역학계몽』에서는 『주역』의 술수의 지학은 경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위에서 인용된 문구로 알 수 있듯이 『주역』은 모든 술수학문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주명리의 필독서만으로 『적천수』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역』에서 『적천수』로 바로 연결된 것처럼 알고 있으나, 『적천수』가 나오기까지는 『경방역』이 현재 육효학의 모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사실은 육친설은 『경방역』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미 윤태현⁶⁸⁾, 김진희⁶⁹⁾, 이시송⁷⁰⁾, 송부종⁷¹⁾의 논문에서 언급된 바가 있다.

주역연구자인 경방의 폐기설과 육친설, 납갑납지설 등은 간지(干支)에 음양 오행을 배경으로 하고 육신(六神)끼리의 오행 생극제화를 설명하며, 인생의 제반사항과 육친관계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사주명리학의 격국론(格局論)과 육친론(六親論)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67) “有天地然後有萬物，有萬物然後有男女，有男女則有父母，夫婦，兄弟及子孫的關係，從而推之官鬼，皆由此而生” 盧央，『京房評傳』，南京大學出版社，1998，139쪽.

68) 尹太鉉，앞의 논문，14쪽.

69) 金珍熙，「子平四柱學의 理論的 根據와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41쪽.

70) 李時松，「春香傳에 나타난 六爻占에 관한 研究」，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6，11쪽.

71) 宋富鐘，「『淵海子平』 翻譯研究」，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5，15쪽.

2. 構成과 體系

1) 『滴天髓』 이전의 命理學

(1) 古法命理의 特徵

옛날부터 사람의 운명(運命)은 태어난 별의 위치와 그 별의 운행에 의해 좌우된다고 믿어 왔다. 이에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와 천간과 지지를 배합하여 사람의 명(命)을 추론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명학(星命學)이라 하였다.

점성술은 인도와 서역의 점성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람의 출생시 황도 12궁에 있는 별의 위치에 따라 녹명(祿命)을 추산한 것이 성명추명술(星命推命術)이라 하나 후대에는 밀종성학(密宗星學)이라고 칭하였다. 그 중에서 오성술은 당대에 이르러 유행하였는데 한유(韓愈, 782~824)의 『삼성행(三星行)』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음양오행을 변통원리에 근거하여 사람의 명을 감명하는 방법과 이론을 명리학이라 한다.

명리학⁷²⁾을 주역에서 찾는 학자들은 감명방법에 따라 일간위주와 납음오행론, 신살론 등이 고법명리학과 근대자평명리학을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주역에 의한 음양(陰陽)의 학설이 먼저 존재했고, 춘추전국 시대에 비로소 태양계의 오행성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오행(五行) 학설이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연월일시의 간지(干支)를 가지고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서기 126년 이후의 일이다.

72) 명리학(命理學)은 사주(四柱)에 의거하여 일생의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학문으로 사주학(四柱學)이라고도 한다. 개인의 사주, 곧 생년월일시를 분석해 나무(木)·불(火)·물(水)·쇠(金)·흙(土) 등 5가지 기운의 배합률을 알아낸 다음, 이를 다시 특정시간의 공간을 구성하는 5가지 기운의 배합률과 비교하는 학문체계이다. 사람이 출생한 연월일시(年月日時)의 간지(干支) 여덟 글자에 나타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배합을 보고, 그 사람의 부귀와 빈천, 부모, 형제, 질병, 직업, 결혼, 성공, 길흉 등의 제반 사항을 판단한다.

명리학이 역학(易學)의 여러 분야 중의 하나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는 중국의 당(唐)나라 이후로 보인다. 당시까지 년주(年柱: 태어난 해)를 위주로 사람의 운명을 분석하던 것을 이허중(李虛中)이 일주(日柱: 태어난 날)를 위주로 하여 보는 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송(宋)나라에 이르러 서자평(徐子平)이 이허중의 설을 근간으로 하여 명리학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켰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점치는 방법은 점복과 관상으로 옛날 사람들이 길흉과 운명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던 법술이다.

점복⁷³⁾은 천지만물에 나타나는 징조에 근거하여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며, 관상은 사람의 공상과 기색에 근거하여 길흉을 예측했다.

점복과 깊은 관련이 되는 학문을 보면, 천문학은 별점과 관련이 있고, 의학·미술·문학에 등장하는 현상의 묘사는 관상술과 연관이 있다. 또 철학과 수학은 음양오행의 술수와 관련이 있으며, 심리학은 몽점(夢占)과 관련이 있다.

고대사의 전설시대 또는 토렘시대에 대응하여 중국의 교감무술(交感巫術)에는 일종의 전조(前兆) 미신의 단계가 있다. 사회의 분업이 세밀해 짐에 따라 무(巫) 사(史)를 전담하던 사람이 생긴 이후로 원시적인 점복술이 성숙한 점복술로 발전했고, 상부시대에 이르러 귀책(龜策: 점치는데 쓰는 거북의 딱지와 점대) 점술이 번영기를 맞이한다.

또 야금술(冶金術)이 탄생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과 개괄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오행설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후 사가(史家)들은 역사지술 풍조가 춘추말기에 이르면 오행이론에서 오행순환론으로 변천되었다. 천문학이 더욱 발달했던 전국시대와 진한시대에는 오행이론으로부터 다시 간지오행설, 납음오행설, 납음설(納音說), 왕상휴수사설(王相休囚死說) 등으로 갈라져 나왔다.

73) ‘복’(卜)은 불로 갑골(甲骨)을 구워서 징조를 얻었다는 뜻이며, ‘점’(占)은 징조의 상(象)을 관찰한다는 뜻이다. 『한서』에 기록된 점복서만 해도 190가(家) 2,528권에 이른다. 『사기』에서 점복의 관한 문서는 「천관서(天官書)」 이외에도 「일자열전(日者列傳)」과 「귀책열전(龜策列傳)」 등이 있다.

부호만 사용해서 판단하던 무괘점(無卦占)은 드디어 점복의 역사에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한대에 이르러 정치적·학문적으로 일원화 추세를 띠면서 결국 삼라만상을 망라한 신학이론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때 양웅(揚雄)의 『태현(太玄)』, 초연수(焦延壽)의 『역림(易林)』, 경방(京房), 장고(張誥), 상광(尙廣) 등의 주역점이 나오면서 참위학(讖緯學)이 일세를 풍미했다.

또한 태을(太乙), 둔갑(遁甲), 육임(六壬) 세 방식이 생겨났는데 이 셋이 모두 점복의 철학화, 철학의 샤머니즘화라는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⁷⁴⁾

고대중국에서 길흉을 예측하던 ‘술수’⁷⁵⁾로는 천문(天文)⁷⁶⁾·역보(曆譜)⁷⁷⁾·오행(五行)⁷⁸⁾·시구(蓍龜)·잡점(雜占)⁷⁹⁾·형법(刑法)⁸⁰⁾ 여섯 종류로 분류되어 있다. 점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서』 「예문지」를 근거로 알아 보겠다. 시구는 시초점(蓍草占)과 거북점으로 후대에 침점(筮占)·괘점(卦占)·기점(棋占)·패점(牌占)·배교(杯玦)·금전복(金錢卜) 등은 모두 여기에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①거북점(龜卜): 갑골에 구멍을 내서 불에 쪼인 뒤 갈라서 무늬를 보고 길흉을 예측하는 점복술이다. 현재 볼 수 있는 최고(最古)의 문자기록인 갑골문자는 기본적으로 상대(商代)에 거북점을 쳤던 기록이다. ‘조□□(兆)’는 이 갑골에

74) 수·당에 이르러 중국이 재통일되면서 『을사점(乙巳占)』·『개원점경(開元占經)』 등처럼 100권에 달하는 점서를 집대성한 점복전서(占卜全書)가 탄생했다. 송대에 이르러 유학이 더욱 종교화되어 도교·불교와 정립(鼎立)하게 되면서 각종 점복술 역시 종교화·유파화의 길을 걸었다. 이를 보면 중국 성장점복의 역사가 중국문화의 축소판임을 알 수 있다.

75) 『한서』에서는 數術 이라함.

76) 천문은 일월성신(日月星辰)에 근거하여 치는 점으로, 성명학(星命學)은 여기서 기원했다.

77) ‘역보’는 시력(時曆)을 고찰하여 길흉을 추전하는 점이다. 선택(選擇)·건제(建除)·충진(叢辰)등의 방법이 이 부류에 속한다.

78) ‘오행’은 금·목·수·화·토 오상(五常)의 생극(生剋)관계로 길흉을 추단하는 점이다. 한대 이후 여기서 태을(太乙)·둔갑(遁甲)·육임(六壬)의 세 방식이 변화해 나왔다.

79) 기상·초목·산천·몽환(夢幻) 등 사물의 이변을 근거로 길흉을 추정하는 것은 모두 잡점(雜占)에 속한다.

80) 형법은 감여(堪輿, 풍수가)와 상술(相術)을 포함하는데, 보통 ‘풍수를 본다’든지 ‘관상을 본다’(가금·가축의 관상도 포함)고 표현한다.

균열이 간 모습을 상형한 문자이다. 이 ‘조’를 보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조의 위치를 보고 물었던 일을 판정하는 것, 두 번째는 조의 형상을 보고 길흉을 판정하는 것, 세 번째는 조의 방향을 보고 사태의 전말을 추정하는 것이다. 고대인들은 거북과 시초가 가장 오래 사는 동식물이라고 생각했다. “시초는 신령하고 거북은 영험하다”고 믿었다. 이는 거북점과 시초점이 모두 전조(前兆) 미신으로부터 발전하여 이루어진 점복술임을 보여준다.

②시점(蓍占): 시초를 둘로 나누어 양손에 켜 뒤 각각 네 개씩 세고 남은 시초가 짝수인지 홀수 인지 따라 하나의 효가 (爻: 음효 또는 양효)를 얻고, 이런 식으로 효를 쌓아나가 하나의 괘(卦)를 완성한 뒤, 괘사와 효사를 참고하여 길흉을 추정하는 점술이다. 서주(西周)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주역』은 시초점에 관한 전문서이다.

『주역』은 팔괘 건(乾 ☰)·곤(坤 ☷)·감(坎 ☵)·이(離 ☲)·진(震 ☳)·손(巽 ☴)·간(艮 ☶)·태(兌 ☱)는 음효(□)와 양효(—)를 조합하여 괘의 형상을 이룬 것으로, 4쌍의 기본적인 대립물을 대표한다. 이는 원시적인 시초점이 계속 단순화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시초점은 음양·천인관계에 대한 고대인들의 수학적 해석에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점술이다.

③정전(筮筮): 초나라 사람들이 풀을 묶거나 대나무를 쪼개는 방법으로 치던 점이다. 굴원(屈原)은 「이소(離騷)」에서 □□경모(荇茅: 향초의 일종)□□를 찾아간다. □□라고 했는데, 후대사람들의 해석에 따르면 이 점법은 점을 치려는 사람이 팔뚝길이만한 띠풀을 취하여 중간 부분을 잡고 맨 앞의 것과 맨 뒤의 것을 쥐어나가 네 줌을 1조씩 삼고 그 나머지 수에 근거하여 □□요□□(料)·□□상(傷)·‘질’(疾)·‘후’(厚)등의 결과를 얻은 뒤 점을 친 사안과 일시(日時)를 참고하여 길흉화복을 구하는 것이다.

④몽점(夢占): 꿈에 나타남 조짐에 대해 해석을 하는 점술이다. 예컨대 『시경』에서는 곰 꿈을 꾸면 아들을 낳고 살모사 꿈을 꾸면 딸을 낳으며, 물고기 떼를 보면 풍년이 들 조짐이고 기치(旗幟)를 보면 가문이 흥성할 것이라고 했다. 옛날사람들은 몽점을 매우 중요시해서, 주대에 이미 전문적인 해몽가와 몽

점이론이 있었다. 예컨대 『주례』 「춘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꿈을 점쳐 세시(歲時)를 관장하며 천지의 회(會)를 살피고 음양의 기운을 분별한다. 일월성신으로 여섯 가지 꿈의 길흉을 점치니, 하나는 정몽(正夢: 생각이나 느낀바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꾸는 꿈)이고, 둘은 악몽(악몽: 놀라며 꾸는 꿈)이고, 셋은 사몽(思夢)이고 넷은 오몽(午夢: 낮에 본 것을 밤에 꾸는 꿈)이고, 다섯은 희몽(喜夢)이고, 여섯은 구몽(懼夢)이다.”

⑤별점: 별의 변화(일식, 혜성 등) · 운행(歲星, 목성) · 형혹(熒惑, 화성) 이 28수(宿)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 형주(荊州)는 익수(翼宿) · 진수(軫宿), 양주(揚州)는 우수(牛宿) · 여수(女宿)의 분야에 근거하여 길흉을 추정하는 점이다. 선진시대 고적에는 별점에 관한 기록이 매우 많다. 예로 『국어(國語)』 「진어4(晉語四)」에 이런 기록이 있다. “진(晉)나라의 사관(史官) 동인(董因)이 황하강에서 진(晉)나라 문공(文公) 중이(重耳)를 영접했다. 진 문공이 ‘내가 황하를 건널 수 있겠는가’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세성(歲星)이 대량(大梁: 성좌명)에 있으니 장차 군께서는 천도와 부합하여 성공할 것입니다. □□군이 즉위한 원년에 이미 대량을 떠나기 시작하여 다음 성좌인 실침(實沈)을 비출 것입니다. 실침의 자리는 진나라 사람이 거하는 곳이니 흥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군이 나라에 들어가시는 데 이런 때를 만났으니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세성이 대량에 있다.”는 말은 목성의 운행을 가리키며 “실침의 자리는 진나라사람이 거하는 곳”이라는 말은 실침성(實沈星)의 한 분야를 가리킨다.

⑥충진(叢辰): 음양오행론을 운용하여 시력(時曆)을 미리 살펴보고, 금기(禁忌) 여부를 확정하는 점술이다. 예를 들면 『묵자』 「貴義」에 이런 기록이 있다. “자묵자(子墨子)가 북쪽으로 제나라에 가서 일자(日者)을 만났다. 이자가 말했다. ‘제(帝)가 오늘 북방에서 흑룡을 죽였는데 당신의 옷이 검은색이니 북쪽으로 가면 안됩니다. 그러자 ‘묵자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치수(淄水)에 이르렀는데 끝내는 건너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역보류(曆譜類)에 속하는 충진법(叢辰法)이다.

⑦건제(建除): 세성이 12개 (星宿)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고 비교하여 간지수에 따라 날 또는 달의 길흉을 추정하는 점술이다. 『회남자』 「천문훈」(天文訓)에 이런 구절이 있다. “태음(太陰)이 인(寅)에 있고 주조(朱鳥)가 묘(卯)에 있고 구진(句陳)이 자(子)에 있고 현무(玄武)가 술(戌)에 있고 백호(白虎)가 유(酉)에 있고 창룡(蒼龍)이 진(辰)에 있다. □□인(寅)은 건(建)이 되고 묘(卯)는 제(除)가 되며 진(辰)이 만(滿)이 되며 사(巳)는 평(平)이 되니, 생을 주관한다. 오(午)는 정(定)이 되고 미(未)는 집(執)이 되니, 함(陷)을 주관한다. 신(申)은 파(破)가 되니 형(衡)을 주관한다. 유(酉)는 위(危)가 되니 표(杓)를 주관한다. 축(丑)은 폐(閉)가 되니 태음(太陰)을 주관한다.” 이는 인년(寅年)의 매월 12신(神)을 배당한 것이다. 이를 건제 12신이라고도 부른다.

⑧골상(骨相): 한나라의 왕충(王充)은 『논형』 「골상(骨相)」 편에서 “골상의 상(相)을 살피고 피부의 결을 관찰하여 사람의 성명(性命)을 살핀다” 고 했는데, 이런 술수를 ‘골상’ 또는 ‘상술’(相術)이라고 한다. □□황제(皇帝)는 눈썹뼈가 등글게 솟았고 전옥(顛頤)은 머리가 튀어나왔고 제곡(帝轡)은 이빨이 겹으로 났으며 요 임금은 눈썹에서 여덟 가지 광채가 난다. □□는 등의 전설은 모두 고대인들의 귀납해 낸 상술의 근거이다. 후대의 상법은 사람의 골격, 신체 부위가 비례, 오관의 형색, 손과 발의 지문 등을 모두 세밀하게 따졌다.

⑨육임(六壬): 음양오행을 운용해서 길흉을 점치는 방법으로, 오행류(五行類)에 속한다. 오행(水·火·木·金·土)은 수(水)를 머리로 하며, 천간(天干)의 갑(甲)~계(癸) 중에서는 임(壬)·계(癸)가 수에 속한다. 임은 양수(陽水)요, 계는 음수(陰水)인데, 음은 버리고 양을 취하므로 ‘육임’(六壬)이라고 한다.

나무판 두 개를 이용하여 점을 치는데, 위에 있는 것은 천반(天盤)으로 천상 12진(辰) 분야가 있고, 아래 있는 것은 지반(地盤)으로 12방위가 있다. 두 나무판을 겹친 뒤 천반을 돌려서 서로 만나는 간지와 지지와 시진(時辰) 결합시키고, 이를 ‘과’(課)로 나눈 다음 과의(課義)에 근거하여 길흉을 추정한다. 『오월춘추』(吳越春秋)에서는 가장 먼저 보이는데, 계명(鷄鳴)·일출(日出)·‘일질’(日昃) ‘우중’(禺中)의 네 과(課)가 있다. 예컨대 『오월춘추』에서는 오자서(五

子胥)가 점을 쳐서 얻은 계명과(鷄鳴課)에 대해 “금년 3월 갑술(甲戌)시에 ‘계명’이 더해졌다. 갑술은 세위(歲位)의 회장(會將)이다. 청룡이 유(酉)에 있고 덕은 토(土)에 있고 형(形)은 금(金)에 있으니 이는 일진이 그 덕을 해치는 것이다. 장차 아버지가 순종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임금이 절개를 거스르는 신하를 두게 될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오행류 가운데 태을(太乙)과 둔갑(遁甲) 역시 간지 오행의 수에 근거하여 길흉을 추정하는 방법은 이와 유사하다. 태을의 특징은 시력(時歷)에 근거하여 ‘국’(局)을 이룬다는 데 있으며, 둔갑의 특징은 천(天)·인(人)·지(地)라는 3종의 도식에 근거하여 순환시켜 추산한다는 점이며, 육임은 임(壬)을 순환하여 맨 처음에 두고 4과(課)나 64과 또는 384과로 나눈다는 점이 특징이다.

⑩산명(算命):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배당된 간지를 가지고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 의하여 길흉을 추정하는 점술로, ‘산팔자’(算八字 팔자를 점친다는 뜻)⁸¹⁾라고도 한다. 오성칠정(五星七政)을 추정의 근거로 삼는 성명학(星命學)에서 생겨났으며, 당대 이허중(李虛中)이 제도를 개량한 이후 5대 서자평(徐子平)에 이르러 확립되었다.⁸²⁾

십이지의 근원인 열두 가지 띠는 십이지(十二支)⁸³⁾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띠의 발생이 동물의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먹거리이자 생산자원으로 이용되었으며, 또 호랑이·표범·뱀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동물이다. 상대의 갑골문자에 십이지의 명칭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십간과 짝지워 육십갑자를 만들어서 날짜를 기록하는데 사용했다.

전국시대 이르러 음양오행설이 일어나자 방사(方士)들은 간지로 날짜를 기

81) 『홍루몽』 제 86회(回)에 이 팔자산명(八字算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82) 박소정 편역, 『교양중국사』, 상해고적출판사, 이산출판사, 2005, 695~699쪽.

83) 부록 <표 1> 참고.

십이지 동물은 사람을 생년에 연계시킨 것은 늦어도 남북조 시기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혼후(東昏侯)는 돼지띠이다.□□ “최혜경(崔慧景)은 말띠이다.” 『南齊書』 「五行志」 등의 기록처럼 사람을 서술할 때 그 사람의 띠를 언급했다.

록하는 것과 십이지의 동물을 서로 대응시키고, 아울러 십이지에 들어있는 오행속성⁸⁴⁾과도 연결시켰다. 오행으로 다양한 자연을 해석하고 화복(禍福)과 재이(災異)를 추산하였다.

최초의 사주의 연원을 살펴보면 명리학의 근원은 서자평학설을 기준으로 고법과 신법으로 구분하는데 고법명리학으로는 문헌기록상 사주라는 단어가 등장한 최초는 옥조정진경(玉照定眞經)으로 보고 있다.

『옥조정진경』 서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진나라 곽박(郭璞)이 찬하였고 장웅이 주를 단 것으로 되어 있고, 『죽당서목(竹當書目)』에 한권이 실려 있으나 장웅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강남 방언이 많이 들어 있고 곽박에서 이름을 빌린 것이다. 수지(隋志)·당지(唐志)·송지(宋志)에도 기록이 없다. 다만 명(明)나라 성명서(星命書)로서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 이제 『영락대전(永樂大典)』에 실린 바를 검증해보니 문구가 잘 정리되지 못하고 큰 줄거리로서 간결하고 명석하다. 오히려 낙록자(珞珞子)와 이허중(李虛中)에 끼친 영향이 있을 뿐이다. 길흉응험을 말하는 바 극히 진리에 가깝고 또한 많이 채록(採錄)할 수 있다. 년의월의 육해삼기(六害三奇) 삼교사상(三校四象) 부류가 오히려 많다.

옛날 본이 전하는데 요컨대 기록한 것을 받아들여 정리한 바 후대에 만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의 능력대로 소화한 것이다. 그런 연고로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고 성명가(星命家)의 일종으로 준비해 둔 것이다⁸⁵⁾

『옥조정진경』은 전문업종에 관한 서적의 일부이다. 책을 만들어진 년대는 송(宋)나라 초 혹은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글에 문체는 그 당시의 □□부□□(賦)문체를 사용해서 표현했으며, 심오한 전문서적으로 기록 되어 있다. 다른 학술(學術)적 가치와 술(術)의 지위에 있어서도 가히 명확적 발전으로 만들어졌다. 이허중이 삼주로 하고 년으로 본을 삼았으나, 서자평은 일위주로 본을

84) 인(寅)·묘(卯)는 목(木), 사(巳)·오(午)는 화(火), 신(申)·유(酉)는 금(金), 해(亥)·자(子)는 수(水), 진(辰)·미(未)·술(戌)·축(丑)은 토(土)에 속한다고 보았다.

85) 『四庫全書』 제1권, 術數類5장 命理相書之屬에 있다. 郭璞(장웅 원주), 蘇衛國, 『玉照定眞經』, 中國哲學文化協會出版, 2000.

삼았고 옥조정진경은 사주 전체를 논했으며, 년으로 본을 삼았다. 두 가지 이론의 개입이 뚜렷하여 당후, 송전의 과도기적 형태에 속한다.

『사고전서 자부 이허중명서』의 제요설이 있는데 한유의 묘지명을 썼다. 『창여문집』에서 볼 수 있는 글이다.

후세에 성명학(星命學)을 전하는데 이허중으로 시조를 삼는다. 이로 인하여 성명학의 현저한 특징은 삼주설(三柱說)이다. 사람의 생년월일 소위 일진지간(日辰支干)에 가치를 두어 상생(相生), 승(勝), 쇠(衰), 사(死), 왕(旺), 상(相)으로 사람들의 운명과 수(壽)·요(夭)·귀(貴)·천(賤)한 것을 미루어 짐작했다.

『사고전서 자부』 「낙록자소식삼명부주」에 실려 있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송(宋)나라 서자평(徐子平)이 찬하고 낙록자(珞瑤子)가 글을 써서 녹명(祿命)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었다. 녹과 명이 스스로 나온 바는 사람의 년, 월, 일, 시 팔자로 길흉화복을 점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평의 사주설과 이허중의 삼주설에 큰 차이가 있다. 자평이 가히 고찰 할 수 없는 것이 끝이 없고 홀로 명학(命學)에 독특하여 독창적으로 시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요 근래 팔자를 미루어 시조는 서자평이 되는 것이다.⁸⁶⁾

이허중에 근접하고 서자평과 년대가 가깝고 그 이론의 형태를 좇아서 서자평 사주는 원래 『옥조정진경』에 근원을 둔다. 그 글이 원(元)대의 문헌에 있고 이로 인하여 장웅의 원작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광박의 이름을 가택했을 되었을 것이다. 당시 성명학은 신비적인 일종의 표현이 되었다. 『옥조정진경』의 최대한 특징은 후대의 명서 전적을 서로 비유해 보면 성학(星學)에 인상을 주며 개념이 비슷하다고 짐작할 수 있으나 비교가 쉽지 않다. 천후(天

86) 四庫全書의 자부편에 「珞瑤子三命消息賦」 제요설에 나와 있는 글이다.

后), 태을(太乙), 전송(傳送), 공조(功曹)는 현재 육임서적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이고, 삼기육의(三奇六儀) 지류는 기문둔갑에 쓰이는 용어이다. 여러 책 중에 많은 것을 서로 비교하여 보니 후세에 말하는 격국과 같은 성질의 종류가 있으니 그 가치는 심히 연구할 만하다.⁸⁷⁾

분명히 곽박(郭璞, 276~324)⁸⁸⁾은 그가 저술한 『옥조정진응경』에 사주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저술이고, 일간 위주 사주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서자평이 주석을 달았으며, 『고금도서집성』에 수록되어있다.

사람의 출생 년·월·일·시를 사주(四柱)의 간지(干支)로 표기하고 사주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운명을 체계적으로 논한 이론은 곽박의 저술 『옥조신응경』 이외에 귀곡자가 저술하고 이허중이 주석을 달은 것으로 전해지는 『이허중 명서』와 낙죽자가 저술하고 왕정광·이동·석담영 세 사람이 주석을 했다고 전해지는 『낙죽자소식부주』가 존재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주석을 한 이허중·서자평·석담영보다 곽박의 생몰년도가 확실하므로 사주의 창시자라 함이 옳다. 또한 정연미⁸⁹⁾ 이용준⁹⁰⁾의 논문에서는 곽박이 사주학의 창시자임을 밝히고 있다.

박현구 논문에서는 그 근거로 『원천강오성삼명지남』이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설⁹¹⁾과 원천강 기원설을 부인하며 동진시대에 곽박이 원문을 저술하고 서자평이 주석을 단 『옥조신응진경』을 사주학의 시원으로 거슬러 올린

87) 蘇衛國, 앞의 책, 서문내용.

88) 중국 동진(東晉)의 문학가, 훈고학자, 복서(卜筮)·점후(占候)의 대가. 자는 경순(景純), 하동 문희(河東聞喜)사람. 박학(博學) 고재(高才)하고 사부(詞賦)에 이름이 높았다. 특히 고문기자(古文奇字)에 정통하여 『이아(爾雅)』·『방언(方言)』·『목천자전(穆天子傳)』·『산해경(山海經)』 등에 주를 달았다. 외에 『객오(客傲)』·『동림(洞林)』·『신림(新林)』·『복운(卜韻)』을 찬술(撰述)했다 한다. 金勝東, 앞의 사전, 1998, 110쪽.

89) 鄭然美, 「徐子平 『珞琰子三命消息賦注』의 命理學史的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03, 7쪽.

90) 李容俊,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 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5쪽.

91) 朴憲九, 「劉基(伯溫)의 『適天髓』 原主 翻譯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4쪽.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고려된 모든 것들로 보아 최초의 사주 언급은 확박으로 최초의 사주 기원으로 추론할 수가 있다. 그 영향이 이허중에 이어 서자평에 이르러 오늘의 사주발전의 기원설이 된다.

송(宋)대에 서승(徐升)은 서자평의 법을 연구하여 『연해자평』을 저술했다. 연해자평에서는 경방의 육친설은 간지(干支)에 음양오행을 배경하고 육친끼리의 오행생극제화를 설명하며 인생의 제반 사항과 육친관계를 더욱 정밀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명리학의 격국론과 육친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경방은 『주역』을 음양으로 구분하여, 이것으로 육효를 만들고 여기에 오행을 붙였으며, 건후(建候) 등의 절기를 대입하는 것은 변화를 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부중 논문에서는 육친론의 언급을 살펴보면 『연해자평』에서는 나를 생하는 것이 인성(印星: 母親)인데, 『경방역전』에서는 ‘의(義: 天地)’로 표현되어 있고, 『회남자』와 『화주립』, 『적천수』에서는 ‘부모(父母: 印星)’로 표현되어 있다.

내가 생하는 것을 연해자평에서는 여자의 여자(食傷)인데 『회남자(淮南子)』에서는 보(保), 『경방역전(京房易傳)』에서는 보(寶: 福德), 『화주립』에서는 자손(子孫)로, 『적천수』에서도 식상(食傷: 子孫)으로 나타내고 있다. 나를 극하는 것을 『연해자평』에서는 관살(官殺: 남자의 여자)로, 회남자에서는 인(因), 『경방역전』에서는 계(繫: 鬼), 『화주립』에서는 관귀(官鬼)로, 『적천수』에서는 관살(官殺)로 되어 있으며, 내가 극하는 것을 『연해자평』에서는 재성(財星)으로 처(妻), 재(財), 부친(父親)을 의미하고, 『회남자』에서는 제(制)로 『경방역전』에서는 재(財)로, 『화주립』에서는 저재(妻財)로, 『적천수』에서는 재성(財星)으로 나타낸다. 동기(同氣)를 『회남자』에서는 전(專)으로 『경방역전』에서는 전(專: 同氣)로, 『화주립』에서는 형제(兄弟)로, 『연해자평』에서는 비겁(比劫: 兄弟)로 각각 나타낸다. 따라서 『연해자평』에 나타난 육친의 범위는 특별히 다른 것과 비교하여 육친에 관한 획기적이라 할 수 없

다.⁹²⁾

『적천수』는 『연해자평』보다 뒤시대의 것이나 『적천수』가 『연해자평』과 약간 다른 육친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방역의 영향을 받아 연해자평과 다른 육친론을 주장한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적천수』에 나타나는 육친론의 의미는 『적천수』가 『주역』의 영향과 『경방역전』의 영향을 받아 통신론과 육친론으로 구별했으며, 육친론은 마치 『주역』하경의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하듯이 여기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법명리학은 살펴보면 고법을 일명 삼명학(三命學)⁹³⁾이라 부르며 주로 년을 기준으로 태·월·일·시 사주에 년주를 합하여 오주(五柱)로 록명(錄命)하였고, 납음오행(納音五行)의 의미로 일단 변형시켜 다시 생·극·제·화와 록마(祿馬), 귀인(貴人), 신살(神煞)의 이론으로 길흉을 판단한 것으로 고법에서 오행의 록은 건록(建祿)이며, 정관(正官)을 뜻하지 않고, 마는 역마(驛馬)이지 재성(財星)이 아니고, 삼기(三奇)는 을병정(乙丙丁)을 가리키지 재관인(財官印)을 가리키지 않으니, 이것이 서자평의 신법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십이신살(十二神煞)을 중요하게 사용하였다. 그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천강 기원설의 경우 사주의 의미는 정확하지 않으나 생년월일에 각각 일일이 대조하여 그 변통을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이허중(李虛中) 기원설에 있어 사주의 의미는 년과 일을 함께 고려하여 천간과 지지는 물론 납음(納音)을 함께 참고하고 삼원(三元) 및 태(胎) 월 일 시의 사주에 록(祿), 마(馬)를 합하여 상호간에 형(形)·충(忠)·회(會)·합(合)과 역(逆)·쇠(衰)·순(順)(12운성)으로 청탁을 중요시한 데 있다. 삼원의 작용은 신살(神殺)보다 큼을 강조하였다.

낙록자는 삼명(三命)으로 부를 논하며, 생(生)·극(剋)으로 길흉(吉凶)을 관찰 하고 지원(地元)의 납음오행을 중요시하고, 신살로 가운의 길흉, 화복과 삼

92) 宋富鐘, 앞의 논문, 2005, 19쪽.

93) 趙子澤, 『珞璣子三命消息賦注』, 聚賢館文化有限公司, 19쪽. 三才之命 즉 三命은 天元, 地元, 人元을 뜻한다. 三命이란 출생년주의 천간을 祿, 지지를 命, 년주의 납음오행을 身이라고 한다.

원(三元)을 신살보다 무게를 더 두고, 사주를 태·원·일·시로 태에 더 중점을 두었다.

사자평은 지금의 사주보는 통례로 일간을 위주로 태원을 고려하지 않으며, 사주의 왕·상·휴·수와 절기(節氣)의 깊이에 따라서 사주의 생·극·제·화로 격국과 용신·기신을 정함으로 사주를 판단하였다. 고법과 다른 점은 년을 위주로 하지 않고 일간을 위주로 천간과 지지의 지장간을 골고루 사용한 점이 크게 다른 점이며 사자평 이후를 신법명리학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년과 일의 교체하는 시대를 명(明)으로 보며, 그 중에 하나가 신살의 사용인데 대체로 명(明)대에 강조된 신살은 년 위주이고, 청(淸)대에 강조된 신살은 일간 위주라고 하였다.

인간의 추명술이 역사를 거둬들여 오면서 이전의 사고형태와 관습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고 아무리 일간위주의 추명술이라 해도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니다. 연해자평의 내용 중에서도 납음오행과 신살의 존재, 일부 격국 등 고법명리학에서 사용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육친의 의미를 보면 연해자평 이전에도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명리학 이외에도 육친의 사용범위는 다른 술수류에도 넓고 다양하게 중요한 요소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2) 『淵海子平』의 特徵

『연해자평』은 송(宋)대 서승(徐升)이 서자평(徐子平)법을 연구하여 연해자평을 저술하였다.⁹⁴⁾ 당(唐) 송대는 사상적 황금기로서 상류의 지식층사이에서

94) 중국 송(宋)나라때의 성명학자(星命學者)로서 이름이 거이(居易)이고, 오계(五季)사람. 마의도인(麻衣道人) 진도남(陳圖南)과 함께 화산(華山)에 은거하였다. 후세 술사(術士)로서 팔자(八字)를 추산하는 자들의 대부분은 그를 조종(祖宗)으로 삼았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556쪽.

『연해자평』의 원저자와 정확한 년대는 알 수가 없다. 백운관이 지은 명리정설에는 중국의 태화서봉당(太華西峰堂)에 거주하던 서공승이 편술하였으며 그는 서자평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용준 논문에서는 서자평은 오대(922년)에서 송초 사람으로 자평창시자로 되어 있

역서(易書)와 술서(術書)가 가장 번창한 시기이다. 공자는□□천명(天命)을 모르는 자는 군자(君子)가 아니다.□□라는 역설이 유효한 시대적 상황이라고 본다.

연해자평이 고법명리와 다른 점은 년 위주의 사주 감명감법에서 일간위주로 명을 추론하게 된 전환점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요소는 일간위주의 간법에다 지지에 감추어진 장간, 즉 인원장간론의 운영에서 독특함이 있다. 또한 자평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발상은 용신에 관한 것인데 처음에는 강조되지 않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근·현대에 와서는 초창기 용신의 의미와 약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해자평 평주』 서문95)에 나와 있는 글을 살펴보겠다.

자평(子平)의 연원 이치는 당(唐)나라 대부 이허중(李虛中)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의 생·년·월·일 시의 생극(生剋)과 왕상(旺相)·휴수(休囚)·제화(制化)로서 인생(人生)의 복(福)과 예(禍)를 해결하였다. 그 영험이 신과 같았으며 공이 죽자 창 한공(韓公)이 묘지명을 지었는데 그곳에 기록했다. 그 후에 대부인 여재(呂才)가 또 간추리고 그것을 정리하였고 아울러 지은 작자는 없다. 송(宋)나라 서공승(徐公升)이 이르러 다시 생일을 위주로 육신으로 논하였다. 그 뜻은 정밀하고 비밀스러웠다. 여러 학자들이 연해(淵海)의 글을 모아 전하고 펼쳐서 지금에 이르렀다. 훗날에 학자들이 글을 모아 연원(淵源)을 만들었으며, 이치와 뜻이 편과 장에 그 내용이 같으며 수백년이 흘렀다. 출판된 책에 잘못된 글자를 베껴 쓰는 과정의 잘못이 있는데 학자들도 그 본뜻은 아는 이가 드물었다. 당금지(唐錦地)에 예로서 설하니 이러한 이치에 정통한 사람이라서 두 책을 합하고 구결을 보태니 거짓을 바로 잡았다. 아! 슬프다! 향아리를 매달아 놓아도 지팡이로 변하지 않을 것인데 누가 다시 바꾸리오! 세상에 출판하여 내어 놓음에 후학자들로 하여금 그 곳을 익히게 하니 옛 사람이 남긴 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잃어버린 내용은 군자가 찾아 글로 만들어서 나에게 보이니 나는 이 글로서 서문을 삼노라. 종시 칠년 시월 맹동길일에 중판

고, 서승은 송대(982년~1200년) 사람으로 서자평법을 연구하여 연해자평을 저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연해자평 서문에서는 종시칠년은 1634년이 된다. 서승은 서대승, 서공승, 서삼승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였으며, 연해자평은 『사고전서』에도 수록 되어 있지 않다.

95) 徐升,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3쪽.

하며.

사회적으로는 오랜 기간 전쟁의 연속으로 인하여 개인은 국가에 귀속되고, 또한 소속된 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시대 개인 스스로의 운명(運命)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을 시대였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 개인 인간 중심의 사고가 점점 싹트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아가 성숙해지는 전환점이 서게 되었다.

개인의 자아가 싹트고 당(唐)·송(宋)대 사상적 황금기를 맞아 다양한 사고로 표출될 때 명리학의 새로운 이론 바로 자평학인데, 하늘(天)에 있던 화두가 인간중심으로 옮겨지면서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때이다.⁹⁶⁾

년 위주 사상이 일 위주로, 개인 중심의 사상으로 바뀌면서 태양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차 인간 내면의 관심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명리학과 맞물림으로써, 연해자평의 새로운 관점이 되었다.

신살의 이론은 천문학인 칠정사여학에 근거한 것인데, 이러한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일간 중심으로 정립되어 갔다. 다른 술에도 일간 중심의 추명술이 많지만 거기에는 납음과 신살 등을 계속 사용하는 점이 또한 다르다. 연해자평의 중심사상은 중화의 도로서 인간은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는 것이며, 또한 명(命)을 배우는 자의 수양(修養)과 배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연해자평(淵海子平)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다.

하늘과 땅을 구별할 수 없던 천지미판(天地未判)의 시기를 일컬어 배운(胚腫)이라 한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으며, 태양계의 하늘에 지구(地球)라는 행성(行星)이 존재하게 된 최초의 현상을 그렇게 말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위로는 일월성신이 생겨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음양과 한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고 우로(雨露)와 상설(霜雪)과 뇌정(雷霆)의 구별이 없이 모든 것이 아득하여 명명(冥冥)하기만 하였다고 하였다.⁹⁷⁾

96) 宋富鐘, 앞의 논문, 24쪽.

97) 徐升,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19쪽.

현재의 학자들이 『주역』을 점서로만 보고 있지 않듯이 □□명리서 □□또한 술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고전명리서는 유가의 철학서에 비유할 수 있고, 『연해자평』은 유가(儒家)의 제반 의론(義論)을 모아서 지은 책임을 밝히고 있다. 고법명리학으로부터 신법, 즉 자평명리학에 넘어 오는 과정의 대표적인 저술로서 과도기의 여운은 남아 있다.

『연해자평』의 구성과 특징⁹⁸⁾을 살펴보기로 하자.

번역된 『연해자평』은 모두 5권 1책으로 되어있고, 각 권마다 내용을 일일이 나열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권에는 명리학(命理學)의 기초편(基礎篇)으로, 73개의 항목이며 명리학의 기초인 개론적 내용과 신살을 설명하고 있다. 제2권에는 격국편(格局篇)으로 총 67개 항목이 십신과 격국에 대하여 설명되어있다. 제3권에서는 명리명론편(命理名論篇)으로, 총 40개 항목이 육친총론과 여명과 소아장 등 오행의 변통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4권에서는 비법현담편(秘法玄談篇)으로 총 27개 항목으로 명의 이치를 노래와 시로 설명하고 있다. 제5권은 끝으로 시결편(詩訣篇)편으로 66개 항목이 육신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대부분이 시결로 이루어진것은 주역의 체계를 적용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낙록자 소식부와 이 책이 합쳐서 만들어 지는 과정을 설명한 회요명서설(會要命書說) 항목만 뺀다면 공교롭게도 주역의 64괘와 맞는 체계로 설명이 된다. 『연해자평』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흔적은 영조때⁹⁹⁾ 흠천강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연해자평』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적으로 내용을 승화시킨 것이 『적천수』이다. 『적천수』도 『주역』의 체계와 비슷하게 엮어져 있고, 이는 명리

98) 徐升, 위의 책, 5~19쪽.

99) 『영조실록』에 1732년, 영조8년 2월 10일 戊戌일. 관상감 관원인 李世澄과 역관 鄭泰賢이 靑나라에서 『萬年曆』과 『鰲抖通書』 · 『六壬指南』 · 『易林補遺』 · 『淵海子平』 · 『六壬金口訣』 · 『火星細草』 · 『格海子平』 · 『地理四彈子』 · 『七曜推步稿』 · 『忌辰錄』 등 서책을 구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학에 으뜸가는 사상으로 표현될 가능성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滴天髓』도 통신론 35장과 육친론 29장을 합치면 64장으로, 통신론은 주역 상경에 해당하며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함이고, 육친론은 주역 하경의 상에 해당하는 형이하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두 편을 합하면 주역 64괘와 같은 항목이 된다.

2) 『滴天髓』의 基本構造와 特徵

(1) 『滴天髓』의 基本構造

적천수의 최초의 언급은 명사 예문지(藝文志)의 기록에 보이는 바 『삼명기담적천수(三命奇談適天髓)』로 되어 있으며, 그 원문이 실전되어 오늘날 전해지는 『적천수』 인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전해지는 『적천수 집요』에는 유백온저(著)로 되어 있으나, 『적천수』의 원문에 ‘원주(原註)’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유백온이 자신이 책을 쓰고 다시 주를 단다는 것에 의문이 든다.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적으면서 주를 넣었을 수도 있으나, 적천수가 유백온의 글이 아닐 수도 있다.

진소암(陳素庵) 100이 『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에서 언급한 말이다.

“『적천수』는 어느 사주팔자를 아는 사람이 지었는데, 유백온의 이름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책의 간지에 대한 뜻을 보면 음양의 변화에 통하고 격국(格局)에 구애받지 않으며 신살(神殺)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극제화(生剋制化)의 이치로써만 추구하여 그 깊이가 더욱 정밀하다. 그래서 매우 미세하게 깊이 관찰하였는데, 실로 명리학의 핵심을 전한다고 할 만하다. 역학 책 중에서도 단연 뛰어나다고 해야 하겠다. 그야말로 옛 부터 전해지고 있는 세속적인 잡다한 자평학의 아류들을 일시에

100) 淸시대 1658년 2월 15일 출생 『적천수 집요』 편찬.

쓸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혹은 너무 깊고 심오해서 황당해 보이기 까지 한다. 그래서 팔자 간지를 모르고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 책을 얻어서 오랫동안 상세히 공부한다면 명리의 이치를 확연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이치를 알고 해석을 한다면 어찌 하나를 갖고 설명을 해도 완전하지 않겠는가. 경험을 해 보고 쓴 글이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¹⁰¹⁾

이러한 글의 내용을 보면 후세의 누군가 책을 지어서는 유백온의 이름을 빌려서 출판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참으로 심오하여 그 시대에 이렇게 격국론과 신살도 불용하고, 오로지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로만 사주를 감정하는 그 이론이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원 저자가 누구인지는 그 시대에 상황에 맞추어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서락오(徐樂吾)¹⁰²⁾가 보주(補註)한 『적천수보주』 「서문」¹⁰³⁾에는 강희 황제 시절에 천경당(千頃堂)에서 발행한 것으로 전해지는 『명리수지적천수(命理須知滴天髓)』라고 하는 책에서는 원저자가 경도(京圖)이고 유기(劉基) 주(註)로 되어 있다.

명태조는 운명에 관한 글을 꺼려하였다. 유기는 『적천수』의 저자로 경도(京圖)라는 가명을 사용함으로써 유기(劉基) 자신은 주석을 기술한 것일 뿐 본문을 지은 것이 아님을 내보인다. 이는 태조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전해오는 상황으로 고려해 본 바 『적천수』는 유기 저작설에 근거를 둔다.

진소암의 『적천수집요』는 총 42장으로 되어 있다.

天幹論 地支論 干支論 形象論 方局論 格局論 從化論 歲運論 體用論 精神論

101) 劉伯溫(徐樂吾補註), 『滴天髓輯要』 『滴天髓補註』, 臺灣 瑞成書局印行, 1979, 1쪽.

102) 淸시대 호는 동해(東海) 1886년 4월 6일 출생, 명리학자, 저서로는 『자평역언』 · 『명리수원』 · 『명리입문』 · 『자평진언 평주』 등이 있음.

103) 劉伯溫(徐樂吾補註), 앞의 책, 1쪽.

衰旺論 中和論 剛柔論 順逆論 寒暖論 月令論 生時論 源流論 通隔論 清濁論 眞假論 隱顯論 衆寡論 奮鬱論 恩怨論 順反論 戰合論 震兌論 坎離論 君臣論 母子論 才德論 性情論 疾病論 閑神論 絆神論 六親論 出身論 地位論 富貴貧賤吉凶壽夭論 貞元論

서락오가 보주한 『적천수 보주』는 총 4권 26장으로 되어 있다.

제1권 通神頌으로 第1編上 論天干, 第1編 中 論天地, 第1編下 總論干支로 되어 있으며, 제2권 第2編上으로 形象 格局으로 1-形象 2-格局 3-八格에는 官煞, 傷官 4-從化로 從象, 化象, 眞從, 假從, 眞化 假化를 설명하고 있으며, 5-順逆에 順局, 反局으로 제3권 第2編 中 體用 精神 편으로 1-源流 2-通關 3-清濁 4-眞假 5-恩怨 6-閑神 7-羈絆 第2編下로 四柱總論 제4권 第3編 徵驗편에 1-六親 2-富貴貧賤吉凶壽夭 3-性情 4-疾病 5-出身 6-地位 第4편 婦孺편에 1-女命章 2-小兒章 등으로 되어 있다.

임철초¹⁰⁴⁾가 증주한 『적천수 천미』는 통신론 35장과 육친론 29장으로 총 64장으로 되어 있다.

『滴天髓』는 세부적으로 나누면 4券 64章으로 이루어진 命理書로 1卷과 2券에서는 「通神篇」을 두어 명리학에 入門하기 위해서는 東洋의 陰陽五行과 宇宙論을 形而上學的으로 설명하였다. 3券과 4券에서는 「六親篇」을 두어 그 사람의 운명, 즉 家族關係·富貴·貧賤·壽夭 등을 다루고, 그 사람의 性情과 出身 地位까지도 다루었다.

『적천수』는 크게 통신론과 육친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通神論

통신론은 명리학의 가장 기본이되며 중요한 것은 체(體)와 용(用)과 중화(中

104) 청대(1762~1838)사람으로 유백은 적천수를 증주한 『滴天髓闡微』를 남겼음. 沈鍾哲 譯解, 『四柱祕傳 滴天髓闡微』, 大地文化史, 1994년, 3쪽 참조.

和)를 말한다. 대학(大學)의 덕의(德義)를 담고 있다.

천간론의 제1장 천도(天道), 제2장 지도(地道), 제3장 인도(人道), 제4장 지명(知命), 제5장은 이기(理氣)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들은 태극도설에서 말한 천도·지도·인도를 말한다. 즉 음양의 강유(剛柔)·인의(仁義)·삼원(三元)의 소견에 따라 여러 가지의 다른 말로 표현 하고 있다.

대요(大撓)씨는 오행의 정(情)을 취하여 천시를 제정하고 천(天)의 기세변화를 탐구하였다. 인간은 천명(天命)·천수(天壽) 등의 자구(字句)를 쓰는 것과 같이 모두 하늘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천간은 오행의 기(氣)이며, 기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가 없으며, 지지(地支)는 형(形)과 질(質)로서 땅에 존재하는 물질치고 기를 가지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사람은 오행을 구비하고 무형의 기(氣)로써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靈長)인 것이다. 일상생활에 모든 것이 기 아닌 것이 없다. 이것으로 보아 기세(氣勢)를 감수하고 인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⁵⁾

제6장 배합(配合), 제7장 천간(天干), 제8장 지지(地支), 제9장 간지총론, 제10장 형상(形象)장이다. 서자평(徐子平) 이전에는 음양에 의존하지 않고 갑(甲)·을(乙)의 목(木)과 해(亥)를 장생(長生)으로 보고 십이운사(十二運死)로 해석하여 왔다. 이것을 동사동생(同死同生)이라 부른다.¹⁰⁶⁾

이허중(李虛中)은 음간과 양간으로 구별하였고 음은 물러서는 이법에 따라 양으로 대표로 하여 제반사항을 해석하고 또 입증한 경우가 많다.

즉 십간(十干)은 지(地)를 만나지 않으면 강약을 측정하기 어렵고, 지를 만나야 비로소 강력하게 되고 그 약세(弱勢)를 알게 된다.

지지론에 지지는 오행의 천의 기상(氣象)을 받아 형체와 물질을 이룬다. 천지음양이 서로 사귀어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이룬다. 인간은 천지간에 생존하고 덕(德)을 받아서 태어난 것이므로 인명은 천(天)에 준 것이며, 지(地)의 덕에 인체를 구성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운명은 천지(天地) 순환(循

105) 阿附泰山, 『滴天髓秘解上』, 三元文化社, 1998, 31쪽.

106) 阿附泰山, 위의 책, 129쪽.

環)의 이법(理法)과 합치된다. 그러므로 천간(天干)을 천원(天元)으로 하고 지지를 지원(地元)으로 사람을 인원(人元)으로 칭하여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라고 한다. 즉 천간은 기(氣)이고 지지는 물질이다. 주역에서 천은 아버지를 상징하고 지는 어머니를 상징한다. 아버지의 기(氣)를 받아 어머니가 형체(形體)를 이루어 인간으로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난다.

기후의 변화에 18일마다 토용(土用)을 두고 목·화·토·금·수의 오기(五氣)를 이루는 것이며, 어느 것이나 72일간을 주재(主宰)하고 있다. 즉 천지 만물은 음양오행의 이(理)를 벗어날 수 없다.

제11장과 제12장은 방국(方局)을 논하고 있으며, 여기서 방이란 동서남북(東西南北)으로서 사방(四方)이라 한다. 인묘진(寅卯辰)을 동방, 사오미(巳午未)는 남방, 신유술(申酉戌)은 서방, 해자축(亥子丑)은 북방을 뜻한다. 또 국(局)이란 선천 삼합의 수이다. 해묘미(亥卯未) 목(木)국 인오술(寅午戌) 화(火)국, 사유축(巳酉丑) 금(金)국, 그리고 신자진(申子辰)을 수(水)국으로 지지삼위가 서로 합(合)하여 국(局)을 이룬다. 인간의 운명이 오행의 배합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제13장 팔격(八格), 제14장 체용(體用), 제15장 정신(情神), 제16장 월령(月令), 제17장 생시(生時), 그리고 제18장은 쇠왕(衰旺)에 관한 장으로 재(財)·관(官)·인수(印綏)를 편(偏) 정(正)으로 나누고 식(食)·상(傷)을 겸하여 팔격을 말한다. 비견·겁재는 월지격을 정하지 않는다. 팔격은 오행의 기세에 따르는 것으로 월지 장간¹⁰⁷⁾의 통변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행의 기세에 따라 전왕(專旺), 허신(虛神), 종화(從化) 등의 변격을 취한다. 일간의 향배(向背)에 의한 체용(體用)의 변화로서 생일을 체로하고, 체(體)에 따라 대조물을 용(用)으로 구해야 한다.

인유정신(人有精神)에서 말하는 정신(情神)이란 통상 인간의 정신과 육체(六

107) 지장간은 생월의 절입일을 계산하여 여기, 중기, 정기로써 해당하는 월기의 투간으로 편재·정재·편관·정관·편인·인수·식신·상관의 살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를 보아서 그것을 격으로 정한다.

體)를 말하며, 정신이란 한 가지를 편중하여 구할 수 없으며 이오지정(二五之精)¹⁰⁸의정과 이것을 세분하여 정기(精氣)라고 말하고, 이오지기(二五之氣)은 기(氣)에 가깝다. 신(神)이란 음양오행이 신묘함을 말한다.

제19장 중화(中和), 제20장 원류(源流), 제21장 통관(通關)의 장에서는 사주의 가장 강한 기를 살펴야 하며, 기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잘 살펴서 기가 막힌 것은 유통을 시켜 주어 통관시켜 줌이 중요하다. 사흉신과 사길신¹⁰⁹도 원기유통하여 순용과 역용을 통하여 용신과 관계함이 다르니 일간의 회기를 먼저 논해야 한다. 통관의 작용이 원활해야 길하다.

제22장 관살(官殺), 제23장 상관(傷官)의 경우 난해한 부분은 관살혼잡(官殺混雜)과 상관견관(傷官見官)이다. 관살혼잡은 편관과 정관이 모두 혼잡되어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주의 왕상(旺相)을 보아야 한다. 상관과 정관은 원국에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경우와 원국에 강한 상관이 있는데 정관이 오는 경우를 말한다. 상관과 정관이 있어 서로 충극(沖剋)하거나 정관과 상관이 있어 서로 충극하면 파격이 되기 때문이다.

제24장 청기(淸氣), 제25장 탁기(濁氣), 제26장 진신(眞神), 제27장 가신(假神), 제28장 강유(剛柔), 제29장 순역(順逆) 등의 장에서 강유와 순역은 둘로 나눌 수 없으며, 이는 체용의 관계로 강건함과 유순함은 본체의 성정을 말한다. 월령(月令)에서 신(神)을 얻으면 평생이 귀(貴)하다. 청기 탁기란 단순히 한 가지 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행의 조화로 한 가지라도 방해가 없는지 유무를 보고 정한다.

제30장 한난(寒暖), 제31장 조습(燥濕), 제32장 은현(隱顯), 제33장은 중과(衆寡)의 장으로서 한난·조습의 경우 지나침을 꺼려 조후의 조화를 맞추어야 한

108) 이오지정(二五之精): 건곤남녀권(乾坤男女圖)의 발생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음양오행의 정수를 가리키는 말.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태극도설』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二)는 음양이기(陰陽二氣), 오(五)는 金·木·水·火·土의 오행, 情은 氣를 말한다. 金勝東, 앞의 사진, 1003쪽.

109) 사길신(四吉神)이라함은 재성(財成)·정관(正官)·인수(引受)·식신(食神)을 말한다. 그리고 사흉신(四凶神)은 칠살(七殺)·상관(傷官)·효신(梟神)·양인(陽刃)을 말한다.

다. 중과는 월령을 중심으로 모자라면 보태주고 태과하면 덜어주어야 한다.

끝으로 제34장 진태(震兌), 제35장 감리(坎離)장에서 진태(震兌)는 인의(仁義)의 발단(發端)이며 세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 변화의 기틀이 된다. 감리는 천지의 중기로서 서로 의지하여 조화(造化)의 완성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곧 주역에서 보면 주재하는 바가 서로 다름과 서로 의지하여 존재함을 말한다. 진태를 이루는 목(木)은 사람의 시작이고 금(金)은 이름의 시작으로 공(攻)·성(成)·윤(潤)·종(從)·난(暖)의 다섯¹¹⁰⁾으로 구분한다. 감리 또한 음양처럼 서로 주재하는 바가 다르나 서로 있어야 스스로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승(升)·강(降)·화(和)·해(解)·제(制)¹¹¹⁾의 경우 생극제화(生剋制化)와 그 뜻은 같다.

② 六親論

격물(格物)이란 세상의 이치를 찬찬히 따져 보는 것이며 치지(致知)란 지식(知識)과 지혜(知慧)의 극치에 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자학(朱子學)에서는 인(仁)을 이루는 것이 근본이다. 인은 체이고 사랑은 용인 것처럼 인은 체, 효도와 우애는 용이었다. 효도와 우애는 육친에 대한 사랑으로 인을 실천한 시초,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제1장 부처(夫妻), 제2장 자녀(子女), 제3장 부모(父母) 제4장 형제(兄弟)장으

110) 攻이란 初春의 木은 아직 어리니 金을 보면 다치고 火를 통해서 金을 공격하게 함을 말한다. 成이란 仲春의 木은 이미 旺하니 金은 쇠약하고 土로써 金을 도와 이루게 한다. 潤이란 여름의 木은 火에 의해 타고 金은 물러진다. 그러므로 水로써 木을 적시고 金을 식혀서 서로 윤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從이란 가을의 木기가 이미 시드니 金은 예리하다. 土에 따라 강함을 거역하지 않아야 한다. 暖이란 가을의 木과 金은 차가우니 火로써 木과 金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 나영훈, 『이회 적천수』, 봉성기획, 2001, 558쪽.

111) 升이란 오르는 것이니 천간에 火가 약하고 지지에 水가 강하면 지지에 木을 얻어야 상승할 수 있다. 降이란 내려오는 金을 말하니 천간에 水가 약하고 지지에 火가 강하면 반드시 金을 얻어 천기가 하강할 수 있다. 和란 천간에 모두 火이고 지지가 모두 水일 때 木이 와야 水火가 서로 통하여 화목함을 말한다. 解란 천간에 모두 水이고 지지에 모두 火일 때 반드시 金일 때 대운이 와야 원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制란 水火가 천간과 지지에 서로 싸울 때 반드시 행운에 이들 둘 중에 강한 것을 제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영훈, 위의 책 566쪽.

로 공자와 맹자가 논한 것을 보면, □□명이란 수신제가(修身齊家)의 길을 가르치고 인격을 향상시켜서 나의 운명의 행로(行路)를 잘 알아서 항해(航海)의 지침으로 삼고 풍파와 암초(暗礁)를 피하여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하늘이 준 재물과 같으며, 자식을 보는 것도 관살을 중시하고 식상을 조화로 본다.

제5장 하지장(何知章)의 경우 부(富)·귀(貴)·천(賤)·길(吉)·흉(凶)·수(壽)·요(夭)를 알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재성(財成)과 관성(官星)에서 희신(喜神)존속(存續)여부로 판단한다. 순수(純粹)하고 청(淸)하면 반드시 부귀를 누린다.

제6장 여명장(女命章), 제7장 소아(小兒)장에서 여명은 먼저 남편과 자식을 본다. 부성(夫星)의 성쇠(盛衰)로 자신이 귀(貴)하고 천(賤)한 바를 보며, 자식은 희신(喜神)이라야 좋으며 식상(食傷)만 논하기보다 오행의 조화를 본다.

제8장 재덕(財德), 제9장 분울(奮鬱), 제10장 은원(恩怨)의 경우 덕(德)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다. 기(氣)가 맑으면 재(財)가 많고, 기가 탁하면 재가 약하다. 인의예지(仁義禮智) 4덕의 구별을 알고 판단함을 말한다. 형기의 변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를 말한다. 즉 체용의 구별을 말하며, 사주에 희신(喜神)이 년(年)과 시(時)에 있으면 멀어서 그리워하는 연인에 비유한 말이다.

제11장 한신(閑神), 제12장 종상(從象), 제13장 화상(化象), 제14장 가종(假從), 제15장 가화(假化)장에서는 종(從)이 참되면 종격(從格)으로 논하고, 화(化)가 되면 화기격(化氣格)으로 진종(眞從)을 살피고 가종과 가화도 귀하게 되며 발전할 수 있다. 즉 고아가 다른 성을 가지고 출세함과 같다.

제16장 순국(順局), 17장 반국(反局), 제18장 전국(戰局), 제19장 합국(合局)장은 생극(生剋)의 법칙을 역으로 보아 상생(相生)의 참 뜻을 논하는 장이다.

제20장 군상(君象), 제21장 신상(臣象), 제22장 모상(母象), 제23장 자상(子象)장에서 모자멸자(母子滅子)와 군뢰신생(君賴臣生)은 서로 유사하며 사주에 병이 되는 요인이 같아 군뢰신생은 재성이 유기하여 용신으로 쓸 수가 없다. 모자멸자도 재성이 모성을 거스르니 쓸 수가 없다. 군신(君臣)과 모자(母子)가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제24장 성정(性情), 제25장 질병(疾病), 제26장 출신(出身), 제27장 지위(地位), 제28장 세운(世運), 제29장 정원(貞元)장의 경우 성정은 중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행이 조화를 이루면 일생동안 질병의 해가 없다. 출신 지위도 사주가 청(淸)해야 한다. 명(命)이 좋은 것은, 세운(世運)이 좋은 것 만 못하다는 말로 나무에 비유하면, 꽃피는 시기를 잘 살펴야한다. 사주의 조화는 원(元)에서 일어나 정(貞)에서 그치니 다시 정원지회(貞元之會)는 후사(後四)의 변화를 잉태한다.

(2) 『滴天髓』의 特徵

『적천수』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제화로 명(命)의 이치를 보며, 격국론(格局論)과 신살론(神煞論)을 배제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중화 억부론(中和 抑扶論)으로 이는 『중용(中庸)』의 이치에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다.

『적천수』의 첫 구절은 천도와 인도의 관계된 것으로 중용의 성(性) 도(道) 교(教)를 제시한 점이 같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性)이라 하고, 성에 따르는 것을 일러 도(道)라 하며, 도를 닦는 것을 일러 교(教)라고 한다.□□¹¹²⁾

□□성(誠)은 하늘의 도이고, 성에 이르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¹¹³⁾

□□성(誠)으로 밝아지는 것을 성(惺)이라 하고, 밝음으로써 성실해지는 것을 교라고 하니, 성실하면 곧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성실해 지는 것이다.□□¹¹⁴⁾

112) 『중용』 제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113) 『중용』 제20장,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114) 『중용』 제21장, 自誠明 謂之性 自明誠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

인간은 하늘의 속성을 그대로 자신에게 부여받아 하늘과 일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는 말이며, 반드시 도의 이치가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하고 있다. 도는 하나의 교훈과 예절, 법칙, 제도 등으로 구체화시켜서 인간 각자가 실천하고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늘과 하나 되어 하늘의 뜻으로 살아갈 때 해소 된다. 천국은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진실로 춘·하·추·동 사계절이 어김없이 순행하는 것과 같이 천지의 크고 작은 생물체가 제각기 성을 받아 자라고 태어나고 쉼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본성을 타고 났음을 깨달아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즉 중용은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룬 것과 같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모두 천성, 도덕, 학문, 교육 간의 관계를 말한 것이다. 기쁨과 슬픔을 아직 들어내지 않은 정적인 모습, 곧 정(情)이 나타내지 아니한 상태의□□속□□의 상태를 중(中)이라 하고, 모두 나타나서 절도있게 된 상태를 화(和)라 하며, 중이란 천하의 뿌리이고 화란 천하와 통하는 도리이다. 중과 화를 이루면 모든 만물이 제자리로 돌아가 제대로 길러지는 조화(造化)의 원리와 통한다.

『중용』에 있어 사람의 성품은 착한 것이므로, 그 본성을 자각 하도록 교도함으로써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성이 있는 자는 힘쓰지 않아도 적중되고, 생각지 않아도 얻게 되니, 자연스럽게 도에 적중하여 성인이 되는 것이다. 성에 이르고자 하는 자는 선(善)을 선택하여 곧게 잡는 것이다.□□

□□남이 한 번 해서 능해지거든 자신은 백번해 보고, 남이 열 번 해서 능해지거든 자신은 천 번 해 본다. 과감하게 이 도를 능히 해 낸다면 어리석은 자라도 반드시 명철해지고,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강해진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어떤 사람은 배워서 알며,

어떤 사람은 고심해서 알지만, 그것을 앎에 이르러서는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므로 그것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이로우므로 행하며, 어떤 사람은 애써 행하기도 하지만 그 공을 이룸에 있어 하나이다.□□¹¹⁵⁾

사람의 성능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하늘의 도는 필연적이고, 사람의 도는 당위의 것이라, 따라서 자기의 천분을 자각하여 발휘해야 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천분을 자각하는 단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서 선량한 성품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늘에서 어느 정도는 사주에 타고난다는 말과 통하기도 한다. 즉 중용은 하늘의 도를 근거로 하여 이를 본받고 따르는 인간의 도를 설명한 본체(本體)이다.

『大學』의 중심사상은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을 들 수 있는데 적천수의 통신론과 통변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다. 삼강령은 밝은 덕(德)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고, 최선의 경지에 머무는 것이다.

팔조목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말한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지선(至善)의 경지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타고난 사주도 중요하지만 노력과 운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적천수』에 수없이 나온다. 개인과 사회를 통해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을 밝힌 방법론(方法論)으로 볼 수 있다.

『주역』의 「계사전」 전반부는 역리(易理)를 서술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점사(占辭)와 의리(義理)의 상관관계를 전개함과 같이 『적천수』는 「통신론」에서 추명(推命)의 원리(原理)를 서술하고 「통신론」에서 용사의 응용(應用)이 되는 명리(命理)를 서술하였다. 「단전」에서 64괘를 해석하여 체(體)로 삼았듯이 『적천수』도 나누기에 따라 64장(章)으로 구분하여 체(體)로 삼을

115) 『중용』 제20장,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果能此道矣 雖愚必明 雖柔必強. 或生而知之 或學而知之 或困而知之 及其知之 一也. 或安而行之 或利而行之 或勉強而行之 及其成功 一也.

수 있다.

『주역』은 1괘에 6호(爻)씩 384호를 용(用)으로 삼았는데 『적천수』도 용구(用九)·용육(用六)과 같은 허(虛)한 문구(文句)를 빼면 384구(句)의 용(用)이 있다.

「상전(象傳)」이 소장(小腸)의 강유(剛柔)를 근거로 중정(中正)과 응비승승(應比承乘)의 사상(思想)을 담고, 『적천수』는 왕쇠(旺衰)를 근거(根據)로 중화(中和)의 생합정지(生合情志)의 사상을 담고 있다.

「상전」의 대상(大象)에서는 상괘와 하괘가 어떤 관계인지 말하며, 괘(卦)의 구성(構成)을 논한 뒤 유교사상(儒敎思想)에 입각하여 도덕정치상의 의리(義理)를 서술하였는데 『적천수』는 일간(日干)과 십신(十神)의 관계를 말하고 격국과 용신의 구성에 따라 유교에 입각한 도덕(道德)과 육친(六親)및 여러 가지 의리(義理)를 서술하였다.

「서괘전(序卦傳)」에서도 64장의 배열순서 역시 사상적 체계를 부여한 점이 같으며, 착괘(錯卦)나 종괘(綜卦)도 한 쌍씩 배열하였고 『적천수』 역시 대구(對句)나 종구(從句) 한 짝씩 배열하였다.

「잡괘전(雜卦傳)」은 64괘의 순서를 잡다하게 뒤섞여 설명하여 암송이 편하게 운(韻)을 밝고 있는데, 『적천수』도 이처럼 『시경』의 육의(六儀)를 사용하여 운을 가지고 있다. 『주역』은 취상(取象)·취의(取義)와 효위(爻位)에 의해서 풀이하고 있는데, 『적천수』는 취상(取象)·취의(取義)와 효위(爻位) 중에서 당위(當位)·득중(得中)·추시(趨時)·승승(承乘)·괘변(卦變)·강유소장(剛柔消長)을 절묘하게 적용하고 있다.

의리역학(義理易學)의 기본성향은 덕(德)으로 점(占)을 취하는 것이다. 『적천수』 또한 그렇다. 즉 자왈(子曰), □□옛날에 유언(遺言)이 있다. 나는 그 운용을 평안히 여기지 않고 그 문사(文辭)를 즐긴다.□□고 하였으니, 『적천수』도 사무(史巫)와 길을 같이 하되 귀착점이 달라 그 문사(文辭)가 청아하고 사려가 깊으며 덕의(德義)를 보려 하였다. 단순히 격국과 용신을 들어 길흉만 점치는 방법을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장마다 인사(人事)와 도덕(道德)을 은유하여 수양

(修養)에 뜻을 두었다.¹¹⁶⁾

『적천수』는 명리의 삼대보전으로 그 속에는 일괄된 철학이 깔려 있고, 둘째 표현방법은 처음과 끝이 노래로 연결되듯이 미문(美文)이라는 점과 통변(通辯)을 익혀 아무리 갈래를 쳐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적천수 한 구절이다. 또한 『적천수』는 마의상법(麻衣相法)이나 기문둔갑(奇門遁甲)에 이용해도 무리 없이 연결이 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그것은 결국 술(術)보다는 학(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¹¹⁷⁾

역을 지은 것은 천지의 유명(幽明)으로부터 곤충과 초목의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부합되지 않음이 없다.¹¹⁸⁾

천지·천하 등 용어가 대부분 역전에 나타난다. 역전에 이르러 자연이 철학적 사색의 주요대상으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만물의 본체자(本體者)로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일컬어 세 가지의 근원(根源)이란 뜻으로 삼재라 부른다.

우주 안에 있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은 천(天)·지(地)이고 하늘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일(日)·월(月)·풍(風)·뢰(雷)이며 지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산(山)·택(澤)이고, 인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수(水)·화(火)이다. 옛 사람은 이 여덟 가지를 우주의 근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를 8괘로 배치하였다.¹¹⁹⁾

8괘라 하지만 건(乾)·곤(坤)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곤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그 관계는 부모와 여섯 자식과 같다. 8괘를 중첩한 64괘도 모두 건과 곤을 모태로 한다.¹²⁰⁾

116) 나영훈, 앞의 책, 24쪽.

117) 나영훈, 위의 책, 19쪽.

118) 成百曉(譯註), 『周易傳義 上』, 傳統文化研究會, 2006. 85쪽.

119) 박신환, 『주역의 이해- 주역의 인간관과 자연관』, 서광사, 1990, 76쪽.

120) 박신환, 위의 책, 73쪽.

공자(孔子, B. C. 552~479)께서 말씀하셨다.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고, 예를 알지 못하면 남 앞에 설 수 없으며, 말을 알지 못하면 남을 알 수가 없다.□□¹²¹⁾

□□도(道)가 장차 행(行)하는 것이 명(命)이고, 도가 장차 폐(廢)하는 것도 명□□이라고 말했다.

맹자(孟子, B. C. 372~289)는 □□명이 아닌 것이 없으니 순순히 정명임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¹²²⁾

주역의 건괘 문언에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원(元)이란 자란다는 것이요, 형(亨)이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利)란 의가 조합됨이요, 정(貞)이란 사물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¹²³⁾

소자(邵子)가 말씀하셨다.

□□太極이 이미 나뉘면 兩儀가 서고, 陽이 위로 陰과 사귀고 아래로 陽과 사귀면 四象이 생기며, 陽이 陰과 사귀고 陰이 陽과 사귀면 하늘의 四象을 낳고, 剛이 柔와 사귀고 柔가 剛과 사귀면 땅의 四象을 낳아 八卦가 서로 交錯한 뒤에 만물이 생겨난다.¹²⁴⁾

『황극경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춘추』에는 천도(天道)가 있고 지도(地道)가 있으며 인도(人道)가 있으니, 임금이 되는 자는 잘 받들어 사용하면 제왕의 공덕이 어찌 어려울 것인가! ¹²⁵⁾

121) 이민수, 『사서오경입문』, 홍신문화사, 2001, 78쪽.

122) 『노자』 제20장,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123) 이민수, 앞의 책, 318쪽.

124) 成百曉(譯註), 앞의 책, 59쪽.

『음부경』에서도 천인합일 사상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음부경(陰府經)』의 □□하늘과 사람이 함께 발동하면, 수많은 변화의 기틀이 정해진다.□□에서 유일명(劉一明)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적용을 통해 천일합(天一合一)을 말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과 더불어서 합하고, 음양이 뒤바뀌고 한 순간뿐이다. 천시와 인사가 합하여 하나로 되면, 즉 만물이 변화하는 바탕이 정해진다.□□¹²⁶⁾

① 神煞論¹²⁷⁾ 排除

고대의 별점가가 보기에는□□하늘의 별자리는 국가의 정치생활이나 개인의 운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으며,¹²⁸⁾ 이것이 별자리 명리술¹²⁹⁾이다. 별자리와 명리술 이론을 행술로 변화시킨 것은 대략 당(唐)나라 시기에 시작되었다.

사주명리학은 대고 기문둔갑에 의해 시작되었고, 후에 천문운명학인 칠정사여운명학(七政四餘運命學)¹³⁰⁾으로 옮겨와서, 여러 학자에 의하여 사주추명학을

125) 소강절(노영균 옮김), 『황극경세서』, 대원출판사, 2002, 104쪽.

126) 유일명, 『음부경』 上篇, 天性 人地 天人合發 萬化定基.

127) 吉神을 神이라고 하고 凶神을 殺이라고 한다.

128) 구중희, 앞의 책, 48쪽.

129) 성명(星命) 술수가(術數家)들이 인생의 사주팔자를 천성(天星)의 운수(運數)와 오행(五行)의 생극(生剋)에 의거하여 사람의 녹명(祿命)을 추산하는 것을 일러 세칭 성명학(星命學)이라 한다. 당(唐)의 이허중(李虛中)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때는 단지 년(年)·월(月)·일(日)만 가지고 시(時)는 사용하지 않았다. 송(宋)대의 서자평(徐子平)에 이르러서 생시(生時)를 합쳐 팔자(八字)로 추산하였기 때문에 자평술(子平術)이라고 칭하였고, 근세에는 이를 받드는 자들을 성명가(星命家)라고 한다. 金勝東, 앞의 사전, 586쪽.

130) 원나라의 야율초재(耶律楚材)가 창시한 성평회해(星平會海)는 장과성종(張果星宗), 칠정사여(七政四餘)라고 불리는데 실성(實星)과 허성(虛星)으로 구성된 간지(干支)를 이용한 학문이다.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鄭富昇, 『七政四餘命全書』,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73쪽~80쪽.

論七政四餘周天行度

창시한 것이다. 칠정사여운명학도 그 요지는 음양오행·상생상극제화의 이론에 의한 것인데 그 이후 여러 학자의 실험과 경험을 통해 오늘날까지 보다 세밀하게 연구되어 왔다. 변요오행(變曜五行)은 보통 십간십이지(十干十二支)의 정오행과 달리 변체적 오행이다. 십간은 일원성진(日月星辰)이고, 지지는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오행으로 변화하게 된다.

古今中西星學 均以日月星辰之位置做爲論命之基礎

亦卽以其在天球之黃道經度運行度數爲依據

而將一周天以三百六十度計算 平均賦予十二宮(或稱十二星座)

七政者. 日 月 木 火 土 金 水 七星也

四餘者. 紫炁 月孛 羅喉 計都 爲七政爲文 四餘爲武 共十日曜 除日(太陽) 至尊至貴爲人君之象外.... 其餘十曜爲人臣 配以十干(年干)爲變曜 政餘變曜 又名化氣

1. 太陽: 日者 太陽也 人君之象 父之所配 有恩澤之義 獨守一宮 專其權也
2. 太陰: 月者 太陰也 人臣之象 母之所配 有慈柔之義 亦爲己身 卽安身之主宰
3. 木星: 古以木星之 繞日運行 做爲“年”之推算 故又名歲星 並以“木”主仁屬東方
4. 火星: 又名熒惑 火主禮 屬南方 多生暴燥 逆宮順度或逆度而行 順逆而明爲福
5. 土星: 又名鎮星 或填星 土主信 屬中央 一名地羅喉 逆行,名破家星 少成多敗 留則天奸星 主外誠內滑 諸事溫平 伏爲天瘟星 主疾病
6. 金星: 又名啓明 長庚 金主義 屬西方 秉性剛利 威權肅殺似將軍 精嚴自得無餘氣
7. 水星: 一名玄武 或靈龜 或廷尉 或稱辰星 水主智 屬北方 喜順忌逆留 遇善則善 遇惡則惡 行附於日 順喜輔陽涵皓魄 逆留則作子妻刑
8. 紫炁: 四餘 紫炁 月孛 羅喉 計都也 炁爲木之餘氣 孛爲水之餘氣 羅爲火之餘氣 計爲土之餘氣 故名曰四餘 紫炁 仁之餘氣 氣性清高慈善 吉祥之曜 主道藝之流 幽閒道學之人
9. 月孛: 孛水之餘 水主智 月孛,智之餘氣 一名孛餘 或櫬槍 或太乙 乃取彗星爲曜 彗星俗稱掃帚星 東西民族 皆以其爲凶兆之象 咸認爲上天示警 或有災荒 兵亂之災 中國古代對彗星的記載 有妖星 星孛 蓬星 長星 奇星之稱
10. 羅喉: 火之餘 火主禮 羅,禮之餘氣 一名天首 爲黃道 白道二交點中之“北方交點” 又名蝕神 天首性急 宿怨交仇 不能興義 能作妖孽 主血光傷破 斬截凶殘 夫子厄於陳蔡之嘆
11. 計都: 計,土之餘 土主信,計都,信之餘氣 一名天尾 爲黃道白道二交點中之“南方交點” 逆行於天道 含蓄毒惡 主風癘血氣災咎 逢日月則蝕

십간변요오행표(十干變曜五行表), 이지변요오행표(二支變曜五行表)¹³¹⁾를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십간십이지 모두 변화오행은 천문지리에 따라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칠정사여명학의 문헌이 없다. 그런데 명리학상 중요한 통변성(通變星)은 칠정사여명학에서 근원이 된 것인데, 실로 그 묘체는 경탄할 정도로 교묘하게 되어 있다. 칠정사여라는 것은 일월목화토금수(日月木火土金水)의 칠성(七星)과 사여성신(四餘星神)¹³²⁾의 작용 기타 각종의 법칙에 따라 간명한다. 보통학자는 체득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칠정사여명학에서 모두 천(天)자를 붙인 것은 천간은 천의 기세인 까닭이다. 칠정사여명학은 사주명리학보다 천오백여년 이전에 시작된 것으로 각종 문헌에서 추측할 수 있다. 칠정명학은 천문학(天文學) 또는 음양오행의법에 의한 것을 사학의 원서를 보면 알 수 있고, 명리학의 기본원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갑생인(甲生人)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갑은□□천인(天印: 正官)을 사용하면 금성(金星: 傷官)을 두려워하고, 금성(金星: 傷官)을 보고 라성(羅星: 印綬)이 없으면, 허명허리(虛名虛利)의 명(命)이며, 수성(水星: 正官)을 보면 형극(刑剋)의 명이다. 패성(字星: 劫財)은 천귀(天貴: 正財)에 봉하여 처자를 극상한다. 금성(상관)·수성(편관)을 겹쳐 보면 명리(命利)가 향상(向上)하기 어렵다. 만약 토성(土星: 偏財)·월성(月星: 正財)이 오면 부귀(富貴)의 명운(命運)이다.□□라고 되어 있다.

칠정사여명학 십요성신길흉해(七政四餘命學 十曜星神吉凶解)¹³³⁾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천록(天祿) 화성(火星: 比肩)

양간(陽干)은 양비(陽比)를 본다. 음간(陰干)은 음비(陰比)를 본다. 즉 음양동

131) 부록 <표 3> 참고.

132) 부록 <표 4> 참고.

133) 申六泉, 『天古秘傳 四柱鑑定法秘訣集』, 甲乙堂, 2002, 467~469쪽.

일의 기(氣)에서 나온 일가골육(一家骨肉)의 성(星)이다. 일자황은(一子皇恩)을 받고 황은은 봉록 즉 봉급을 받으므로 생활의 근원이 되고 하늘의 복록을 받게 되므로 비견을 천록이라 말한다. 사주명리학에 비견은 양일생은 동일양간 음일생은 동일음간이 비견이 되어 일기(一氣)가 나란히 있음을 말한다.

2. 천암(天暗) 패성(孛星: 劫財)

천암은 양은 음을 보고, 음은 양의 동일기를 본다. 재보(財寶)를 보면 이것을 쟁탈(爭奪)하고 이를 보면 투쟁(鬭爭)한다. 타인의 물건을 훔치려하고 행동이 야비하고 애매하다. 도둑의 근본을 받는 고로 천암이라 한다. 사주명리학의 겁재에 해당하고 십간 통변 중 최악의 신이다.

3. 천복(天福) 목성(木星: 食神)

양간은 양을 보고 음은 음을 생하고 천형(天刑)의 수성을 제(制)하여 나의 천인과 혼탁(混濁)을 제거한다. 천인은 권성(權星)의 신이다. 천암(天暗) 즉 사주의 겁재를 제거하고 재산의 흠어짐을 방지하고 부모의 식록을 받게 된다. 즉 천에서 복력을 내리는 뜻인 고로 천복이라 칭하고, 사주명리학의 식신에 해당된다.

4. 천모(天耗) 금성(金星: 傷官)

양간은 음을 생하고 음간은 양을 생하며 음양을 달리하여 생하고 소모(消耗)한다. 천인을 상(傷)하고 국법을 지키지 않는다. 부가(富家)는 관청의 법을 방자하여 재산을 보호한다. 천모금성은 법을 무시하고 악에 감화한다. 자의 횡포하여 국가의 손실이 심하게 되는 고로 천모라고 한다. 사주명리학의 상관과 동일 활동을 한다.

5. 천음(天陰) 토성(土星: 偏財)

천음은 부성(父星)이다. 재가 있어 父의 혜택을 받고, 즉 부의 재산을 양수한다. 그리하여 관을 생하는 고로 음성적으로 보호를 받아 세습(世襲)하므로 천음이라 한다. 부명의 신으로 사주명리학의 편재라 한다.

6. 천귀(天貴) 월성(月星: 正財)

양간은 음간을 극하고 음간은 양간을 극한다. 천귀는 천모의 소모를 화하고

천수를 제하고 천인을 도우며 천관은 더욱 현귀(顯貴)하다. 그러므로 천귀라 하고 사주명리학의 정재에 해당된다.

7. 천형(天刑) 수성(水星: 偏官)

양간은 양간에서 극(剋)을 받고 음간은 음간에서 극을 받는다. 양극은 서로 극하니 마르고, 음간은 정성을 다한다. 극은 싸우는 세력이다. 천수를 보면 나의 권위를 얻어 상급의 위치를 얻으면 천형은 천수를 생하고, 패인(佩印)은 겹재를 도우는 고로 법에 복종치 않고 예직이 되어 마침 천주를 받게 되어 천형이라고 한다. 사주명리학의 편관 칠살에 해당된다.

8. 천인(天印) 자기(紫炁: 正官)

양간은 음간의 극을 받고 음간은 양간의 극을 받는다. 극을 제하고 재물을 지키고 인수를 생하여 천의 열수(列宿)에 응한 고로 천작이라고 한다. 작은 반드시 인수를 패(佩)하므로 천인이라 하고 사주명리학의 정관에 해당된다.

9. 천수(天囚) 계도(計都: 偏印)

양간은 양간의 생을 받고 음간은 음간의 생을 받아 음양이 서로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생으로 무정(無情)의 상생(相生)이다. 천복을 빼앗고 천형을 제하는 신을 극파(剋波)한다. 천인의 귀한 기운을 빼오고 인격을 돌보지 않고 함부로 천복의 직위를 그만두며, 신(神)이 약하게 되는 고로 천수라고 한다. 사주명리학 도식(倒食)에 해당된다.

10. 천권(天權) 라후(羅喉: 印綬)

양간은 음간에서 생을 받고 음간은 양간에서 생을 받고 음양배우(陰陽配偶)로 유정(有情)의 생이다. 사주로 하면 인수는 자신을 생하고 귀기인 정관을 지켜서 편관을 생화한다. 이리므로 천권이라 하고 명학의 인수 또는 정인이라 한다. 이상과 같이 칠성사여명학은 십간화요라고 하고 사주명리학의 근본통변성이 된다.

옛 부터 전래되어 명리(命理)에 적용되는 신살(神殺)은 무려 180여 가지나 된다. 그러나 자세히 말하면 이 신살은 모두 명리학에서 자생된 것이 아니라 역리학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의 학설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신살은 성명학(星命學)에서 파생되어 만들어 진 것이나 그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떤 명식(命式)이라도 열 개쯤은 해당이 된다. 신살을 보는 방법역시 기준이 애매하여 년주(年主)을 중심으로 하고, 또 어떤 것은 일주(日主)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느 기준에 맞추어야 할지 혼란이 온다.¹³⁴⁾ 자평학 이전에는 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았고, 서자평 이후 일주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 이것 역시 명확한 근거제시가 힘들다. 이렇듯이 많은 신살들을 적용하다 보면 신(神)과 살(殺)이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사주간명에 있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

근대명리학(近代命理學)의 선각자인 중국 명대의 서자평은 납음과 신살에 의한 고법(古法) 즉 성가법(星家法)을 전부(全部) 버리고 오행(五行)의 생극(生剋)·부억(扶抑)·화합(化合)과 통변성의 희기구구(喜忌救仇), 그리고 지지(地支)에 있어 음양오행의 형충(刑沖)·회합(會合) 방법을 취했다.

『적천수』는 아예 신살을 완전히 배제(排除)하고 어디까지나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지닌 생극제화(生剋制化)에 의해 기(氣)의 왕쇠(旺衰)를 따라 희기(喜忌)를 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여개¹³⁵⁾나 되는 신살은 기문둔갑, 육효, 자미두수,¹³⁶⁾ 육임, 당사주¹³⁷⁾ 등에 모두 적용하여 쓰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도 신살을 모두 배격한 것은 아니고 명리학에서도 20~30여 가지는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쓰고 있는 신살¹³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년지중심의

134) 신살을 보는 방법도 세 가지나 전해 내려 오고 있다. 첫째 천간에서 천간을 보는 법, 둘째 천간에서 지지를 보는 법, 셋째 지지에서 지지를 보는 법 등이다.

135) 부록 <표 5> 참고.

136) 중국의 오대(五代)시기인 서기 950년 전후 진희이가 창안 했고, 그 후 600년 뒤 명대(明代) 1550년 그의 18대손 진도(陳道)가 『자미두수전집』 펴냄. 송대 유행했던 오성술(五星術), 과 노성종(果老星宗), 혹은 칠전사여(七政四餘)라고도 한다. 이것을 체계화한 것이 십팔비성(十八飛星)이라는 삼명술이다. 이에 근거한 것이 자미두수다. 결국 오성술에 뿌리를 두고 있다.

137) 여리학설의 신살조건표, 부록 <표 6, 7, 8, 9> 참고.

申六泉, 위의 책, 998쪽.

류래웅, 『기문둔갑신수결』, 대유학당, 2005, 111~129쪽.

권오달, 『야학노인점복전서』, 도서출판 소강, 2004, 39~132쪽.

김선호, 『왕초보자미두수』, 동학사, 2000, 40~59쪽.

신살 조건표,¹³⁹⁾ 일간중심의 신살 조건표, 월지중심 길성표, 일지중심 길성표¹⁴⁰⁾ 등을 보면 상세히 알 수 있다.

『적천수』에 나오는 유백온의 글 중에 이기에 대한 이기론과 왕상휴수론만 알면 진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적천수』는 현재 역학가들이 많이 쓰고 있는 포태법 즉 십이운성십이운성(十二運星)¹⁴¹⁾ 또한 사주를 간명할 때 쓰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

② 陰陽五行의 生剋化

역의 관점에서 보면 음과 양이 만나기 전을 무극(無極)¹⁴²⁾이라 하며 음과

138) 부록 <표 10> 참고. 申六泉, 앞의 책, 998쪽.

139) 부록 <표 11> 참고. 李俊雨, 『命理精說』, 明文堂, 1990, 249쪽.

140) 부록 <표 12, 13, 14, 15> 참고. 李俊雨, 위의 책, 220~221쪽.

141) 사람의 생·장·소멸을 오행의 생극제화로 표현한 것이다. 즉 태(胎) → 양(養) → 장생(長生) → 목욕(沐浴) → 관대(冠帶) → 제왕(帝旺) → 쇠(衰) → 병(病) → 사(死) → 장(藏) → 포(胞) → 절(絶)을 말하며, 이 12운성법은 현재 일본 명리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 태(胎): 父母의 결합으로 정자와 난자가 서로 만나 母親腹中에 入胎함을 나타낸다.

* 양(養): 한 生命이 母胎에서 점차 成長하여 자라는 과정을 나타낸다.

* 장생(長生): 母胎에서 10개월 동안 成長한 태아가 이 世上에 出生함을 뜻한다.

* 목욕(沐浴): 世上에 出生한후 幼兒 時에 때를 씻기고 목욕시켜 줌과 같다.

* 관대(冠帶): 成長하여 成服하고 띠를 매며 冠을 쓰고 결혼함을 나타낸다.

* 건록(建祿): 冠官이라고도 하며, 나라에 출사하여 國祿을 먹고 벼슬하니 완전히 自立成家함을 뜻한다.

* 제왕(帝旺): 一生 최고의 왕성한 장년 時期를 말한다.

* 쇠(衰): 극왕한 때가 지나 노쇠해 가는 初老期와 같다.

* 병(病): 老衰하면 시들고 생기가 파괴되니 병이 드는 것과 같다.

* 사(死): 病이 들면 生命력이 끊어짐과 같다.

* 묘(墓): 人生이 死하여 장사를 지내니 墓中에 묻힘을 뜻하며. 一名 葬, 庫, 藏이라고도 한다.

* 절(絶): 一名 胞라고도 하며 인간이 墓에 묻힌 후 그 형체가 절멸하여 인생일대의 생사를 一週하여 끝마치는 동시에 새로운 次生の 일주를 시작하려는 찰나에 해당하니, 인간의 生命이 母胎에 入胎하기 직전의 父母 결합시기로 絶處逢生을 뜻한다.

142) 무형(無形)의 무상(無象)한 우주의 원시상태를 말한다. 인지(人智)를 부정하고 속박을 떠난 이상적(理想的) 세계를 그렸던 것이다. 주렴계(周濂溪, 1017~1073)의 『태극도설』에 □□

양이 만나 뒤엎킨 상태를 태극(太極)¹⁴³⁾이라 한다. 태극에서 음양의 동정지간(動靜之間)에 변화의 오행이 나오며, 오행의 생장소멸(生長消滅)의 과정을 거쳐 다시 하나로 돌아가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오늘까지 역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태극이란 용어는 장자(莊子, B. C. 369~286)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무릇 도(道)라는 것은 태극보다 먼저 있으면서 높은 듯하지 않고 육극¹⁴⁴⁾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깊은 듯하지 않다. ¹⁴⁵⁾

도가 태극보다 먼저이며, 소위 태극이란 천지인 삼자를 가리킨다. 기와 형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나 판단이 안 되는 것의 이름으로써 도는 또 이것이 상하로 갈림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형이상□□이란 것을 도라 이름하고,□□형이하□□란 것을 기(器)라 이름이요.¹⁴⁶⁾

형이상은 음양이 유·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형이하는 현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¹⁴⁷⁾ 태극이 곧 리(理)이며 은밀한 곳에 감추어져(退藏於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감각적 인식을 초월한 것이다.

무극은 노자(老子, B. C. 561~467)의 『도덕경』에서 나온 말이다.

밝음을 알고 어두움을 지키면 천하의 의지처가 될 수 있다. 천하의 의

무극이 태극□□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金勝東, 앞의 사전, 367쪽.

143) 『역경』 계사상전 11장, 역(易)에 태극(太極)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으며,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는다.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 生四象 四象生八卦)

144) 六極: “上下四方” 여섯 가지의 크게 불리한 일 □□凶短折 疾 憂 貧 惡 弱□□을 말한다.

145) 莊子, 夫道...在太極之先而不爲高 在六極之下而不爲深...大宗師篇.

146) 莊子, 以道在太極先. 所謂太極 乃是指天地人三者. 氣形已具而未判者之名. 而道又別是一懸. 空底物.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147) 『朱子語類』에서 주희가 黃道夫에게 보낸 편지 참조.

形而上者: 理란 時間과 空間을 超越하여 形體를 超越한것으로 生物의 根本이 된다. 本이란 客觀的 事物이 그 事物이 될 수 있는 根據를 가리킨다. 形而下者: 氣란 時間과 空間에 內在하며 形體를 갖춘 것으로 生物의 質料가 된다. 質料란 經驗界의 모든 具體的 存在物의 構成 材料를 가리킨다.

지처가 될 수 있으면 영원한 덕이 사특해지지 않아서 끝없음으로 되돌아 간다.¹⁴⁸⁾

주돈이가 태극도설 첫 구절에 무극이 태극이라 하였다. 주돈이는 무극을 태극의 근원으로 보았는데 이는 도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오행에서 만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¹⁴⁹⁾

음양은 만물을 낳는 우주의 두 가지 기본적인 원소이자 이 두 가지 원소의 법칙적인 변화, 활동으로부터 형성된 우주창조의 대원칙으로 대규범인 것이다. 아울러 인생과 만물 속에 편입되어 관주된 인생과 만물의 성명(性命)으로 인식함으로써 음양관념이 그 발전을 완성하게 된다.

북극점을 중심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상현상과 일월성신을 통해 연구한 것이 천(天)·지(地)·인(人)으로 그것이 천문·지리·인사 분야의 학문으로 거듭하여 발전해 왔다.

인사의 학문 중 『적천수』는 음양오행의 변화를 통해 명(命)의 이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상(象)이나 기(氣)로 나타난다. 고대인들은 직접 사용하던 물건이나 마주치는 별자리들을 계절과 연관하여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천문현상이 인간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경험상 알게 되었고, 이것이 성명학(星命學)의 시초가 되었다.

옛날사람들은 하늘의 오성(五星)과 땅의 오행(五行)을 같이 보았다. 『書經』의 「순전(舜典)」에 말하기를 선기옥형(璇璣玉衡)이 있어서 칠정(七政)을 다스렸다고 했으니 7정은 칠요(七曜)를 뜻하며,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인 동시에 정사를 행하는 주체가 되며, 해와 달, 그리고 오성은 그 명령을 받아 실행하는 관리가 된다. 즉 하늘과 땅은 기운이 쌓여 만물을 화육할 때에, 해와

148) 『도덕경』 제28장, 知其白 守其黑 爲天下式 爲天下式 常德不忒 復歸於無極.

149)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달 및 오성을 생하고 극하는 실질적인 작용을 한다.

오성(五星)은 목의 정기가 모인 세성(歲星: 목성), 화의 정기가 모인 형혹(熒惑: 화성), 토의 정기가 모인 진성(鎮星: 토성), 금의 정기가 모인 태백(太白: 수성), 수의 정기가 모인 진성(辰星: 수성) 등을 일컫는다. 이 다섯은 다 하늘의 오른쪽으로 돌아 28수를 순회하는데, 28수는 움직이지 않으므로 28수를 경(經)으로 보고 오성을 위로 본다.¹⁵⁰⁾

칠정(七政)은 북극성의 명을 받아 음양과 오행의 배합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관함을 말한다. 그래서 북두성을 칠정¹⁵¹⁾이라고 한다.

간지(干支)는 오행을 따라 세운 것으로 해에 이름을 붙인 것이 간(幹)이며 달에 이름을 붙인 것이 지(支)이다. 간지의 별명과 함께 기(氣)의 유행으로 해석했다. 이아(爾雅)¹⁵²⁾와 사기(史記)의 천간과 지지의 별명은 표와 같다.¹⁵³⁾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¹⁵⁴⁾의 오행은 모두 음양의 기운에서 나타났다. 습한 기운은 물(水)을 낳고, 따스한 기운은 불(火)을 낳았으며, 굳센 기운은 나무(木)를 낳았고, 강한 기운은 금(金)을 낳았으며, 화합하는 기운은 토(土)를 낳았다. 음양오행의 5원소를 짝으로 하여 자연(自然)·인사(人事)에 모두 적용하여 생각하고, 길흉(吉凶)·물기(物忌)·상성(相性) 등을 해석한다. 동·서양의 오성 속성표¹⁵⁵⁾와 음양오행의 배속표¹⁵⁶⁾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150) 蕭吉, 위의 책, 10~11쪽.

151) 부록 <표 16> 참고.

152) 13경(經)의 하나로 중국고대 문자 해설서.

153) 부록 <표 17, 18> 참고. 蕭吉, 앞의 책, 20쪽.

154) 陰陽이란 太極에서 動靜의 陽氣가 分離되어 나온 太陽과 太陰을 말한다.

陽은 孕胎에서 生長旺盛으로 進하고 陰은 旺盛에서 衰病死絶로 退한다.

陰陽의 相對性은 다음과 같다.

양(+)은 天日男凸動上前左晝明春夏東南木火生強進高.

음(-)은 地月女凹靜下後右夜暗秋冬西北金水死弱退底

五行이란 太陽은 火요. 太陰은 水요. 少陽은 木이요. 少陰은 金이며 水火 金木이

對沖相生 하는 것이 土이다. 즉 木火土金水를 五行 또는 五氣라 한다.

155) 부록 <표 19> 참고. 강진원, 『역으로보는 동양천문이야기』, 정신세계사, 2006, 125쪽.

156) 부록 <표 20> 참고. 李俊雨, 앞의 책, 42쪽.

황제는 천지만물의 근본을 음양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대문헌 중 음양을 제일 많이 거론한 문헌인 『황제내경』¹⁵⁷⁾에서는 음양의 세 가지를 삼음삼양(三陰 三陽)이라 하여, 음양을 인체의 체질 및 기후와 연결시켜 치료에 이용했으며, 이를 거역하면 재해가 생기고□□이를 따르면 악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⁵⁸⁾

『덕경경』에 따르면□□천하 만물은 유(有)에서 나오고 유는 무(無)에서 생긴다.□□¹⁵⁹⁾ 오행은 음양에 근본하고 정기와 형상으로 흩어져서 하늘과 땅에 두루 미치고 어둡고 밝은 데의 끝까지 펼쳐지니 자·오·묘·유가 날줄이 되고 팔풍·육율¹⁶⁰⁾이 버리가 된다.¹⁶¹⁾

오행을 살펴보면 무릇 오행이라는 것은 조화의 근원이며 인륜의 시발점으로 만물이 오행을 받아 바뀌게 되고 백 가지 명령들이 오행으로 인해 감응하고 통하게 된다.¹⁶²⁾

소길(蕭吉)¹⁶³⁾은 『오행대의』에서 오행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목은 나무가 부딪혀 나가는 것이니 땅을 뚫고 나온다. 목은 굽고 곧다. 화는 변화하는 것이니 양의 기운이 작용하여 모든 물건이 변화하는 것이다. 화는 불타서 위로 오른다. 토는 토(吐)하는 것이니 정기(精氣)를 머금기도 하고 토하기도 해서 물건(物件)을 내는 것이다. 토는 심고 거둔다.

157) 『황제내경』에 역시 「陰陽應象大論」에서 황제는□□陰陽이란 천지의 道이며 萬物の 紀綱이며, 變化의 父母, 生死의 本始이며, 神明의 倉庫이다.□□라고 말을 한다.

158) 尹太鉉, 「京房 易의 研究」, 동국대학교대학원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89쪽.

159) 『道德經』 제40장, 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無.

160) 八風: 炎風(東北) 條風(東方) 景風(東南) 巨風(南方) 涼風(西南) 飂風(西北) 麗風(西北) 寒風(北方) 六律: 黃鐘 大蕤 姑洗 蕤賓 夷則 無射. 십이율에서 陽聲에 속하는 음.

161) 五行本乎陰陽 散乎精像 周竟天地 布極幽明 子午卯酉爲經緯 八風六律爲綱紀.

162) 夫五行者蓋造化之根源 人倫之資始 萬品稟其變易 百靈因其感通.

163) 중국 수(隋)나라 때의 음양오행가, 자는 문휴(文休). 양무제(梁武帝, 502~549)의 형이자 장사왕(長沙王)의 손자로써 박학다식하였고, 특히 음양(陰陽) 산술(算術)에 능통하였다. 북주에서 의동(儀同)이라는 벼슬을 지냈으며, 고금의 음양서(오행대의)를 교정하였고, 저서로는 금해(金海)30권·상경요록(相經要錄)1권·택경(宅經)8권·장경(葬經)6권·악보(樂譜)12권·제왕양생방(帝王養生方)2권·상수관요결(相手版要訣)1권·태일입성(太一立成)8권 등이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608쪽.

금은 금지(禁止)시키는 것이니 음기가 처음 일어나서 만물이 금지되는 것이다. 금은 따르고 변혁(變革)한다. 수는 평평한 것이니 만물을 평준(平準)하게 하는 것이다. 水는 윤택(潤澤)하게 불려주고 아래로 내려간다.¹⁶⁴⁾

이리하여 『적천수』에서는 음양과 오행의 생극제화¹⁶⁵⁾이론에 입각하여 사주를 상생상극설¹⁶⁶⁾로써 사주를 간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간을 목(木)으로 보면 목생화(木生火)하면 목(木)은 화(火)를 생(生)해 주므로 설기를 당해 약해지고, 화는 목의 생조(生助)를 받아 강해진다. 목극토(木剋土)하면 목(木)은 토(土)를 극(剋)하니, 힘이 빠지고 토는 극을 받아 파괴된다. 목과 목은 오행이 같으니, 생도 극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부조(扶助)하여 왕(旺)해진다.

오행의 생극제화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목이 왕성하면 금을 얻어야 동량(棟樑)을 이루고, 화가 왕 함에는 수를 얻어야 상제되어 조화를 이루고, 토가 왕한 즉 목을 얻어야 왕성한 토기를 소통(疏通)하는 것이니 이기(利器)가 될 것이며, 금이 왕 하면 화를 얻어야 그릇을 만들 것이요, 수가 왕한 즉 토를 얻어야 하여야 지소(池沼)를 이루어 쓸 만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2. 목은 수에 의지하여 생성되지만 수가 많으면 나무가 물에 떠내려감을 면할 길 없으며, 화는 목에 의하여 소생되나 목이 많으면 화기가 치성(熾盛)하여 지나치게 불타게 될 뿐 성물(聖物)하기 힘들고, 토는 화를 의뢰하여 생출되지만 화가 많은 즉 토는 마르고, 금은 토에 의하여 생출되지만 토가 많으면 금은 흠에 묻히게 되고, 수는 금에 의하여 생출되지만 금이 태과한 즉 탁수가 되어 물은 맑지 못하고 흐리게 된다.

164) 木: 木者 觸也 觸地而生 木曰曲直. 火: 火之爲言化也 陽氣用事 萬物變化也. 火 曰炎上土: 土之爲言吐也 含吐氣精 以生於物. 土爰稼穡 金: 金者 禁也 陰氣始起 萬物禁止也. 金曰從革 水: 準也 平準萬物. 水曰潤下. 說文解字: “木春 火夏 土季夏 金秋 水冬”. 蕭吉, 앞의 책, 3~9쪽.

165) 五行의 생剋相比論을 보면 相生은 생하여 도우는 것이며, 相剋은 剋하여 이기는 것이고 相比는 生도 剋도 아닌 同氣가 協力하는 것이다.

166) 相生은 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相剋은 木剋土 土剋水 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相比는 木比木 火比火 水比水 土比土 金比金

3. 목은 능히 생화하지만 화다하면 목은 불타 없어지고, 화는 능히 토를 생하지만 토가 많으면 불은 흙에 묻히어 꺼지고, 토는 능히 금을 생하지만 금이 많으면 토는 금으로 변(變)하여 멸(滅)하게 되고, 수는 능히 생목하나 목이 많으면 축소(縮小)된다.

4. 목이 능히 토를 극하지만 토가 태중(太重)하면 목이 부러지고, 화가 금극하지만 금이 많으면 화는 꺼질 것이고, 토가 능히 극수하나 수가 많으면 토가 떠내려가므로 유실되는 것이고, 금은 극목하지만 목이 견고하면 금은 이지러질 것이고, 수가 능히 극화하나 화가 많으면 수가 증발할 것이다.

5. 목이 약한데 중금을 만나면 목은 반드시 파절(破折)될 것이요, 화약한 중에 수를 만나면 불은 반드시 꺼질 것이고, 토가 약한 가운데에 목을 만나면 토는 흐트러지고 가루나 먼지와 같이 힘이 없어질 것이며, 금이 약한 가운데에 화가 같이 있으면 금은 반드시 녹아서 없어질 것이며, 수가 약한 중에 토를 만나면 수는 반드시 막히고 흡수되어 흐를 수 없게 된다.

6. 목이 강하면 화를 얻어야 그 완강함을 풀어주며, 왕화는 토를 얻어야 그 불타는 것을 그치게 하고, 토가 많으면 즉 금을 얻어야 왕한 토에 해를 제할 수 있으며 강한 금은 물을 얻어야 그 날카로움을 꺾을 수 있고 수가 왕하면 목을 얻어야 그 왕한 기운을 설기할 수 있는 것이다.¹⁶⁷⁾

이와 같이 음양과 오행의 원리는 사주추명학의 기초가 됨과 동시에 그 왕쇠

167) 〈五行生剋 制化論〉

1. 木旺得金에 方成棟樑이요 火旺得水에 方成相濟며 土旺得木에 方能疏通이며 金旺得火에 方成器皿이요. 水旺得土에 方成池沼이니라.
2. 木賴水生이나 水多木漂요, 火賴木生이나 木多火熾요. 土賴火生이나 火多土焦요, 金賴土生이나 土多金埋요, 水賴金生이나 金多水濁이니라.
3. 木能生火나 火多木焚이며 火能生土나 土多火埋요, 土能生金 이나 金多土變이요, 金能生水나 水多金沈이요, 水能生木이나 木多水縮이니라.
4. 木能克土나 土重木折이요, 火能金克이나 金多火熄이며 土能克水나 水多土流며 金能克木이나 木見金缺이요, 水能克火나 火多水熱이니라.
5. 木弱逢金엔 必爲破斫이요, 火弱逢水엔 必爲熄滅이요, 土弱逢木엔 必遭傾陷이며 金弱逢火엔 必爲消鎔이요, 水弱逢土엔 必爲游塞이니라.
6. 木強得火하면 方化其頑이며 強火得土하면 方止其焰이요, 強土得金하면 方制其害이며 強金得水하면 方挫其鋒이요, 強水得木하면 方泄其勢이니라.

변동지리(旺衰變動之理)는 무궁무진(無窮無盡)한 것으로 변통지법의 오묘(奧妙)한 이치를 세찰(細察)하면 강해가 불갈(不渴)함과 같고 천지가 무궁(無窮)하다.

오행의 성품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바탕으로 그 기운의 성품을 논하였다. 충(蟲)과 새와 짐승 및 벌레로 나누었으며, 이 세 가지(새, 짐승, 벌레)들을 다섯 가지 영물(靈物)에 논하고 괘¹⁶⁸⁾의 배속과 36금(禽)에 배속하였다.

삼십육금론(三十六禽論)¹⁶⁹⁾에서 지금 36가지만 해석한 것은 육갑(六甲)의 수를 취한 것이다. 이것을 12지에 배속을 시켰는데 그 풀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에 셋이 있는 까닭은 하루를 세 때로 나누게 되니 아침 낮 저녁이다. 그 뜻으로 살펴보면 정음인 12가지는 모두 낮에 있으니, 혹 아침이나 혹 저녁이 되지 않는 것이다. 「式經(식경)」¹⁷⁰⁾의 방법에 의해서 기운으로 취해 보면 처음 것은 저녁에 있고, 가운데 것은 가운데 있으며 끝에 있는 것은 아침에 있으니, 이 12종류는 12신에 해당되고 나머지 24종류는 이미 금에 배속되었으나 지의 자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¹⁷¹⁾

지지금론(地支禽論)의 경우 왕간¹⁷²⁾이 말하기를 자(子)는 아침에는 제비가 되고 낮에는 쥐가 되며 저녁에는 박쥐가 된다. 축(丑)은 아침에는 소가 되고 낮에는 게가 되며 저녁에는 자라가 된다. 인(寅)은 아침에는 이리가 되고 낮에는 표범이 되며 저녁에는 호랑이가 된다.

묘(卯)는 아침에는 고슴도치가 되고 낮에는 토끼가 되며 저녁에는 오소리가

168) 『역경』에 건(☰)은 말, 곤(☷)은 소, 진(☳)은 용, 손(☱)은 닭, 감(☶)은 돼지, 리(☲)는 꿩, 간(☴)은 개, 태(☵)는 양에 배속시켰다.

169) 부록 <표 21> 참고.

170) 「식경」에는 종류가 「黃帝式經」, 「玄女式經」, 「六壬式經雜占」 등이 있는데 어느 것을 뜻하는지는 알 수 없다. 12지를 아침, 점심, 저녁 세 때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171) 所以支有三者 分一日爲三時 旦及晝 暮也 若以意求 正應十二屬並居晝位 不凝或旦或暮. 今依式經法 以氣而取 孟則再暮 仲則在中 季則在旦 是十二屬當十二辰也 餘二十四 既是配禽以不當支位. 蕭吉, 앞의 책, 585쪽.

172) 청(靑)나라의 오현(五縣) 사람으로, 자는 유문(維文)이며 강희제(康熙帝) 초기에 구중안에 서 공봉(供奉) 벼슬을 하였다.

된다. 진(辰)은 아침에는 용이 되고 낮에는 이무기가 되며 저녁에는 물고기가 된다. 사(巳)는 아침에는 물 구더기가 되고 낮에는 지렁이가 되며 저녁에는 물고기와 뱀이 된다. 오(午)는 아침에는 사슴이 되고 낮에는 말이 되며 저녁에는 노루가 된다. 미(未)는 아침에는 양이 되고 낮에는 매가 되며 저녁에는 기러기가 된다.

신(申)은 아침에는 고양이와 되고 낮에는 원숭이가 되며 저녁에는 원숭이가 된다. 유(酉)는 아침에는 꿩이 되고 낮에는 닭이 되며 저녁에는 말이 된다. 술(戌)은 아침에는 개가 되고 낮에는 이리가 되며 저녁에는 송냥이가 된다. 해(亥)는 아침에는 돼지가 되고 낮에는 큰 원숭이가 되며 저녁에는 멧돼지가 된다.¹⁷³⁾

『오행대의』에 나오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⁷⁴⁾

갑(甲)은 억누르고 잡아 가두는 것이니 봄에는 열고 겨울에는 단는다. 을(乙)은 꼬불꼬불한 것이니 봄이 되면 모든 물건이 씨앗의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병(丙)은 자루이다 물건이 생겨나 자라면 각각 줄기자루를 잡는 것이다. 정(丁)은 머무를 정자와 같고 정(亭)은 그쳐 쉬는 것이니 물건이 생겨나서 크다가 그치게 되는 것이다. 무(戊)는 ‘바꿀 무’와 같으니 생겨나서 극(極)에 달하도록 크면, 당연히 이전의 몸체를 변해서 바꾸게 된다. 기(己)는 버리기와 같은 것이니 물건이 이미 이루어지면 줄기와 바탕이 되는 것이 있게 된다. 경(庚)은 고치는 것이고, 신(辛)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만물이 이루어짐에 교대하고 고쳐져서 새롭게 됨을 말한다. 임(壬)은 맡기는 것이고, 계(癸)는 헤아리

173) 子: 子朝爲鶩 晝爲鼠 暮爲伏翼. 丑: 丑朝爲牛 晝爲蟹 暮爲鼈. 寅: 寅朝爲狸 晝爲豹 暮爲虎. 卯: 卯朝爲狴 晝爲兎 暮爲貉. 辰: 辰朝爲龍 晝爲蛟 暮爲魚. 巳: 巳朝爲蟬 晝爲蚯蚓 暮爲已. 午: 午朝 爲鹿 晝爲馬 暮爲獐. 未: 未朝爲羊 晝爲鷹 暮爲鴈. 申: 申朝爲猫 晝爲猿 暮爲猴. 酉: 酉朝爲雉 晝 爲鷄 暮爲鳥. 戌: 戌朝爲狗 晝爲狼 暮爲豺. 亥: 亥朝爲豕 晝爲獾 暮爲猪. 蕭吉, 위의 책, 586~589쪽.

174) 甲: 甲者 押也 春則開也 冬則闔也. 乙: 乙者 軋也 春時萬物皆孚甲 自抽軋而出也.

丙: 丙者 柄也 物之生長 各執其柄. 丁: 丁者 亭也 亭猶止也 物之生長 將應止也. 戊: 戊者 質也 生長既極 極則應成易前體也. 己: 己者 紀也 物既始成 有條紀 也. 庚辛: 庚者 更也 辛者 新也 謂萬物成代 改更復新也. 壬癸: 壬者 任也 癸者 揆也 陰任於陽 揆然萌芽於物也. 蕭吉, 같은 책, 12~13쪽.

고 계책을 하는 것이다. 즉 음(陰)이 양(陽)에게 맡겨서 물건이 싹트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지지론(地支論)을 보면, 자(子)는 낳는 것이니 양기가 이미 움직임에 만물이 새끼낳고 싹트는 것. 축(丑)은 끈紐(紐)이고紐(紐)는 연결하는 것이니 계속 싹터서 연달아 자라는 것. 그리고 인(寅)은 옮기는 것이며 또한 이끄는 것이다. 물건의 싹이 점차 몸 밖으로 토해져서 이끌리고 퍼져 땅으로 옮겨 나오는 것이다.

묘(卯)는 덮는 것이니 물건이 나서 커서 땅을 덮는 것이다. 진(辰)은 진동(震動)하는 것이니 빠르게 진동해서 옛 몸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사(巳)는 그치는 것이니 옛 몸체를 씻어내어 여기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다. 오(午)는 짝지워 지는 것이며 또한 꽃받침이 붙는 것이다. 오월에 만물이 성대해져서 가지와 꽃받침이 짝으로 퍼지는 것이다.

미(未)는 어두운 것이다. 음의 기운이 이미 자라남에 만물이 점차 쇠퇴해져서 몸체가 어둡게 덮히는 것이다. 신(申)은 ‘펼 신’과 같다. 신은 끌어당기는 것이며 크는 것이니 쇠퇴하고 늙는 것을 촉진시켜 더욱 노쇠하게 하는 것이다. 유(酉)는 늙은 것이며 또한 익었다는 것이니 만물이 극도로 늙어서 성숙한 것이다.

술(戌)은 멸(滅)하는 것이며 죽이는 것이다. 음력 9월에 전부 죽으니 만물이 모두 멸하게 되는 것이다. 해(亥)는 씨앗이며 문(門)을 잠그는 것이다. 10월에 만물이 닫히고 숨어서 모두 씨를 맺고 감추는 것이다.¹⁷⁵⁾

천간에 합에 있어 건(乾)은 양이고 곤(坤)은 음이니 음과 양이 덕(德)을 합하여 하늘의 생함을 받고 땅의 이룸을 받는다고 하였다. ¹⁷⁶⁾이에 천간합론(天

175) 지지론, 子: 子者 孳也 陽氣既動 萬物孳萌. 丑: 丑者 紐也 紐者繫也 續萌而繫長也. 寅: 寅者 移也 亦云引也 物牙稍吐 引而申之 移出於地也. 卯: 卯者 冒也 物生長大 覆冒於地也. 辰: 辰者 震也 震動舊迅 去其故體也. 巳: 巳者 已也 故體洗去 於是已竟也. 午: 午者 忤也 亦云萼也 仲夏之月 萬物盛大 枝柯萼布於午. 未: 未者 昧也 陰氣已長 萬物稍衰 體萎昧也. 申: 申者 伸猶引也 長也 衰老引長. 酉: 酉者 老也 亦云熟也 萬物老極而成熟也. 戌: 戌者 滅也 殺也 九月殺極 物皆滅也. 亥: 亥者 核也 閔也 十月閉藏萬物 皆入核閔.. 같은 책, 13~17쪽.

176) 『역경』 「계사 상전」 6장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 而剛柔有體□□

干合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기(甲己)가 합(合)하여 토운(土運)이라 하는 경우 하늘에는 금천이 있는데 28수의 심(心)과 미(尾)로부터 천간의 기의 분기점까지 운행하는 황도로서 심과 미의 사이가 24방위도에서 갑이고, 기의 분기점까지 이르고 방위적 갑으로부터 기에 이르는 황도(黃道)에는 토기가 운행하므로 갑기가 합하여 토라 한다.

을경(乙庚)이 합(合)하여 금운(金運)이라 하는 경우, 하늘에는 소천(素天)이 있는데 28수의 항(亢)과 저(氏)수로부터 묘(昴)와 필수(畢宿)까지 운행하는 백도(百道)로서 항과 저의 사이에는 24방위에서 을이고 묘와 필의 사이에는 경이므로 방위적으로 을로부터 경에 이르는 백도에는 금기가 운행하므로 을경이 합하여 금이 된다.

병신(丙辛)이 합(合)하여 수운(水運)이 되는 경우 하늘에는 현천(玄天)이 있는데 28수의 장(張)과 익(翼)으로부터 수(數)와 위(胃)까지의 운행하는 흑도(黑道)로서 장과 익 사이의 방위는 병이고, 수와 위 사이의 방위는 신이며 방위적으로 병으로부터 신에 이르는 흑도에는 수운이 운행하므로 병신이 합하여 수기가 된다.

정임(丁壬)이 합(合)하여 목운(木運)이 되는데, 하늘에는 창천(蒼天)에 있는데 28수의 류(柳)와 귀(歸)로부터 위(危)와 실(室)까지 운행하는 청도(靑道)로서 류와 귀의 사이에 24방위의 정이 되고, 위와 실의 사이에는 임이며 방위적으로 정으로부터 임에 이르는 청도에는 목기가 운행하므로 정임이 합하여 목이 된다.

무계(戊癸)가 합(合)하여 화운(火運)이 되는데 하늘에는 단천(丹天)이 있어서 28수의 벽(壁)과 규(奎)으로부터 우(牛)와 여(女)까지 운행하는 적도(赤道)로서 벽과 규수사이의 24방위는 건(乾)이고 건은 무의 분기점이며 우와 여숙사이의 방위는 계가 된다. 무로부터 계에 이르는 적도에는 화기(火氣)가 운행하므로 무계가 합하여 화가 된다.¹⁷⁷⁾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건(乾)은 양이고 곤(坤)은 음이니 음과 양의 덕이

합한다□□고 하셨으며 오행의 근본은 하늘의 생함을 받고 땅의 이룸을 받는 것으로 양자로 부터는 기운을 품부(稟賦) 받고 음에게서는 형체를 받는 것이다.¹⁷⁸⁾

지지합론은 해와 달의 운행하다가 머물러서 회합한 곳에 주목한다. 12월 합론(十二月 合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월에는 해와 달이 추자(姤訖)의 자리에 모인다. 추자는 해방(亥方)이고 일명 시위라고도 한다. 이때는 북두(北斗)의 자루가 인을 가리키는 때이므로 인(寅)과 해(亥)가 합이 된다.

2월에는 해와 달이 강루(降婁)의 자리에서 모인다. 강루는 술방(戌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묘(卯)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묘(卯)와 술(戌)이 합이 된다.

3월에는 해와 달이 대량(大梁)의 자리에서 모인다. 대량은 유방(酉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진(辰)을 가리키는 때이므로 진(辰)과 유(酉)가 합이 된다.

4월에는 해와 달이 실침(實沈)의 자리에서 모인다. 실침은 신방(申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사(巳)를 가리키므로 사(巳)와 신(申)이 합이다.

5월에는 해와 달이 순수(鶉首)의 자리에서 모인다. 순수는 미방(未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오(午)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오(午)와 미(未)가 합이 된다.

6월에는 해와 달이 순화(鶉火)의 자리에서 모인다. 순화는 오방(午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미(未)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미(未)와 오(午)가 합이 된다.

7월에는 해와 달이 순미(鶉尾)의 자리에서 모인다. 순미는 사방(巳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신(申)을 가리키는 때이므로 신(申)과 사(巳)가 합이 된다.

8월에는 해와 달이 수성(壽星)의 자리에서 모인다. 수성은 진방(辰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유(酉)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유(酉)와 진(辰)이 합이 된다.

9월에는 해와 달이 대화(大火)의 자리에서 모인다. 대화는 묘방(卯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술(戌)을 가리키는 때이므로 술(戌)과 묘(卯)는 합이 된다.

10월에는 해와 달이 석목(析木)의 자리에서 모인다. 석목은 인방(寅方)이고

177)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대월출판, 2006, 127~135쪽.

178) 蕭吉, 앞의 책, 188~191쪽.

북두의 자루가 해(亥)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해(亥)와 인(寅)이 합이 된다.

11월에는 해와 달이 성기(星紀)의 자리에서 모인다. 성기는 축방(丑方)이고 북두의 자루가 자(子)를 가리키는 때이므로 자(子)와 축(丑)이 합이 된다.

12월에는 해와 달이 현효(玄枵)의 자리에서 모인다. 현효는 자방(子方)이고 천원(天黿)이라고도 한다 북두의 자루가 축(丑)을 가리키는 때이므로 축(丑)과 자(子)가 합이 된다. 179)

형(形)의 이론은 오행의 상극에 따라 형을 만들었으며 『상서형덕방(尙書形德攸)』에 이르기를 일진이나 간지의 형으로 사람, 하늘, 땅, 삶의 삼재에 대응한 것이라 하였다. 그에 따른 삼합형(三合形)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나무는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의 자리인 해묘미(亥卯未)는 형이 북방에 있게 되니 해는 스스로 형이 되고 묘의 형은 자에 있으며 미의 형은 축에 있는 것이다. 물은 흘러서 끝으로 향하기 때문에 수의 자리인 신자진(申子辰)은 형이 동쪽에 있게 되니 신의 형은 인에 있고 자의 형은 묘에 있으며 진은 스스로 형이 된다.

금도 단단하고 화도 강하여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금의 자리인 사유축(巳酉丑)은 형이 서방에 있으니 사의 형은 신에 있고 유는 스스로 형이 되며 축의 형은 술에 있다. 화의 자리인 인오술(寅午戌)은 형이 남쪽에 있으니 인의 형은 사에 있고 오는 스스로 형이 되며 술의 형은 미에 있다.180)

179) 正月合：正月日月會於 娵皆之次 娵皆亥也 一名豕韋 斗建在寅 故寅與亥合。二月合：二月 月會於 降婁之次 降婁戌也 斗建在卯 故卯與戌合。三月合：三月日月會於大梁之次 大梁酉也 斗建在辰 故辰 與酉合。四月合：四月日月會於實沈之次 實沈申也 斗建在巳 故巳與申合。五月合：五月日月會於鶉首之次 鶉首未也 斗建在午 故午與未合。六月合：六月日月會於鶉火之次 鶉火午也 斗建在未 故未與 午合。七月合：七月日月會於鶉尾之次 鶉尾巳也 斗建在申 故申與巳合。八月合：八月日月會於壽星 之次 壽星辰也 斗建在酉 故酉與辰合。九月合：九月日月會 於大火之次 大火卯也 斗建在戌 故戌與卯 合。十月合：十月日月會於析木之次 析木寅也 斗建在亥 故亥與寅合。十一月合：十一月日月會於星紀 之次 星紀丑也 斗建在子 故子與丑合。十二月合：十二月日月會於玄枵之次 玄枵子也 一名 天黿 斗建 在丑 故丑與子合。 蕭吉, 위의 책, 191~193쪽.

180) 木局刑：木落歸本 故亥卯未木之位 刑在北方 亥自刑 卯刑在子 未刑在丑。水局刑：水流向未 故申子辰水之位 刑在東方 申刑在寅 子刑在卯 辰自刑。金局刑：金剛火強 各還 其鄉 故巳酉丑

오행을 사방에 배속시키고 있는데 명리는 물론 풍수학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동방(東方)은 갑을(甲乙)과 인묘진(寅卯辰)이 맡는다. 갑(甲)은 목(木)이나 을(乙) 속에는 금(金)이 섞여 있으며, 인(寅) 속에는 생겨나는 화(火)가 있으며 진(辰)은 토(土)고 묘(卯)속에는 죽은 수(水)가 있다.

남방(南方)은 병정(丙丁)과 사오미(巳午未)가 맡는다. 병(丙)은 화(火)나 정(丁) 속에는 수(水)가 섞였고 사(巳) 속에는 생겨나는 금(金)이 있으며 미(未)는 토(土)고 오(午) 속에는 죽은 목(木)이 있다.

서방(西方)은 경신(庚辛)과 신유술(申酉戌)이 맡는다. 경(庚)은 금(金)이나 신(辛) 속에는 화(火)가 섞였고 신(申) 속에는 생겨나는 수(水)가 있으며 술(戌)은 토(土)고 또한 유(酉) 속에는 배태한 목이 있다. 북방(北方)은 임계(壬癸)와 해자축(亥子丑)이 맡는다. 임(壬)은 수(水)나 계(癸) 속에는 토(土)가 섞여있고 해(亥) 속에는 생겨나는 목(木)이 있으며 자(子) 속에는 배태한 화(火)가 있고 축(丑) 속에는 죽은 금(金)이 있으니, 이것은 모두 방위별로 오행이 섞여있는 것이다.¹⁸¹⁾하여 연구함과 같은 것이다.

명리의 통변에 중요한 오행의 생극제화론과 삼합론, 천간지지론과 12합론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적천수』는 신살론을 배제하고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부합하여 신살론과 음양오행의 생극제화에 따른 사주의 실례를 몇 개 들어 살펴보겠다.

〈사주실례 1〉

金之位 刑 在西方 巳刑在申 酉自刑 丑刑在戌. 火局刑: 寅午戌 之位 刑在南方 寅刑在巳 午自刑 戌刑在未. 蕭吉, 위의 책, 173쪽.

181) 東方: 東方甲乙寅卯辰 甲木也 乙中有雜金 寅中有生火 辰土也 卯中有死水. 南方: 南方丙 丁巳午未 丙火也 丁中有雜水 巳中有生金 未土也 午中有死木. 西方: 西方庚辛申酉戌 庚金也 申中有 雜 火 申中有生水 戌土也 又酉中有胎木. 北方: 北方壬癸 亥子丑 壬水也 癸中 有雜土 亥中有生木 子中 有胎火 丑中有死金. 같은 책, 171~172쪽.

생년월일	乾命 : 음력 1944년 6월 20일 戌시 생				
대운	시	일	월	년	
61 51 41 31 21 11	甲	甲	壬	甲	천간
戊 丁 丙 乙 甲 癸 寅 丑 子 亥 戌 酉	戌	辰	申	申	
년지 중심 신살	조객, 고초				
월지 중심 신살		천덕귀인			
일간 중심 신살		금여	현침	현침	
12운성 중심 신살	월겁	화개	지살	지살	
오행상의 적합한 직업	관, 인성용(水) 명예, 사무직, 행정공무원적성 (모 광역시 부 구청장을 역임했음)				

신살로 볼 때는 일주나 시주의 백호살은 혈광사(血光死)·횡사(橫死) 등 의미한다. 일주에 있으면 부부간에 악사(惡死)하며, 시주에 있으면 자손이 흉악하여 죽는 수가 있다. 백호살에 충(衝)·파(破)가 되면 살(殺)이 없어진다.

고초(枯草)는 파기·자원·고갈 등 기능마비, 이중·삼중 겹쳐서 들면 소아마비·사업실패 등 병고·투병 어려운 일을 겪는다. 화개(華蓋)는 고독하며 고신과 과숙이 같이 있으면 승려가 된다. 지살(地殺)은 변동·여행·타향살이를 한다. 월겁은 겁살로 인해 외부로부터 강탈당함과 동시에 기신이면 교통사고·횡사·강도 등 형(刑)을 당한다.

현침(懸針)은 갑(甲)일주가 지지에 신·묘·오(申 卯 午)를 보는 것으로 활인성을 의미하며, 그 뜻은 침구나 한의사 약사 간호사·봉재사·기술자·역술 등을 하게 된다. 조객(弔客)은 상문(喪門)과 같은 뜻으로 명(命)중에 있고 대운·세운에서 만나면 상복을 입고 곡읍을 한다. 경(輕)하면 원친(遠親)의 사별이 있다.

이 명조는 격국은 편인격 또는 관인상생격 사주로서 명예직으로 학문(문서,

서류관계)을 쓰는 사주이다. 일부 학자는 살인(편관)상생은 없다고 하지만 적천수에는 살인상생을 보며 명예취하면서 관직에 오른 예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다녀 온 1967년(丁未)24살 이였고, 불과 2년만인 1969년(己酉) 26살에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4급 공무원인 모구청 부구청장을 지낸바 있다. 2004년(甲申) 말에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건축 감리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다. 학벌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야간으로 단국대학교를 수료하였다.

가계는 아들 셋에 부인도 건강하며 손자·손녀를 보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아들 둘은 현재 경찰공무원이고 한 명은 사업하고 있다.

지나 온 운을 보면 1998년(戊寅)에는 문서와 편관의 충돌로 인하여, 돈을 빌려 주고 받지를 못하여, 재물손실을 많이 보았다. 2005년(乙酉)에 풍이 와서 힘들었으나 2006년(丙戌)부터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현재는 건강한 편이다.

건강측면을 음양오행설로 풀이하여 보면 목(木)이 태과하거나 약하면 간 또는 신경계통으로 수족상해·중풍이 올 수 있는 사주가 된다.

사주상의 현침살과 편인격이라 역술·풍수·침술에 관심이 있으며,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 만약 신살을 위주로 사주를 본다면 백호살의 작용으로, 부인과 자식도 인연이 없으며,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니, 평생 공무원으로 순탄하게 보내지 못 했을 것이다.

〈사주실례 2〉

생년월일 대운	乾命 : 음력 1957년 6월 13일 午시 생				
	시	일	월	년	
63 53 43 33 23 13	甲	丙	丙	丁	천간
庚 辛 壬 癸 甲 乙 子 丑 寅 卯 辰 巳	午	辰	午	酉	

년지 중심 신살	합지	천살	합지		
월지 중심 신살		금여			
일간 중신 신살	양인		양인	천을 귀인	
12운성 중심 신살	고초, 월겁	화개	지살	지살	
오행상의 적합한 직업	식신용(土, 金): 언론, 교육계, 문화, 종교 (현재직업; 모 대학 교수)				

신살로 볼 때는 월지와 시지의 양인은 군자에게는 권위가 되지만 소인에게
는 형액(刑厄)이 된다. 년지의 양인은 조업을 파하고, 시지의 작용으로 자식을
잃는다. 화개는 사물과 정신을 보관하는 작용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진리의
보고이다. 양인과 동주하면 생살지권을 잡는다는 뜻으로 즉 권위를 누린다.

지살은 변동이나 타향살이를 의미한다. 합지살은 도화와 같은 작용을 하며,
미색을 탐하고 주색으로 방탕하여 직장에 태만하고 현실주의자로서 색정을 일
으킬 수 있다.

오행의 조화로 볼 때는 이 사주는 식신생재격 사주로서 인품이 너그럽다.
식신이 왕 하면, 신체 건강하여 무병하고 복이 많으며, 여자를 좋아하고, 성격
이 밝고 명랑하여 춤과 노는 것을 즐긴다. 식신이 생왕하면 재관보다 좋으며
직업에 따라 출세하고 요직에 앉는다.

이 명조의 사람은 현재 모 대학의 교수로서 재직 중이며, 가정 또한 원만하
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오행의 조화 또한 잘 이루어져 있으며 식신격
사주는 교육계에 종사자가 많다. 진오유해(辰午酉亥)는 수옥살로서 여러 사람
을 거느리는 사주이다.

1999년에 필자와 만났는데 그때는 모 대학 교환교수시절로서 己卯년에는 卯
도화의 발동으로 인하여 제자(유부녀)와 색정문제로 시비가 있었다.

〈사주실례 3〉

생년월일	乾命 : 음력 1960년 7월 8일 자시 생				
대운	시	일	월	년	
59 49 39 29 19 9	甲	己	甲	庚	천간
乙 甲 癸 壬 辛 庚 未 午 巳 辰 卯 寅	子	丑	申	子	
년지 중심 신살		곡각살			
월지 중심 신살					
일간 중신 신살	천을 귀인	양인	금여, 천복 귀인	천을 귀인	
12운성 중심 신살	장성	금여	지살	장성	
오행의 적합한 직업	인성용(火): 교육계, 종교, 역술, 연구가) (현재직업: 역술업)				

신살로 볼 때 양인은 형벌의 살로 성격이 강열·황포·성급을 나타낸다. 사주에 양인이 있으면 인생행로에 장애가 많다. 혹 괴결 열사도 나온다. (예 : 안중근 의사) 그러나 곤액이 따르며 일지 양인은 처덕이 없으나 그 힘은 약하다.

천을귀인과 천복귀인은 부모나 윗사람 등 여러 사람 도움을 받는 길성(吉星)으로 성격이 밝다. 귀인이 있는 천간과 합이 되면 사회에 신용을 얻어 출세가 빠르다. 금여는 온후(溫厚)·유순(柔順)의 음덕이 특징이며, 자연히 행복을 받을 암시가 있다. 면모가 화기에애하고 절도가 있고, 남자는 발명에 재간이 있으며 처가의 도움을 받는다.¹⁸²⁾

182) 李俊雨, 앞의 책, 179~183쪽.

오행의 조화로 볼 때는 신약으로 정관격인 사주다. 이 사주에서는 조후용신인 화(火)가 필요하나 사주에는 없으므로 비견용신인 토(土)를 쓸 수밖에 없다. 또한 용신 토가 자축자(子丑子)와 신자(申子)의 반합으로 더욱 수의 진기로 습하여 조후인 화(火)의 기운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명조는 신살로 볼 때는 귀인과 금여로서 신용을 얻어 출세를 해야 되는 사주이나,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로서 목발이 없이는 생활을 못한다. 23세 때 금속세공 자격증도 취득했으나 힘들어서 직업으로 활용을 못하였다. 현재 직업은 모 지역에서 역술업을 하고 있다. 인성(火)의 기운이 필요해서 역술이라는 직업이 적성에 맞을 수 있다.

건강면은 오행의 조화로 볼 때 체질은 수(水)가 태과·약하면, 허리아래의 부위의 병이 발병¹⁸³⁾할 수 있으며, 신장·요통·곱추 등의 병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보아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라고 말할 수 없다.

사주에 기축일생은 곡각살¹⁸⁴⁾로 몸에 흉터나 수족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고 한다. 그러나 모든 기축일주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음양오행상으로 체질을 살펴보면, 사주에 냉기가 많아 혈액 순환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주실례 4〉

생년월일						坤命 : 음력 1955년 2월 19일 戌시 생				
대운						시	일	월	년	
58	48	38	28	18	8	壬	癸	己	乙	천간
乙	甲	癸	壬	辛	庚	戊	酉	卯	未	
酉	申	未	午	巳	辰					

183) 李俊雨, 위의 책, 541~544쪽.

184) 乙丑, 乙巳, 己丑, 己巳 일주나 시주에 있으며 곡각살로 몸에 흉터나 수족이상이 있다.

년지 중심 신살		육액	합지		
월지 중심 신살					
일지 중심 신살	천복 귀인		문창 귀인, 학당 귀인 지살		
12운성 중심 신살	천살	재살	장성	화개	
오행상의 적합한 직업	편인용(金, 水 필요): 예술, 미용, 요리, 식품 현재직업: 미용실 경영				

신살로 볼 때는 재살은 백호살이라고도 하며 생명과 관련되고 최고 실권자 상호간 싸움도 해당하며, 급격한 재난·급성질환·교통사고·납치·구속·송사·관형지액의 작용이 있는 살이다. 생왕하여 길성을 만나면 권력에 종사하며, 상서(祥瑞)로운 일이 있다.

천살은 천재지변을 당하는 살로서 조재·수재·낙뢰 등 재난을 당하는 살이다. 지살은 유년의 변화가 심하며 타향살이를 한다. 육액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살로 유년에 병고로 신음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나 생왕 귀인을 만나면 고귀하게 된다.

문창귀인·학당귀인·천복귀인 등은 길성(吉星)으로 인격이 반듯하고 지혜와 충명이 있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재앙을 제거하는 최고의 길신이다. 학문을 좋아하고 인성과 같이 있으면, 심성이 착하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

이 명조는 현재 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 재주가 비상하여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태어나서부터 신경의 이상으로 곱사등을 앓아서 현재 꼽추이다.

오행상 조화로 보면 신약사주로서 식신격으로 용신은 유(酉) 편인이다. 식신격은 의식에 구애는 받지 않으며 편인용신으로 예술계통에 소질과 손재주가

있고, 사교성이 있어 성격이 활발하여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

체질상로는 묘유(卯酉) 충(冲)이 있으며 수족·간·담·말초신경이상이 있을 수 있다. 신약 사주에 충으로 인하여 곱추병을 가진 것 같다.

〈사주실례 5〉

생년월일 대운	乾命 : 음력 1994년 4월 14일 辰시 생				
	시	일	월	년	
55 45 35 25 15 5	庚	庚	己	甲	천간
乙 甲 癸 壬 辛 庚 亥 戌 酉 申 未 午	辰	戌	巳	戌	
년지 중심 신살	망신, 고초		원진		
월지 중심 신살					
일지 중심 신살	금여	고초	암록, 문곡 학당 귀인	금여	
12운성 중심 신살	화개	화개	망신	화개	
오행상의 적합한 직업	식신용(水): 운동, 예능, 실업계 현재직업: 중학생				

신살로 볼 때는 고초는 천기의 창고로서 자운고갈을 의미하며, 이중 삼중으로 들면 기능마비·소아마비·사업이나 종교의 분쟁·택일·파종·교미·부화의 의미가 있는 살이다. 원진과 같이 들면 병고·투병 등의 어려운 일을 만난다.

망신은 육친의 이별 즉 생이별의 의미로, 실물·도난·사기·손재의 뜻도 가지고 있다. 일주 괴강은 용감·충명·과단·괴벽·결백성이 특징이다. 대중을 제압·통솔하는 살로서 성격은 맹열·황포하며 위권이 당당하다. 나쁜 작용은 투쟁·강도·수술·살상의 의미도 있다.

금여·암록·귀인 등은 길성 작용을 하며, 금여는 금수레를 타는 뜻으로, 자연적으로 행운이 있어 세인의 도움을 받는다. 암록도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곳에서도 음성적으로 남의 도움을 받는다. 천을 귀인이 재·관·인의 도움으로 귀격에 들며 입신출세하는 좋은 작용을 한다.

이 명조는 올해 14살로 양자를 들이고자 하는 의뢰건으로 알게 되었으며, 신살 작용은 성격은 황포하며 급하나 길성의 작용으로 부모나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행의 조화로 보면 편재가 합(合)이며 부친이 바람둥이이고 인수가 많으면, 즉 친 엄마 손에 클 수 없는 사주이다. 현재 부친은 바람둥이고 모친은 미혼 모로서 입양문제로 상담을 의뢰한 사주이다.

위에서 다섯 명의 사주의 실례로 살펴보았다. 신살로 사주를 풀이해보면, 흉성과 길성이 겹쳐서 어느 것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를 않는다. 물론 길성만 있으면 더 없이 좋으나, 살이 겹치면 더 흉하고, 흉살이 있고 길성이 있으면, 그 흉작용은 반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사주의 실례를 보았듯이 한 명조당 적어도 신살이 10개~12개는 된다. 이렇듯이 신살을 위주로 사주를 판단하면 사주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적천수』에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로 해석을 주장 했듯이 일간이 어느 기운을 타고 얼마나 조화를 이루었느냐에 따라 사주의 타고난 직업과 건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살 보다는 음양오행의 조화, 즉 오복의 조화로 사주를 판단해야 함이 옳다는 견해이다..

③ 體用論(格局論)

형상론(形象論)에서 방국이란, 사주에 체(體)를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을 말하며 팔격(八格)은 작게 보아서 말하는 것이다. 형상은 화기격(化氣格)과 일기격(一氣格)을 말하며, 방국(方局)은 종격(從格)을 말한다. 형상에서 논하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양기(陽氣) 만나면 합의 상을 이루니 상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오기(五氣)도 모이면 취(聚)의 형을 이루니 형(形)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독상은 화지로 향하는 것을 좋아하니 화심이 창(昌)해야 하고, 전상(全象)은 재지(財地)로 향하는 것을 좋아하니 재산(財神)이 왕(旺)해야 한다. 형(形)이 온전하며 그 남은 바를 덜어야 하고 형(形)이 모자라면 그 부족한 바를 더해야 한다.¹⁸⁵⁾

상(象)이란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고 형(形)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자(老子)는 □□형체가 없는 것을 상(狀)이라고 하고 물상(物象)이 없는 것을 상(象)이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은 황홀하다. □□고 하였다. 이(夷)·희(希)·미(微)¹⁸⁶⁾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도의 본체로 보아 종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표현했으며,¹⁸⁷⁾ 한 마디로 이렇듯 사주의 형상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표현도 될 것이다.

큰 덕(德)의 모양은 오직 도(道)로부터 나온다. 도(道) 속에 황홀하기만 하여 그 속에 물상(物象)이 있다. 즉 무상(無象)의 상(象)이 있으며 무물(無物)의 물(物)이 있어 상(象)과 물(物)이 가장 진실 되고 정미(精微)한 것이며 그 무형

185) 形象 兩氣合而成象 象不可破也 五氣聚而成形 形不可害也 獨象喜行化地 而化神要昌 全象喜行財 地 而財神要旺 形全者宜損其有餘 形缺者宜補其不足. 徐樂吾編著, 앞의 책, 1979, 11~13쪽.

186)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夷)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희(希)라 하며, 손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미(微)라고 한다.

187) 『도덕경』, 제14장, 見乃爲之象 象也者 像也 是謂無狀之狀 無象之象 是謂惚恍

속에서 나오는 공용은 미덥고 증거가 있어 잘못됨이 없다는 것이다.¹⁸⁸⁾

노자가 성상(成象)에서 말한 현빈지문(玄牝之門)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¹⁸⁹⁾ 즉 연해자평이후 신취팔법에서 말하는 제상을 대부분 포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횡거(橫渠)¹⁹⁰⁾ 선생은 □□형(形)이란 볼 수 없는 것이고, 상(象)이란 강유(剛柔) 동정(動靜) 등의 성능을 가리킨다. □□고 하였다.

『주역』 「계사전」에 □□역이란 상이며 상이란 형상을 본뜬 것이다. □□이것은 상을 떠나서 역을 말할 수 없으며, 상은 두 가지를 가리킨다. 하나는 패상으로서 팔괘가 취한 상은 하늘(天)·땅(地)·바람(風)·우뢰(雷)·물(水)·불(火)·산(山)·못(澤) 등이다. 여기서 손(巽)과 진(震)은 상이며 나머지는 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바람(손: 巽)과 벼락(진: 震)은 그 형체가 없고 하늘(건: 乾) 연못(태: 兌) 불(리: 離) 물(감: 坎) 산(간: 艮) 땅(곤: 坤)은 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상과 형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며,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면 형이고 감각에 익숙하면 상이라 할 수 있다.

팔괘에 들지 않으면 상이 나와야 한다. 양기상격을 이르는 말이다. 형기에서 상을 이루려면 오행은 두 기(氣)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자 왈, 진·리·태·건은 하늘의 양과 땅의 강이 되며 손·감·간·곤은 하늘의 음과 땅의 유가 된다. 지도는 하늘을 받들어 행하니, 땅의 유와 강으로 하늘의 음과 양에 응함은 똑같은 이치이다. 다만 하늘에 있

188) 『도덕경』, 제21장, 孔德之容 性道是從 道之爲物 性恍性惚 ...

189) 미묘(微妙)한 생장(生長)을 말하고 一元之無極在於戊亥二會 有此無極 이라는 글의 里會와 통해야 한다.

190) 횡거역설(橫渠易說): 중국 송(宋)나라 때의 학자인 장재(張載, 1020~1077)가 찬한 『주역』의 주해서 3권을 말함. 『송사』 「예문지」에는 10권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존 본 상경 1권과 하전 1권과 계사 이하 「잡괘」까지를 수록한 1권이 있고, 끝에 총론이 붙어 있다. 정이(程頤, 1033~1107)의 『역전』에 비해 간단한 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간혹 설명이 빠진 곳이 있으나 역전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후에 그는 이 책을 근거로 그의 대표적 저술인 『정몽(正夢)』을 지어 송학(宋學)의 결실에 크게 기여하였다. 『사고전서』에 실려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1578쪽.

는 것이 한번은 역하고 한번은 순하니 기운이 운행되는 이유이며, 땅에 있는 것은 오직 역을 주장하는 이 이루어진 이유이다.¹⁹¹⁾

오행의 기가 모두 모이는 것을 형을 이룬다고 말한다. 즉 같은 소리를 내는 무리와 같은 기를 받은 무리는 서로 잘 찾아 화합한다. 형기를 논하는 것은 동기감응으로 볼 수 있다. 물은 낮고 축축한 곳으로 흐르고 불은 높은 곳으로 타 들어간다.

천지음양(天地陰陽)의 기(氣)를 감(感)하여 모(母)로부터 형(形)을 받으며, 오행(五行)을 완전함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칭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가 명을 논한 것은 인간의 길은 먼저 수신제가의 길을 가르치고 인격을 향상시켜 운명의 행로를 알아 풍파와 암초를 피하여 안심입명을 기초로 하는 길임을 말한다. 사주팔자의 오기오행의 형상을 먼저 파악함을 이르는 것이다.

형상을 총괄하여 보면 일종의 격국용신(格局用神)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간합(干合)하여 진화(眞化)하는 것을 화격(化格) 생일 지지가 동일한 오행은 곡직(曲直), 종혁(從革) 등의 오국(五局)과 같이 사주가 서로 모여 일위(一位)오행된 것이다. 둘째, 형상은 사주가 2기, 3기만 된 것으로 양신성상(兩神成象)이라고 한다. 셋째, 방상(方象)이란 인묘진동방(寅卯辰東方), 해묘미삼합목국(亥卯未三合木局) 등을 말하며 이것을 방국(方局)이라 하고 해묘미삼합목국은 삼합해서 국을 이룬다고 한다. 넷째, 기세(氣勢)로 이룬 것을 종살(從殺), 종재(從財), 종관(從官), 종아(從兒)라 한다. 다섯째, 암충격(暗沖格)으로 사주에 용신될 기세가 없고 지지에 동일한 오행이 있으며 충동(沖動)해서 용신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암격(暗格)이라 말하고 암신(暗神)을 용신으로 말한다. 여섯째, 암합(暗合)으로 앞에서와 같이 암합해서 건록이 되거나 혹은 정관으로 용신 취용법으로 참된 용신을 얻어야 한다.¹⁹²⁾

191) 朱子曰 乾坎艮坤은 爲天之陰, 地之柔라 地道는 承天而行하니 以地之柔剛으로 應天之陰陽은 同一理也라 特存天子는 一逆一順하니 卦氣所以運이요 存地者는 性主乎逆하니 卦畫所以成耳니라. 成百曉(譯註), 앞의 책, 62쪽.

팔격¹⁹³⁾이란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식신, 상관을 말한다. 형상기국(形象氣局)은 큰 흐름을 말하니 하나의 사주를 보아 형상(形象)이나 방국(方局)이 있으면 이를 논명(論命)하는 것이다. 팔격은 작은 흐름이니 하나의 형상기국이 보이지 않을 때 월지(月地)를 중심으로 사주의 조화를 논명 하는 것이다. 많은 학설에서 변하지 않은 대요는 일원(日元)이 월령(月令)¹⁹⁴⁾에 있

192) 阿附泰山, 『滴天髓秘解』上, 三元文化社, 1998, 197쪽.

193) 八格,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神八格定 影響遙繫既爲虛 雜氣財官不可拘 官殺相混須細論 殺有可混 不可混 傷官見官最難辨 官有可見不可見 徐樂吾補註, 『滴天髓補註』, 臺灣 瑞成書局印行, 1979, 13쪽.

194) 林道心 主編, 『中國古代萬年歷』, 河北人民出版社, 2003.

중국 고대 만년력에 나타난 정월의 변천사

서주(西周, B. C. 1046~B. C. 771)

주조(周朝: 공원전(公元前) 1046~공원전(公元前) 256년

서주(西周: 공원전(公元前) 1046~공원전(公元前) 771년

1. 주무왕(周武王) 11년 을미(乙未)년, 공원전(公元前) 1046년

- 주무왕 정월(正月)을 병자(丙子, 12월 30일) 월로 시작

2. 노(魯)은(隱) 원년(元年) 기미(己未)년 (공원전(公元前) 722년

- 정월을 을축(乙丑, 1월 16일) 월로 시작

3. 주경왕(周敬王) 사십년 을축(乙丑)년, 공원전(公元前) 476년

- 정월을 병자(丙子, 11월 27일)월로 시작

4. 진(秦) 조(朝) 병오(丙午)년 공원전(公元前) 255년~공원전(公元前)206년

진왕국(秦王國) 공원전(公元前)255년~공원전(公元前) 221년

-정월을 10월 정해(丁亥, 첫해를 10월로 시작, 월 천간 년도기준)

5. 한무제태초(漢武帝太初) 2년 공원전(公元前)103년

- 정월을 갑인(甲寅, 2월 11일) 월로 시작

6. 신조(新朝) 공원(公元) 9년~공원(公元)9년

신왕망시건국원년(新王莽始建國元年) 己巳년 公元 9년

- 정월을 을축(乙丑, 1월 15일)월로 시작

7. 한희양왕경시(漢淮陽王更始) 2년 갑신(甲申)년 공원(公元) 24년

- 정월을 병인(丙寅, 1월 30일)월로 시작

8. 당무후재초원년(唐武后載初元年)/ 주무칙천천천수(周武則天天天授) 원년(元年)

경인(庚寅)년, 공원(公元) 690년

- 정월을 병자(丙子, 12월 18일)월로 시작

9. 주무칙천천천초(周武則天天天初) 2년/ 대족원년(大足元年) 장안원년(長安元年)

신축(辛丑)년, 공원(公元) 701년

- 정월을 경인(庚寅, 12월 13일)월로 시작

여러 왕조들의 첫해의 시작을 자(子)월, 축(丑)월, 해(亥)월, 등 여러 가지를 쓰다가 주무칙천천초부터 현재까지 인(寅)월로 쓰고 있다.

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령(司令)으로 하여 진가여부를 파악한 후에 용신을 취하되 사주의 청탁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초적이고 중요한 논명의 순리적 대요(大要)이다.¹⁹⁵⁾

적천수에서는 구체적으로 격국의 복잡한 이론전개는 하지 않았으며 내재된 원리 위주로 설명하였다. 격국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용신이 같을 수 없다. 같은 월령의 격이라도 오행에 따라 사시의 희기에 따라 성정이 조금씩 다르며 그 용신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적천수의 격국론이 영향을 미친것은 자평진전이다.



195) 나영훈, 앞의 책, 288쪽.

IV. 易理學上の 위상과 現代의 意義

1. 易理學上の 위상

『적천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자평진전』이다. 『적천수』는 음양오행에 근거한 월령(月令)과 생시체용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자평진전』은 총 5권으로 천간의 법칙과 오행의 정리(正理), 격국(格局), 용신론(用神論)을 원칙으로 사주와 행운을 대비하며 실험을 통해 얻어진 활용법으로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적천수』는 변격(變格)을 논한 것이고 『자평진전』은 정격(正格)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명리학의 기초이론과 격국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평진전』 서문에 서락오(徐樂吾)는 이렇게 논하고 있다.

격국에는 정격(正格)과 변격(變格)이 있다. 정격은 오행의 상궤(常軌)를 가지고 격국을 논한 것이며, 변격은 오행의 편승(便乘)을 가지고 논한 것이다. 그러나 만 가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은 결국 오행의 이치에 귀속된다.

『자평진전』은 오로지 월령(月令)을 중히 여겨 격국을 논하고 재격(財格) 정관격(正官格), 인격(印格), 칠살격(七殺格), 상관격(傷官格), 양인격(陽刃格), 건록격(建祿格)으로 나눈다. 정격에 용신을 논함에 있어 변격에는 오행의 변화를 중히 여겨 기세(氣勢)를 중시하므로 일행득기격(一行得氣格), 양신성상격(兩神成象格), 종격(從格), 화격(化格)으로 격국을 분별하기에 그 왕(旺)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거나 순국(順局), 반국(反局)에 의하여 용신을 정하니 결국 변격에서는 용신의 성정(性情)과 기세에 따라 정하며 조후(調候)와 통관(通關)의 원칙에 의해서도 정하고 월령위주로 하지 않았다.

『적천수』에서는 정팔격(正八格)과 상법(常法)을 논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다만 관살혼잡(官殺混雜)과 상관견관(傷官見官)의 두 경우는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상제는 가운데 변화가 있기 때문이다.

『자평진전』에서는 외격(外格)은 생략하고 한 두 가지만 논하였다. 『자평진전』과 『적척수』의 주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심지어 격국에 높낮이(高低)를 논함에 있어 자평진전은 유력(有力)과 무력(無力) 유정(有情)과 무정(無情)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반해 『적천수』는 청탁(淸濁)과 진신(眞神), 그리고 가신(假神)의 고저를 판별하였다. 하지만 그 원리는 일치한다. 이 두 권을 서로 보완해야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먼저 『자평진전』을 읽고 『적천수』를 읽는 것이다.

맹자께서는 그림쇠가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하였고 또 그림쇠가 있다고 해도 교묘하게 응용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자평진전』은 명리의 그림쇠이고 『적천수』는 그 응용기술을 다룬 책이다.¹⁹⁶⁾

『적천수』는 체와 용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명리학의 3대의 텍스트로서 『적천수』, 『자평진전』, 『궁통보감』을 들 수 있는데 『궁통보감』은 조후로서 때의 용과 용(用)의 체(體)의 개념으로 시간의 변수를 넣었으며, 『자평진전』은 격국의 원국자체에 국한된 체의 체용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적천수』는 □□용의 체□□·□□용의 용□□의 단계를 포괄하는 것이며, 사물의 변화(變化)를 억부(抑扶)체계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다.

『적천수』는 주역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방의 육친론은 『주역하경』의 형이하학적인 설명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방의 육친론은 결국 주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적천수』의 뿌리도 『주역』인 것이다.

『주역』의 「십익」은 인(仁)·의(義)·예(禮) 등 인사의 도(道)와 덕(德)에 치중했던 유가 학자들 가운데 서술역을 근거로 자연·신·인간을 하나로 새로운 철학을 구축하여 유가덕이라 한다. 「십익」은 전서(복서, 卜筮)와 사상(역학, 易學)으로 분기된다.

이천(伊川, 1033~1107)은 □□때를 따라 바뀌어 도를 쫓는다. □□고 하였듯이 그 다양한 변화 속에 언제나 □□도를 쫓는다. □□는 변역(變易)의 현상 속에 불역(不

196) 徐樂五, 『子平眞詮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5, 7~8쪽.

易)을 보는 것이다.¹⁹⁷⁾

선진시대의 역학은 생명의 창달을 예찬·고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 보지 않고 삼재(三才)의 일원으로 천지 만물의 화육에 참여하고 그것을 돕는 존재가 되었다.

「십익」 중 「계사전」이 역을 철학사상서, 성덕(成德)의 지침서로 전환하게 한 발단이 되었다. 역전은 점을 치지 않고서도 덕에 의하여 의리를 밝히고, 자연의 조화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영원토록 인의(仁義) 중정(中正)의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원천이 됨을 천명하는 데까지 이른다.¹⁹⁸⁾

주역에 대한 연구는 사회발전과 문화적 사상의 변천에 의해 한역(漢易)시기, 진당(晉唐)역학시기, 송역(宋易)시기, 청대(清代)한학시기와 같이 크게 네 단계를 거쳤고, 상수학과(象數學派)와 의리학과(義理學派)의 양대학파를 형성하였다. 상수학과는 한대 학파로서 역학발전에 있어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를 한역(漢易)의 시기라 부르며, 서한(西漢)의 맹희와 경방이 창시자다. 특징은 괘기설(卦氣說)로 주역을 해석했으며, 여기에 제기된 태극원기설(太極元氣說) 팔궁설(八宮說) 및 8괘명의 고대문자 유래설, 육친설(六親說), 음양오행설, 왕휴설(旺休說) 등 후대 역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상수역은 왕필의 의리역에 대체되는 길을 피할 수 없었다. 왕필은 패효상과 패효사의 배후에 은축되어 있는 의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필의 의리역은 무형의 리(理)를 주역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상수의 배후와 상수의 경험을 초래하는 추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철학에서도 무(無)를 천지 만물의 본원으로 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 역리를 현학화함으로써 『주역』을 『노자』, 『장자』와 함께 삼현(三玄)의 하나로 올려 놓았다.¹⁹⁹⁾

주돈이(周敦頤, 1017~1073)는 상(象)에 대한 설명을 중시하고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제기하여 우주의 형성과정을 논술하고 유가의 성인 실현의 이론에

197) 박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1990, 27쪽.

198) 박신환, 위의 책, 36쪽.

199) 김학권, 『주역산책』, 예문서원, 2006, 119쪽.

근거를 제공하였다. 소옹(邵雍, 1001~1077)은 수(數)를 설명을 중시하여 선천학(先天學)을 제시하여 역학 가운데 수학과(數學派)를 건립하였으며, 의리학과는 정이(1033~1107)와 주희(朱熹, 1130~1200)로 이어졌다.

정이는 『주역』의 번역의 도를 첫 번째 위치에 놓고, 가운데 상은 의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체와 용은 아울러 하나의 근원이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아무런 간격이 없다는 명제를 제기하였다. 리는 체이고 상은 용이며 체용은 분리될 수 없고 리와 상은 하나로 융합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를 역학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철학적인 면에서 리본론(理本論)의 체계를 개창하게 되었다. 200)

주희는 만일 계사전이 없었다면 상수역학이 밝아지지 못하고, 의리의 은밀한 뜻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며, 역이 또한 결국 만세토록 쓰여 인의 중정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구양수의 일부분을 받아들여서 역은 본래 복서(卜筮)였다. 고 하였으며, 주역의 본 모습을 설명하고 역경과 역전을 역학에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은 단지 하나의 가공적 물사(物事)라고 주장하며 주역의 패효상과 패효사로 모든 사물의 이치를 표현하고 대입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정이의 체용일원설을 더욱 풍부히 발전시켜 리본론의 체계를 완성시켰다. 그는 체용일원의 본체적인 관점에서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해석하여 한대 이래 우주형성론의 체계를 본체론 체계로 전환시켜 유가철학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201)

심학과(心學派)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송의 양간(楊簡)과 명대의 왕기(王畿, 1498~1583)를 꼽을 수 있으며, 양간은 정이와 육구연(陸九淵)의 역설을 계승하여 인심(人心)으로 역을 해석하고 역의 도는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양간은 천인일본(天人一本)·삼재일체(三才一體)의 명제의 제기하여, 만물이 모두 개인의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노증역학의 기초이론을 다졌다. 명대에 이르러 왕기는 사람의 마음으로 역을 해석하는 심학과와의 저통을 계승주

200) 김학권, 위의 책, 125쪽.

201) 같은 책, 126쪽.

역을 형성하는 근원이고 천지만물은 본원이며 주재자임을 증명하였다.

기학과(氣學派)의 대표적인 인물은 북송의 장재와 명·청 교체시기의 왕부지다. 우주 사이에 형체를 가진 모든 사물, 즉 일월산천(日月山川)과 천문지리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 명(明)이라 하였고 형체가 가진 사물로 완성되지 못한 것을 형(形)은 없으나 상(象)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幽)라고 칭하였다. 형(形)과 상(象)은 기(氣)가 존재하는 두 형식에 불과하다. 기가 있으면 곧 상이다. 무릇 상은 모두 기이다. 음양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패효상의 변화와 패효사의 의리를 해석하여 역학체계를 건립하였다.

또한 왕부지(王夫之, 1619~1692)는 기학파의 입장에서 송명 역학 및 철학에 대한 총결을 시도하였다 그는 점(占)과 학(學)은 하나의 이치이다. 네 성인의 말은 모두 같은 이치이다. 점서와 『주역』의 의리 가운데 하나도 소홀이 해서는 안 되지만 학문을 위주로 해야 한다. 복희·문왕·주공·공자의 주역은 일치하므로 경과 정을 분리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또 왕부지는 역은 모두 상에 있다고 하여 물상과 수(數)·사(辭)·의리(義理)를 통솔하여 의리학파와 상수학파의 논쟁을 해결하고자 했다.

건과 곤의 패상은 함께 존재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 태극, 리기(理氣), 도기(道器), 일신(日新) 등의 토론을 통해 음양이기가 합일된 실체 천지만물의 학설을 제기하고 기본론(基本論)의 역학체계를 건립하여 고대역학의 발전을 최고로 이끌었으며, 송대 역학과 명대의 도학을 보여 주었다.²⁰²⁾

지금까지 『주역』과 역학의 발전사를 간략히 알아 보았다. 『주역』은 본래 점서이다. 역학의 핵심은 우주의 진화문제, 우주의 본체문제, 우주의 존재문제, 천지만물의 기원 및 그 변천사를 가리킨다. 우주의 축소판인 인간은 천문·지리를 살펴 인간에게 취하고 모든 자연계의 이치에 대한 개괄과 패상을 통틀어 만들어 졌다. 그 가운데 일체 만물의 변화와 추이 및 그 결말의 답을 찾을 수 있다.

202) 같은 책, 127쪽.

『적천수』는 음양오행에 근거하여 『주역』의 사상을 이어받아 경방역의 육친론을 토대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체용과 이기론을 중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체와 용이 떠날 수 없듯이 상과 이도 분리할 수 없다.

이같이 『적천수』가 술수적인 면과 학술적인 면을 동시에 지녔다고 볼 때, 학문(의리역)과 술수(상수역)를 더욱 접목시켜 연구·발전시켜야 함이 학술자로서 해야 할 도리이며, 역학인으로서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명리학 발달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신라시대 674년(문무왕 14년)에 당나라에 가서 역술을 배우고 돌아와 사용하던 이순풍의 인덕력을 채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국초(國初)부터 역서(曆書)를 사용하였으나 법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던 신라에서 이때부터 신력(新曆)의 사용을 법제화했다. 삼국사기·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일자(日者)·일관(日官)의 점을 치는 내용은 기상이변에 관한 것이고, 사주와는 관련이 없다. 점후(占候)·복서(卜筮)·음양가(陰陽家) 등의 용어가 등장하나 사주명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송대에는 고려와의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보아 가능성도 있다.

역학은 고려 초 동방역학의 시조로 우탁(禹倬)²⁰³⁾을 들 수 있다.□□우탁은 경서에 정통하고 역학에 깊으며 복서로 맞추지 아니 함이 없다.□□는 기록도 있다. 또 조선 성종 16년(서기 1485년) 『경국대전』 음양과에 명학과 고시과목과 영조 46년 『속대전』에도 나와 있다.²⁰⁴⁾

명과목 중 사주명리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응천가』, 『서자평』, 『원

203) 高麗史, 109卷, 例傳 22.

204) 고시과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初試: 袁天綱(背誦), 徐子平, 應天歌, 範圍數, 剋擇通書, 經國大典(臨文)/取才: 袁天綱(背誦), 三辰通載, 大定數, 範圍數, 六壬, 五行精記, 剋擇通書, 紫微數, 應天歌, 徐子平, 玄輿子平, 蘭臺妙選, 星命總話(臨文)

영조 46년(서기 1770년)에 반포된 《속대전》 기록되어 있는 명과학의 고시과목은 아래와 같다. 初試: 袁天綱(背誦), 徐子平, 應天歌, 範圍數, 經國大典(臨文), 天文曆法(臨文)/覆試: 初試와 같음.

천강』이며, 그 밖에 육임점·별점·자미두수 등이 있다. 그 중 『응천가』는 괘정(郭程)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대 시중에서 유통되는 사주명리학에서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는 육십갑자납음오행(六十甲子納音五行)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포태법·신살(神煞)·오행의 상생상극을 기본 토대로 하고 있다.

조선에는 사주명리학으로서 명과학 교수들로부터 강의를 받고 초시와 복시를 거쳐 선발되었다. 국가와 왕실의 주요 사건들을 점을 쳐야했던 만큼 교육 내용도 고도로 정밀했을 것이다. 조선조의 멸망과 더불어 공식적인 관학(官學)으로서 사주명리학은 사라졌다.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고서와 역사서가 사라지게 되고 서구합리주의와 기독교 이념이 급속도로 유입되면서 유학을 근거로 한 학풍이 구습정도로 여겨짐에 따라 한학 또한 쇠퇴기를 맞이하여 사주명리학이 미신취급되는 현상을 겪게 되면서 뒷골목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해방 이후 1980년 이전까지 사주학이나 풍수학은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멀어져갔고, 경우에 더러 신기(神氣)를 띤 사람들이 사주이론을 빌어 말하다보니 사주학이나 풍수학은 신뢰할 수 없는 사술(邪術)이 되었다.

조선조 명과학 관리들처럼 사주명리학을 체계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유명인들로부터 음성적으로 전수받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또한 『자평진천子平眞詮』, 『적천수滴天隨』, 『명리정종命理正宗』, 『궁통보감窮通寶鑑』과 같은 여러 책들은 1960년 전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 하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제대로 된 학문을 접한다는 것은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다.

해방 이후 사주학의 명맥을 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 박재완(朴在玩), 김재현(金載炫), 이석영(李錫映) 등이 있다. 일부 숨은 인물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1980년대 법조인 백영관(白靈觀)이 지은 『사주정설(四柱精說)』(1983년)을 시작으로 『연해자평』, 『적천수』, 『명리정종』, 『궁통보감』 등 중국서적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번역되었다. 지금은 중국·홍콩·대만 원서들의 유입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대학 사회교육원과 각종 문화센터에서 사주학, 풍수학 등이 인기 있는 강좌로 개설되어 있으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주업계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지면서 점차 그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갑자기 쏟아져 나온 많은 강사들의 자질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 사주명리학에 대한 올바른 자리매김과 학술적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위하여 제도권인 학계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민속학이나 문화인류학, 혹은 동양철학 학과간 연계하여 더욱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최근의 추세로 보면 현재 몇 년 사이에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명리학 계통의 학과가 많이 생겼다. 동양철학이나 명리·풍수 등 여러 학문이 연구되고 학과가 생겨서 명리학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바람직하다. 그에 따라 역리학이 더욱 발전되리라고 본다.

계속적으로 서양의 사상과 문물이 여과 없이 들어옴으로써 동양사상이 혼미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양학문은 전체를 살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경향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다. 왜냐하면 자연계는 전체의 균형을 유지되지 않을 때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에 반해 동양학은 만물의 변화를 살피는 자연학을 토대로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의 균형을 중시하였고 정신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동양철학은 유(儒)·불(佛)·선(仙)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과학과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과학성 자체로 오늘날 서양과학을 보완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동양철학은 철학과 과학을 함께 추구하는 특징을 보여 왔으며, 동양에서 수 천년 동안 절대적 학문으로 존재해 왔다.

그 중에서도 음양오행론은 동양의 의학, 천문역법, 지리, 기상, 문자, 제도, 역사 등 모든 방면에서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기층문화를 형성해 왔다.

『계사전』에 점(占)이란 수를 극진히 하여 다가오는 일을 예측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명(知命) 방법이란 점을 치는 행위이다. 지명의 방법으로 수양법도 있지만 『주역』과 『명리학』 등 점의 방법도 있다. 명을 안다는 것은 나를 바르게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노력의 힘이 될 수 있다.

2. 現代的 意義

명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야 할 최선의 해결책으로서, 중국 고대에서는 복서(卜筮)에 의존했고 이를 위한 주역의 이론에 근거하여 명리학의 경우에는 경방이 육친설을 도입하였으며, 그 후 당(唐)나라의 이허중이 년주(年主)를 중심으로 송(宋)대 서자평은 일주(日主)를 위주로 하면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발전해 왔다.

명리학의 최고서인 『적천수』는 하늘이 명한 음양오행의 이치를 담아 구슬처럼 엮어서 읊어 배우는 자의 가슴을 적시며 깨끗이 해주는 자연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 저술은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월지(月地)를 모태로 함으로써 기후와 환경을 중요시 하고 있다.

공자께서도 □□50이면 천명을 안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고 했고 □□내가 몇 해만 더 살아서 역(易)을 완전히 깨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역을 중요시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역』은 동양의 여러 민족이 수천 년간 읽어 온 가장 오래된 고전이다. 고대 점술과 중세의 신비주의적 자연론에서 천문·역법·의약 등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으며, 주자학의 수용 뒤에는 윤리적·철학적 원리에 보다 치중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학자들은 주술적인 측면보다 이론적·성리학적 입장에서 역리를 연구했는데 송학(宋學)의 전례와 관련이 있다. 송학은 역과 중용(中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주역』의 음양철학이 태극론, 우주론, 도학(道學)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본이 되는 문헌은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 『성학십도(星學十圖)』, 『성학집요(星學輯要)』 등이며 이들은 주역과 태극도설을 그 학술적 연원으로 삼고 있다.

인극(人極)의 주역에서 황극(皇極)이 정립될 수 있다면 사물을 달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인간중심적 진리에 근원에

두고 인극이 생긴다고 했음은 역학사상뿐만 아니라 한국사상의 특징이다.

심규철 논문²⁰⁵⁾에서 주역과 명리학이 동떨어진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술수류들이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아닌 한 것이 없다. 『사기』의 근거를 보면 음양오행설은 양한시대²⁰⁶⁾의 크게 유행을 했으며, 정치·학술·문화·기상·의술·윤리·사관·악률 등과 같은 여러 분야에 필수적 이었고, 그 학술적 영향력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명리학은 중국사회에 천여 년 동안 유행하였고 명(明)·청(淸)대에 들어서 다수의 명리서적이 나오면서 학문적으로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그 시대에 명리법을 말하는 자는 대개 선비들로서 이허중, 유백운, 진소암, 만육오, 심효천 등 한때 명사들이다. 정명론의 이론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민간 및 각계각층에 파고든 명리학을 연구한 노력은 긍정적인 것이었다. 그 근원은 고대 천문법의 칠정사여학에서 중요한 십간화요(십신론), 즉 육친론과 같다.

『문언전』에서 □□상인의 대인은 천지의 품성과 서로 일치하고, 일월의 광명과 서로 일치하며, 사시의 질서와 서로 일치하고, 귀신의 길흉과 서로 일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늘의 변화에 따라 곧 때를 받들어 행동하는 것이 어떠한 착오도 없으며, 덕(德)을 지니고 있어 그 행위가 항상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유향(劉向, B. C. 77 ~ 6)²⁰⁷⁾은 □□운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아

205) 金萬泰, 「命理學의 韓國的 受容 및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00쪽.

206) 주역 이후로 명을 헤아리는 방법의 기원을 양한(兩漢)으로 보고 있다. 홍비모(문재곤역), 『시의 철학』, 예문지, 1993, 41쪽.

207) 중국 서한(西漢)의 원제·성제 때의 경학자(經學子), 목록학자, 문학자. 본명은 갱생(更生), 자는 자정(子政)이며 초(楚) 원왕(元王)의 후예로서 한(漢)의 종실(宗室)이다. 그는 한유(漢儒) 중 박식하고 청렴·강직하였다. 일찍이 조정의 정치득실에다 마음을 쏟아, 원제(元帝) 때 환관인 홍공(弘恭)·석현(石顯) 등이 권력을 휘두르자, 소망지(所望之) 등 충성된 선비들과 도모하여 이를 물리치기도 하였고, 또 성제(成帝) 때 외척의 세력이 성행해지자 누누이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통론하였으며, 음양오행설로 황제를 깨우치려 힘쓰기도 하였다. 그의 학문적 업적으로는 선진(先秦)의 고서(古書)를 교감(校勘)하고 그 편장(篇章)을 바로 잡으며 진위를 밝혔고 또 『곡량(穀梁)』을 연구하였다. 저서로는 『신서(新序)』 10권 『설원(說苑)』 20권이 있다. 金勝東, 앞의 사진, 935쪽.

니하며,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아니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명리학도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인사·지리뿐만 아니라 체질·적성·성격 등 나의 소질과 건강, 나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면을 더욱 발전시켜 나를 바르게 알고 올바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지남(地南)인 것이다. 즉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허덕이기 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그 운명에 대처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피흉취길(避凶就吉)의 방법을 적용하여 자연의 섭리 곧 천명을 알고 인도를 지켜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사주명리학은 단순히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술법이 아니라, 동양의 정신적인 철학이념과 깊이 관련이 있다. 역사·철학과 관련성이 깊은 학문분야지만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우리 실정에 맞는 독창성과 현장성 및 실용성있는 학문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V. 結論

본 논문은 원(元)·명(明)대의 유백운(1311~1375)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명리의 최고서라 일컬어지는 말하는 『적천수』에 관한 논문이다. 그는 주원장(1328~1398)의 책사로서 명 제국을 건설하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로 더 유명하다. 제갈량과 견줄만한 인물로 평가되며, 명대의 4대 작가로서 풍류산문집이라는 저술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천문·지리·명리·육효·기문 등 여러 역리학분야에도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적천수』에 대한 여러 번역서와 술수적인 저술들이 많으나 본 논문에서는 술수적인 측면보다 적천수의 명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그 사상적 원천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학적인 측면으로서 중용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인 성(性)·도(道)·교(教)를 제시한 대학의 삼강과 팔조목이 통신론(通信論)과 육친론(六親論)에서 주장되는 면을 보아도 학문으로서 더욱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점복술은 고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발전하여 국가의 정치생활 및 개인의 운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사주명리학은 태고의 기문둔갑에서 시작되고 후에 천문운명학인 칠정사여운명학에 옮겨져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사주추명학으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술수류들이 『주역』의 사상을 이어받았음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역의 사상적 특성이 경방역 및 적천수로 이어진 맥락을 볼 수 있다. 『주역』의 삼재(三才) 사상·음양철학·태극론·우주론을 바탕으로 자연철학이 시작되었으며, 『주역』의 사상과 체계를 본받아 오행설을 도입하여 경방이 육친설을 창안한 사실과 그것이 명리학에서 없어서는 안 될 통변성의 중요한 이론이 되었음을 밝혔다. 고대 인류의 시작과 출발을 같이한 점복술의 다양함도 살펴보았다.

『적천수』 이전의 고법명리는 성명학(星命學)과 중요 인물들의 많은 연구

와 노력을 거쳐서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적천수』가 나오기까지 학자들의 여러 학설이 있었으나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적천수』의 바로 이전의 학설인 『연해자평』이며, 그 또한 『주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았다.

최초의 사주개념의 언급은 진나라 괘박이 찬한 『옥조정진경』에서 볼 수 있으며, 그것이 낙록자와 이허중에 영향을 끼쳤다. 그 근거는 『사고전서』 「술수류」에 남아 있다. 『적천수』는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격국과 용신을 크게 논한 것이 없으며, 음양오행의 변화를 논한 변격, 즉 체용면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소홀히 할 수 있는 신살론의 기원과 그 다양함도 상세히 검토해 보았다.

신살론의 기원은 칠정사여학인 별자리에서 나왔으며 신살의 근거가 여러 학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무려 180여개나 되었으나 그 신살은 명리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술수류의 발달과정에서 다양하게 혼재되어 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신살의 적용 역시 년주위주, 일주위주, 12운성위주 등 아직까지 확실한 정법도 없음을 보았다.

현재 신살이 다 배격된 것은 아니고 여러 술수류에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명리학에서도 20~30여 가지는 운용하고 있다. 12운성 역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볼 때 신살 및 12운성의 쓰임은 당분간 현장의 역술가들에게 말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준을 잡기가 힘들며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 향후 학자들의 연구가 더욱 필요함을 알았다.

이와 관련하여 신살론과 음양오행론에 부합하는 현존하는 인물을 위주로 사주의 간명을 시도했다. 적천수의 특징인 신살론을 배격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로도 충분히 사주간명이 가능했으며, 이에 몇 가지 특징있는 사주를 실례로 분석해 보았지만 더 많은 사주를 풀이해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측면도 있다.

또한 명리학을 공부하기에 앞서 음양오행을 소홀히 다루는 점이 있는데, 세밀히 연구함은 물론 우선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명리학상 중요한 음양오행의 생극제화론과 삼십육수론, 지지금론과 지지론, 십이월합론 및 삼형론도 살펴보

왔다.

유백온의 명리서인 『적천수』를 단순히 술수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상적인 면까지 들여다 봄으로써 이면에 도덕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사회적·개인적으로 극복해야만 했던 역사적 배경도 엿볼 수 있었다.

『적천수』는 인간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려는 술수기법을 넘어서, 우주간에 존재하는 모든 이치를 규명하고자 하는 철학서이다. 즉, 모두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철학이자 사상임을 깨닫게 되고, 동양사람과 서양사람 또는 동양문화와 서양문화로 구별하면서 그의 우열과 장단을 논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그것은 음양의 논리로 분석되는 것으로 서로 구별되는 관계가 아닌 것이다.

『적천수』는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조화라 할 수 있는 사회적·역사적 지침서로서 인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의 지침서 역할에 일조를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의리역과 술수역이 접목된 많은 연구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명리학은 10간과 12지의 음양오행으로만 논하는 한계에 놓여 있는데다가 그동안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은 측면도 많다. 학문적 체계나 이론보다는 개인의 구전에 주로 의존하여, 술수적면이 더 강하게 작용함으로써 여러 학자들 뿐만 아니라 학과간에도 서로의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이다.

『홍범오행전』에 보면 벼슬이름 조차도 천간 지지의 오행에 대입하였다. 또한 『문자』에 사람의 성품을 25등급으로 나누었던 예가 있다.²⁰⁸⁾ 그러나 적천수 및 여러 명리서들의 경우 연구된 사주들을 보면 직업은 벼슬한 사람과 농업·상업 등에 국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시대에 맞게 다양한 직업군으로 분류하여 연구함이 필요하다

현사회의 실업률이 최고시점에 달하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직업이 없이는

208) 蕭吉, 앞의 책, 531~535쪽.

살아갈 수 없으며, 그것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는 정신적인 활동이나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직업활동은 생활에 필요한 수입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사회·국가를 위해 가치있는 일이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소임을 다함으로써 사회기능을 유지하고, 아울러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직업은 우리에게 삶의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 주기도 하고, 생계유지의 수단이며 삶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기도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 삶과의 관계에서 보면 직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취업정보총람〉에는 직업의 종류가 무려 372가지나 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음양오행 하나만으로 과연 직업의 진로나 적성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물론 직업의 적성에 대한 다양한 논문도 많이 나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성과가 미흡함을 고려할 때 제도권 학자들과 많은 재야 역술인들이 지금까지의 상호 배척과 비방이라는 편협성을 극복하고 □□학□□(學)과□□술□□(術) 간의 긴밀한 상호연관성에 주목하여 동반자임을 인식함으로써 명리학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학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

1. 원전 및 중국서적

盧英, 『京氏易傳解讀』, 九州出版社, 2004.

『明史』, 「藝文志」三命奇談滴天髓, 中華書局.

萬民英, 『三命通會』,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2.

房立中, 『劉伯溫全書』, 北京: 學苑出版社, 1996.

法雲居士, 『李虛中命書詳析』, 金星出版, 2007.

蕭吉, 『五行大義』, 大有學堂, 1993.

蘇衛國, 『玉照定真經』, 中國哲學文化協會出版, 2000.

邵康節, 『易經皇極經世秘本』,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7.

徐樂吾, 『窮通寶鑑』, 武陵出版有限公司, 2005.

徐樂五, 『子平真詮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5.

徐樂吾, 『滴天髓補註』,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徐樂吾 編著, 『適天髓徵義』, 『滴天髓輯要 註釋』, 武陵出版有限公司, 2005.

徐樂吾 評註, 『造化元鑰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徐升,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04.

趙子澤/徐子平, 『珞琰子三命消息賦』, 聚賢館文化有限公司, 2007.

任鐵樵 註, 『滴隨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9.

劉伯溫(徐樂吾補註), 『滴天髓輯要』 『滴天髓補註』, 臺灣: 瑞成書局印行, 1979

劉伯溫(張英基譯註), 『郁離子譯註』,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2.

劉一明, 『道書十二種』, 中國中醫藥出版社, 1990.

何建忠, 『八字心理推命學』, 龍吟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4.

成百曉(譯註), 『周易傳義 上, 下』, 傳統文化研究會, 2006.

鄭景峰, 『卜筮正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7.

鄭富昇, 『七政四餘命全書』, 武陵出版有限公司, 2003.

제갈량, 劉伯溫 『堪輿秘笈寄書』 正宗三元地理秘訣』, 喜年來出版社, 1996년.

사고전서 CD.

『四庫全書 術數類 全集』, 青海人民出版社, 1999.

司馬遷(撰),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尙書』, 「洪範篇」

梁湘潤, 『命學大辭淵』, 臺灣 文源書局有限公印行, 1996.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6.

2. 국내서적

『논어』

『대학』

『맹자』

『주역』

『중용』

『사기』, 「공자세가(孔子世家)」

高懷民(송실대 동양철학 연구실譯), 『中國古代易學史』, 송실대학교출판부, 1994.

곽신환, 『주역의 이해』, 서광사, 2003.

권오달, 『야학노인집복전서』 (기초편/응용편), 도서출판 소강, 2004.

강진원, 『역으로 보는 동양천문이야기』, 정신세계사, 2006.

金東奎, 『卜筮正宗해설』, 里程碑, 2000.

김태균, 『현대명리학개론』, 양림, 2004.

金于齊, 四柱와 姓名學, 明文堂, 1989.

김일엽, 『김일엽명리전서』, 서진출판사, 2003.

- 김선희, 『왕초보자미두수 1,2』, 동학사, 2000.
- 金星元/安吉煥, 『노자와 장자의 철학』, 명문당, 2002.
- 김성진, 『동양인의 사주팔자』, 동문당출판사, 2000.
- 김수길/윤상철, 『주역입문 2』, 대유학당, 2004.
- 김홍경 편저, 『음양오행설의 연구』, 신지서원, 1993.
- 김홍경/신하령 편저,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 김수길/윤상철 편저, 『오행대의』, 대유학당, 1998.
- 金勝東, 『易思想辭典』, 釜山大學敎 出版部, 1998.
- 김학주 외, 『중국고전문화의 전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김교빈 외, 『중국의 종교와 사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 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편저, 『정신과학 - 천문편』, 열매출판사, 2005.
- 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편저, 『정신과학 - 역리편』, 청목출판사, 2003.
- 공주대학교 정신과학연구소 편저, 『정신과학 - 종교편』, 청목출판사, 2001.
- 구중희 모음, 『조선왕조실록 소재 역리학 자료집 I, II, III, IV, V』, 2004.
- 까오화이민(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 옮김), 『중국고대역학사』, 1994.
- 까오화이민(신하령/김태완 옮김), 『상수역학』, 신지서원, 1994.
- 나영훈, 『이회 적천수』, 봉성기획, 2001.
- 남희근(신원봉 옮김), 『역경잡설』, 문예출판사, 1998.
-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1,2,3』 한길사, 2004.
- 류래웅, 『기문둔갑신수결』, 2005.
- 박주현, 『적천수강의 1,2,3』, 동학사, 2006.
- 박소정 편역, 『교양중국사』, 이산, 2005.
- 박영창 번역, 『子平眞詮評註』, 신지평, 2004.
- 白靈觀, 『四柱精說』,明文堂, 1991.
- 沈種哲, 『四柱祕傳滴天髓闡微』, 大地文化史, 1994.
- 阿附泰山, 『滴天髓秘解 上, 中, 下』, 三元文化社, 1998.

李舞鶴, 『滴天髓增刪譯註』, 森夏, 2004.

이수, 『자평진전 리뷰 1,2』, 장서원, 2005.

李俊雨, 『命理精說』, 明文堂, 1990.

이민수, 『사서오경입문』, 흥신문화사, 2001.

李基東, 『맹자강설』, 성균대학교출판부, 2007.

李基東, 『대학·중용강설』, 성균대학교출판부, 2007.

이동희, 『동아시아주자학 비교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申六泉, 『天古秘傳 四柱鑑定法秘訣集』, 甲乙堂, 2002.

申六泉, 『天古秘傳 四柱鑑定總整理』, 甲乙堂, 2003.

沈載熱, 『增補 淵海子平精解』, 明文堂, 2007.

소강철(노영균 옮김), 『황극경세서』, 대원출판사, 2002.

쯔가오(허유영 옮김), 『뜻을 세웠거든 이루게 하라 성사경』, 북폴리오, 2005.

시마다겐지(김석근/이근우 옮김), 『朱子學와 陽明學』, 까치, 2003.

지세화 편저, 『이야기 중국사 下』, 일빛, 2002.

朱伯崑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예문서원, 2003.

장태상, 『기문둔갑예측학』, 전통문화사, 2001.

주희(김상섭 해설), 『역학계몽』, 예문서원, 1999.

왕호(구중희 옮김), 『역리학의 이해』, 도서출판 상명, 2006.

韓東錫, 『宇宙變化의 原理』, 대원출판, 2005.

홍비모(문재곤 역), 『시의 철학』, 예문지, 1993.

화원위엔, 『혁신』, 2005.

3. 논문류

姜慶求, 「劉一明의 『金丹四百字解』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金萬泰, 「命理學의 韓國的 受容 및 展開過程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우정, 「『궁통보감』에 관한 번역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金一權,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학위논문, 1999.

金秀年, 「東洋天文學上 北斗七星의 意義와 易理學的 影響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金珍熙, 「자평사주학의 理論的 根據와 構成體系에 관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朴憲九, 「劉基(伯溫)의 『適天髓』 原主 翻譯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宋富鐘, 「『淵海子平』 翻譯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李時松, 「春香傳에 나타난 六爻占에 관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李昌壹, 「소강절의 先天易學과 상관적 사유」,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李容俊, 「四柱學의 歷史와 格局用神의 變遷過程 研究」,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논문, 2004.

尹太鉉, 「京房 易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이선중, 「四柱로 본 職業適性と 適性檢査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장영, 「四柱와 리더쉽 資質理論에 관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문, 1997.

鄭國鎔, 「性格特性的 豫測을 위한 四柱命理學에 관한 研究」,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창근, 「장기별 중증질환증상의 발현과 명리학적 분류에 관한 연구」, 한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鄭然美, 「徐子平 『珞璣子三命消息賦注』의 命理學史的 研究」, 원광대학
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ABSTRACT ■

A Study on the Divination Principles by
"Liu Bai-wen"

- Focusing on *"Di Tian Sui"* -

Lee Ok-sun

Department of Ori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ng Seok-jun)

Humankind have predicted effects which affect life through astronomical phenomena since ancient times. Simultaneously, they have divined from one's fortune to nation's fortune, interpreting astronomical change.

Based on these sciences, the Theory of Divination Principles is a science which deserves to be investigated as nature science based on the theory of y Yinad-yang and Five the Elements of vital energy of the universe.

Di Tian Sui by *Liu Bai-wen* for important role in texts of the Theory of Divination Principles. He na principal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importantly, and mentions that the Theory of *"Kyeokkook"*, the Theory of *"Sinsal"*, and so on are unusable.

Also, this book interprets in detail the law of the *"Kanmyeong"* with

anatomizing the framework of structuring human destiny and fortune , and investigating the root very orderly.

Di Tian Sui is a book that helps people search for the law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of nature, with a view to a human-oriented approach to the harmony within a theoretical framework of yin and yang. It is a book of fame and riches which values no trickery one but intellectual philosophical merits to human.

At present, the social status of the Theory of Divination Principles is law, because there are many negative views which is combined destinedfactor with superstitious factor.

In spite of those academic a achievements made by relevant scratchers , that system still seems to be unstable

Therefore, scholars who investigate the Theory of Divination Principles are regained are to search towards to combine the academic systemicity combined with tricky factors in practice

Human beings live with nature at present and in the future. The more civilization develops, the more we owe to the importance of nature. Therefore, we must investigate profoundly the Theory of Divination Principles which is the nature science of Yin-yang and Five Elements.

◆ 부 록 ◆

<표 1> 여러나라의 12지지 동물 배속표

나라	열두가지 띠											
중국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인도	쥐	소	사자	토끼	용	독사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그리스	황소	산양	사자	당나귀	게	뱀	개	쥐	악어	따오기	원숭이	매
이집트	황소	산양	사자	당나귀	게	뱀	개	고양이	악어	따오기	원숭이	매

<표 2> 十干變曜五行表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火星	孛星	木星	金星	土星	月星	水星	紫炁	計都	羅喉

<표 3> 十二支變曜五行表

(日) 午	春	夏	秋	冬	子 丑 (地球 土)
	寅	卯	辰	巳	
(月) 未	亥	戌	酉	申	
	木	火	金	水	

<표 4> 칠성(七星)과 사여성신(四餘星神)

通變星	七政星名	通變星	七政星名
比肩	天祿	正財	天貴
劫財	天暗	偏官	天刑
食神	天福	正官	天印
傷官	天耗	倒食	天囚
偏財	天蔭	印綬	天權

<표 5> 길·흉 신살 조건표(180여개)

양인	당부	지역	혈기	세가	검봉	천궁	퇴신	백의	천곡	교살	금궐	복호	지상	병부
陽刀	唐符	地域	血氣	歲駕	劍鋒	天空	退身	白衣	天哭	絞殺	金匱	伏尸	地喪	病符
피두	천해	혈인	홍란	삼형	고진	대살	택신	자미	수옥	팔좌	옥당	태세	금여	비부
披頭	天解	血刃	洪鸞	三刑	孤辰	大殺	宅神	紫薇	囚獄	八座	玉堂	太歲	金與	飛符
비인	천마	혈지	산성	복음	복시	태양	복신	용덕	유하	줄폭	세합	회기	판안	음인
飛刀	天馬	血支	産星	伏吟	伏屍	太陽	伏神	龍德	流霞	卒暴	歲合	晦氣	板鞍	陰刃
지해	부침	천희	육해	과속	비림	도화	지배	홍염	피마	탄함	경천	음살	고학	천재
地解	浮沉	天喜	六害	寡宿	飛廉	桃花	指背	紅艷	披麻	吞陷	驚天	陰殺	孤虐	天財
상문	지위	구신	오귀	관부	월덕	소모	주작	천적	지적	월덕	천사	천중	사폐	천라
喪門	地狔	鉤神	五鬼	官符	月德	小耗	朱雀	天賊	地賊	합月	天赦	살天	四廢	天羅
합지	적살	병부	천구	권설	천웅	천역	천의	지재	천록	학당	시록	십악	천전	맥월
咸池	的殺	病符	天狗	卷舌	天雄	天厄	天醫	地財	天祿	學堂	時祿	十惡	天轉	陌越
지자	관색	태음	삼태	비천	사부	세과	천은	천온	천덕	월장	록신	공망	삼기	지망
地雌	貫索	太陰	三台	飛天	死符	歲破	天恩	天瘟	합天	月將	祿神	四大	空亡	地網
파쇄	맥월	조객	교살	천덕	백호	폭패	지의	월패	육갑	공망	괴강	십령	대패	방해
破碎	驀越	弔客	絞殺	天德	白虎	暴敗	地醫	月敗	空亡	六甲	魁罡	十靈	大敗	妨害

난간 闌干	표미 豹尾	재살 災殺	장성 將星	세전 歲殿	천모 天耗	진신 進神	최관 催官	천음 天陰	천수 天囚	월공 月空	대랑 積大 狼籍	각답 脚踏	여방 婦女 妨夫	철소 主鐵 掃帚
반음 反吟	화개 華蓋	천살 天殺	년살 年殺	과갑 科甲	치난 值難	음착 陰錯	천암 天暗	천인 天印	천을 天乙	천주 天廚	팔괘 八敗	포태 胞胎	망문 望門 門鰥	재가 再嫁
황번 黃旛	역마 驛馬	망신 亡神	반월 半月	월렴 月廉	지모 地耗	교신 交神	천복 天福	천형 天刑	문창 文昌	랑적 狼籍	중혼 重婚	남방 妨妻 妨妻	망문 望門 門寡	
겁살 劫煞	마전 馬前	지살 地殺	월살 月殺	월부 月符	청수 靑受	양차 陽差	천귀 天貴	천권 天權	복성 福星	복시 伏屍	절방 絶房	다액 多厄	골과 碎骨 破碎	

<표 6> 기문둔갑(奇門遁甲)에 쓰이는 신살

육합 六合	삼합 三合	화국 化局	상충 相沖	삼형 三刑	원진살 怨嗔殺	역마살 驛馬殺	천마살 天馬殺	도화살 桃花殺	홍염살 紅艷殺
겁살 劫煞	망신살 亡神殺	양인살 羊刃殺	비인살 飛刃殺	백호살 白虎殺	천화살 天火殺	독화살 獨火殺	탄함살 呑陷殺	부침살 浮沈殺	낙정살 落井殺
공망 空亡	고진살 孤辰殺	과숙살 寡宿殺	상문살 喪門殺	조객살 弔客殺	정록 正錄	천을 귀인 天乙 貴人	천주 귀인 天廚 貴人	문창 귀인 文昌 貴人	천덕 天德
월덕 月德	기문 포태법 奇門 胞胎法								

<표 7> 육효에 쓰이는 신살표

육친 六親	세응 世應	동변 動變	용신 用神	원신 元神	기신 忌神	구신 仇神	쇠왕 衰旺	오행상 生五行 相生	오행상 극五行 相剋
극처봉 生剋處 逢生	동정생 극動靜 生剋	동변생 극충합 動變生 剋沖合	사시왕 상四時 旺相)	월장 月將	일진 日辰	육신 六神	육합 六合	삼합 三合	육충 六沖
삼형 三刑	육해 六害	암동 暗動	동산 動散	괘변생 극묘절 卦變生 剋墓絕	반복 反復	순공 旬空	생왕묘 절生旺 墓絕	귀혼 歸魂	유혼 遊魂
월파 月破	수귀입 묘隨鬼 入墓	독발 獨發	양현 兩現	성살 星煞					

<표 8> 자미두수에 쓰이는 신살

자미성 紫微星	천기성 天機星	태양성 太陽星	무곡성 武曲星	천동성 天同星	염정성 廉貞星	천부성 天府星	태음성 太陰星	탐랑성 貪狼星
거문성 巨門星	천상성 天相星	천량성 天梁星	칠살성 七殺星	파군성 破軍星	문창 文昌	문곡 文曲	지겁 地劫	지공 地空
태보 台輔	봉고 封誥	화성 火星	영성 鈴星	좌보 左輔	우필 右弼	천형 天刑	천요 天姚	천무 天巫
음살 陰殺	천월 天月	해신 解神	보필 輔弼	괴월 魁鉞	창곡 昌曲	양타 羊陀	화령 火鈴	공겁 空劫
삼태	팔좌	은광	천귀	천괴	천월	녹존	경양	타라

三台	八座	恩光	天貴	天魁	天鉞	祿存	擎羊	陀羅
천관 天官	천복 天福	천주 天廚	화록 化錄	화권 化權	화과 化科	화기 化忌	절로공망 截路空亡	천마 天馬
함지 咸池	겁살 劫煞	화개 華蓋	고진 孤辰	과숙 寡宿	천허 擅許	천곡 天哭	홍란 洪鸞	천희 天喜
용지 龍池	봉각 鳳閣	천재 天才	천수 踐修	천상 天傷	천사 天使	천공 天空	대모 大耗	파쇄 破碎
천덕 天德	월덕 月德	박사 博士	역사 力士	청룡 靑龍	소모 小耗	장군 將軍	주서 奏書	비렴 飛廉
희신 喜神	병부 病符	복병 伏兵	관부 官符					

<표 9> 당사주에 쓰이는 신살표(천성표)

천귀성 天貴星	천액성 天厄星	천권성 天權星	천파성 天破星	천간성 天干星	천문성 天文星
천복성 天福星	천역성 天驛星	천고성 天孤星	천인성 天刃星	천예성 天藝星	천수성 天壽星

< 표 10> 현재 쓰이는 신살표

천을	월덕	천덕	문창	금여	건록	삼기	천사	역마	천의성	녹마	백호
귀인	귀인	귀인	귀인	금여	건록	삼기	천사	역마	천의성	동향	대살
天乙	月德	天德	文昌	金輿	建祿	三奇	天赦	驛馬	天医星	祿馬	白虎
貴人	貴人	貴人	貴人							同鄉	大煞

괴강 魁罡	도화 桃花	양인 羊刃	삼재 팔난 三災 八難	고진 과숙 孤辰 寡宿	상문· 조객 喪門· 弔客	원진 怨嗔	홍염 紅艷	현침 懸針	고난 孤鸞	화개 華蓋	평두 平頭
공망 空亡	음착 양차 陰錯 陽差	귀문 관살 鬼門 關煞	목욕살 沐浴煞	탕화 湯火	급각살 急脚煞	효신 梟神	천라 지망 天羅 地網	팔전 음욕살 八專 淫浴煞			
겁살 劫煞	재살 災煞	천살 天煞	지살 地煞	년살 年煞	월살 月煞	망신살 亡身煞	장성 將星	반안 攀鞍	역마 驛馬	육해 六害	화개 華蓋

<표 11> 년지 중심 신살표

신살 년지	원진	겁살	망신	합지	고진	과숙	상문	조객	재살	고초	육액	파쇠	천살
子	未	巳	亥	酉	寅	戌	戌	寅	午	戌	卯	巳	未
丑	午	寅	申	午	寅	戌	亥	卯	卯	未	子	酉	辰
寅	酉	亥	巳	卯	巳	丑	子	辰	子	辰	酉	丑	丑
卯	申	申	寅	子	巳	丑	丑	巳	酉	丑	午	巳	戌
辰	亥	巳	亥	酉	巳	丑	寅	午	午	戌	卯	酉	未
巳	戌	寅	申	午	申	辰	卯	未	卯	未	子	丑	辰
午	丑	亥	巳	卯	申	辰	辰	申	子	辰	酉	巳	丑
未	子	申	寅	子	申	辰	巳	酉	酉	丑	午	酉	戌
申	卯	巳	亥	酉	亥	未	午	戌	午	戌	卯	丑	未
酉	寅	寅	申	午	亥	未	未	亥	卯	未	子	巳	辰
戌	巳	亥	巳	卯	亥	未	申	子	子	辰	酉	丑	丑
亥	辰	申	寅	子	寅	戌	酉	丑	酉	丑	午	酉	戌

<표 12> 12운성중심 신살표

신살	겁살	재살	천살	지살	합지	고초	망신	장성	금여	역마	육액	화개
12 運星	絶	胎	養	生	浴	帶	錄	旺	衰	病	死	墓
巳酉丑 (庚)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亥卯未 (甲)	申	酉	戌	亥	子	丑	寅	酉	辰	巳	午	未
申子辰 (壬)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寅午戌 (丙 戊)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표 13> 일간중심 신살표

日干 神殺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天乙貴人	丑未	子申	酉亥	亥酉	丑未	子申	丑未	寅午	卯巳	巳卯
文昌	巳	午	申	酉	申	酉	亥	子	寅	卯
學堂	亥	午	寅	酉	寅	酉	巳	子	申	卯
金與	辰	巳	未	申	未	申	戌	亥	丑	寅
暗綠	亥	戌	申	未	申	未	巳	辰	寅	丑
羊刃	卯		午		午		酉		子	
飛刃	酉	戌	子	丑	子	丑	卯	辰	午	未
太極貴人	子午	子午	酉卯	卯酉	辰戌 丑未	辰戌 丑未	寅亥	寅亥	巳申	巳申
天官貴人	未	辰	巳	巳	卯	卯	亥	申	酉	午
福星貴人	寅	丑	子	子	申	申	午	巳	辰	卯
天廚貴人	巳	午	巳	巳	申	申	亥	子	寅	卯
天福貴人	酉	申	子	子	卯	卯	午	巳	丑未	辰戌
官貴學官	巳	巳	申	申	亥	亥	寅	寅	申	申
天羅地網			戌亥	戌亥					辰巳	辰巳
紅艷殺	午	午	寅	寅	辰	辰	戌	酉	申子	辰

天祿貴人	寅	卯	巳	巳	巳	午	申	酉	亥	子
------	---	---	---	---	---	---	---	---	---	---

<표 14> 월지중심 길성표

월지 길성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天德貴人	巳	庚	丁	申	壬	辛	亥	甲	癸	寅	丙	乙
月德貴人	壬	庚	丙	甲	壬	庚	丙	甲	壬	庚	丙	甲
天德合	申	乙	壬	巳	丁	丙	寅	己	戊	亥	辛	庚
月德合	丁	乙	申	己	丁	乙	辛	己	丁	乙	辛	己

<표 15> 일지중심 길성표

일지 길성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驛馬	寅	亥	申	巳	寅	亥	申	巳	寅	亥	申	巳
將星	子	酉	午	卯	子	酉	午	卯	子	酉	午	卯
華蓋	辰	丑	戌	未	辰	丑	戌	未	辰	丑	戌	未

<표 17> 북두성 칠정표

	목요성	금요성	토요성	일요성	월요성	화요성	수요성
동방7수	角(蛟) 교룡	亢(龍) 용	氏(貉) 담비	房(兔) 토끼	心(狐) 여우	尾(虎) 범	箕(豹) 표범
북방7수	斗(蟹) 게	牛(牛) 소	女(蝠) 박쥐	虛(鼠) 쥐	危(燕) 제비	室(猪) 돼지	壁(獺) 설유
서방7수	奎(狼) 이리	數(狗) 개	胃(雉) 꿩	昂(鷄) 닭	畢(烏) 까마귀	觜(猴) 원숭이	參(猿) 원숭이
남방7수	井(犴) 들개	鬼(羊) 양	柳(獐) 노루	星(馬) 말	張(鹿) 사슴	翼(蛇) 뱀	軫(蚓) 지렁이

<표 17> 이아와 사기의 천간 별명

천간 (天干)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
이아 (爾雅)	알봉 (闕逢)	전몽 (旄蒙)	유조 (柔兆)	강어 (強圉)	저용 (著雍)	도유 (屠維)	상장 (上章)	중광 (重光)	현익 (玄黓)	소양 (昭陽)
사기 (史記)	언봉 (焉逢)	단몽 (端蒙)	유조 (游兆)	강오 (疆梧)	도유 (徒維)	축리 (祝犁)	상횡 (商橫)	소양 (昭陽)	횡애 (橫艾)	상장 (尙章)

<표 18> 이아와 사기의 지지 별명

지지 地支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이아 爾雅	곤돈 困敦	적분 軹奮	섭제 攝提	단알 單闕	집서 執徐	대황 大荒	돈장 敦牂	협협 協洽	군탄 涓灘	작악 作鄂	엄무 淹茂	대연 大淵
사기 史記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엄무 淹茂	상동

<표 19> 동·서양의 오성 속성표

오성	동양	서양	오행	계절	방위	오상	신체	역할
목성	세성(歲星)	Jupiter	木	春	東	仁	간장, 눈	나라의 명운을 주관
화성	형혹성(熒惑星)	Mars	火	夏	南	禮	심장, 혀	벌을 집행하는 일을 주관
토성	토성 진성(鎮星)	Saturn	土	季夏	中央	信	위장, 입	제후와 임금의 상(象)
금성	태백성(太白星)	Venus	金	秋	西	義	폐장, 코	군대의 상(象)
수성	진성(辰星)	Mercury	水	冬	北	智	신장, 귀	살벌(殺伐)하 는 일을 주관

<표 20> 음양오행의 배속표

천간(天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지지(地支)	寅卯	巳午	辰戌丑未	申酉	亥子
수(數)	3, 8	7, 2	5, 10	9, 4	1, 6
오행(五行)	木	火	土	金	水
오방(五方)	東	南	中央	西	北
절기(節氣)	春	夏	四季	秋	東
오기(五氣)	풍(風)	열(熱)	냉(冷), 습(濕)	조(燥)	한(寒)
오색(五色)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오미(五味)	산(酸)	고(苦)	감(甘)	신(辛)	함(鹹)
오상(五象)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
기상(氣象)	인애(仁愛)	강맹(剛猛)	관홍(寬弘)	살벌(殺伐)	유화(柔和)
오체(五體)	근육, 심(心)	혈관, 온(溫)	육(肉)	피부, 식(息)	골(骨)
오장(五臟)	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육부(六腑)	담(膽)	소장(小腸) 명문삼초 (命門三焦)	위(胃)	대장(大腸)	방광(膀胱)
오관(五官)	눈(眼)	혀(舌)	몸(身)	코(鼻)	귀(耳)
오각(五覺)	시각(視覺)	미각(味覺)	촉각(觸覺)	후각(嗅覺)	청각(聽覺)
오성(五星)	혼(魂), 님	신(神), 정신	령(靈), 신령	백(魄), 혼	정(精), 깨끗함
오음(五音)	각(角)	치(齒)	궁(宮)	상(商)	우(羽)
오과(五果)	오얏	은행	대추	복숭아	밤
팔괘(八卦)	손(巽), 진(震)	리(離)	간(艮), 곤(坤)	건(乾), 태(兌)	감(坎)
구성(九星)	삼백(三, 碧) 사록(四, 綠)	구자(九, 紫)	이흑(二, 黑) 오황(五, 黃), 팔백(八, 白)	육백(六, 白) 칠적(七, 赤)	일백(一, 白)
오행소속음 (五行所屬音)	아음(牙音) ㄱ, ㅋ	설음(舌音) ㄷ, ㄹ, ㅌ	후음(喉音) ㅇ, ㅎ	치음(齒音) ㅅ, ㅆ, ㅈ	우음(羽音) ㅁ, ㅂ, ㅍ

<표 21> 삼십육금론(三十六禽論)

子	제비	쥐	박쥐	午	사슴	말	노루
丑	소	개	자라	未	양	매	기러기
寅	이리	표범	호랑이	申	고양이	원숭이	원숭이
卯	고슴도치	토끼	오소리	酉	꿩	닭	말
辰	용	이무기	물고기	戌	개	이리	승냥이
巳	물구더기	지렁이	뱀	亥	돼지	큰원숭이	멧돼지